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20

1부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07
제2장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1

2부

2020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20년도 나라살림 종합	35
	1. 재정운용 여건	37
	2. 세입 규모	38
	3. 지출 규모	45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9
제2장	재정운용 방향	53
	1. 자원배분 방향	55
	2. 중점 추진과제	60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107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09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11
	2. 교육 분야	133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40
	4. R&D 분야	151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60
	6. SOC 분야	171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7. 농림·수산·식품 분야	182
8. 환경 분야	192
9. 국방 분야	200
10. 외교·통일 분야	206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3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223

3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20년도 예산	233
1. 2020년도 예산총칙	235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40
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274
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276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278
6.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279
제2장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81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283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285
3. 기금수입 (Fund Revenues)	286
4. 기금지출 (Fund Expenditures)	290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95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97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0

1 부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제 1 장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켜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에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큼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증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를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 of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 **문 재 인**

제 2 장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과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여파로 전 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인 경기 둔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IMF 총재의 경고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이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 진작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우리의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확장 재정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영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로 다른 나라의 모범(model)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정책 조합(policy mix) 측면에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공공 부채의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2년 연속 141개국 중 1위를 기록하였고,

지난 8일 게오르기예바 IMF 신임총재도 취임일성으로 재정책대가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등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마지막 연도인 '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중심·경제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재원배분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당면한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 분야 지출을 27.5%(18.8→23.9조), R&D 투자를 17.3%(20.5→24.1조) 늘리는 등 두 분야를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 주기 위해 복지·일자리 분야를 12.8%(161.0→181.6조), 환경 분야를 19.3%(7.4→8.8조) 수준 확대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①혁신성장 가속화, ②경제 활력 제고, ③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④국민 편의·안전 증진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혁신성장 4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선도하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소위 「D.N.A. + BIG 3^{*}」 육성(3.2→4.7조)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Data, Network(5G), AI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Data, Network, AI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1.7조원을 지원하여 혁신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여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올해의 2배 이상인 2.1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00여개 전략품목의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1.3조원의 대규모 R&D를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경우 하루 빨리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성능평가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데 0.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혁신에 근간이 될 미래 인재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여 내년에는 4.8만명을, '23년까지 총 23만명을 양성하도록 적극 지원(0.4→0.6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처럼 살아난 벤처업계의 훈풍이 더 많은 혁신적 유니콘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자금, 사업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5.5조원을 지원(3.7→5.5조)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수출·투자의 부진을 타개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등 민간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 내년 수은, 무보 등에 0.6조원을 투입하여 4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설비투자,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도 제 때, 부족함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산은, 기은, 신·기보 등에 1.3조원을 출자·출연하여 정책자금을 20조원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스마트 산단 10개소 조성 등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에는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①생활 SOC 예산을 10.4조원(8.0→10.4조) 투입하여 도로, 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 여가·건강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여가시설을 전국에 280여개 신설하겠습니다.

②또한,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설계·착공비, 시범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충실히 반영(0.4조원)하였습니다.

③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도 혁신적 신사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자금(615억)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신설도 적극 뒷받침(1,080억)하겠습니다.

셋째, 사회·고용·교육 등의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혁신 지원을 강화하여 포용국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 7.9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만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을 高 3에서 高 2~3학년으로 확대하고, 최초로 국고에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0.7조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한편,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크게 고통을 겪는 청년, 노인,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올해보다 0.9만호 늘린 2.9만호를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평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7.8조원에서 9.6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을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5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리겠습니다.

노인가구가 저소득층(1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여, 내년 부터는 소득 하위 20~40%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도 13만개를 늘려 총 74만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경영 안정자금 등 용자지원을 3천억원(2→2.3조) 늘리고, 특례신용보증도 5조원 (20.5 → 25.5조)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 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총 5.5조원(4.3→5.5조)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 위한 지원소요도 차질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고용시장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고용 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에산을 21.3% 확대(21.2 → 25.8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돌봄·안전 중심으로 9.6만개를 늘리기 위해 1.3조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이 삶의 질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인프라 시설에 AI·5G 등 新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편의와 관리 효율을 한 단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2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수돗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되, 내년에는 0.4조원을 투자하여 주요 거점도시부터 우선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의 경우 당초 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내년 예산을 올해 2배 수준인 4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1.1조원(7.9→9.0조) 늘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외교 예산도 최대한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으로 늘려 핵심무기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33% 인상(병장기준 41→54만원)하는 등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 시키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은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우리 국민·기업의 대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4대 강국 및 신남방·신북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10% 이상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경제가 비록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지만 나아가야 할 ‘목표’만은 분명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거센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 경제 체질을 보다 강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년 예산안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거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등 재정이 맡은 바 소임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에 하루 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금년 중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0

2부

2020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20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제 1 장

2020년도 나라살림 종합

- 01. 재정운용 여건
- 02. 세입 규모
- 03. 지출 규모
-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01 재정운용 여건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중국 등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고용 호조에 기반한 양호한 소비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감세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성장구조 전환 및 디레버리징 정책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분쟁 확산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19.10월 소비세 인상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19.12월 발표한 대규모 경제대책 등이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은 아세안5국·브라질 등의 적극적 거시정책 효과와 터키 등 위기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가 기대된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연간 %)

구분	세계	선진국	신진국			신중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미국	유로	일본				
2019년	2.9	1.7	2.3	1.2	1.0	3.7	6.1	1.2	1.1
2020년	3.3	1.6	2.0	1.3	0.7	4.4	6.0	2.2	1.9

자료 : IMF (2020. 1.)

우리 경제는 투자·수출을 중심으로 '19년보다 개선된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물량 증가세가 확대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단가도 회복되면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2020년 경제 전망

(단위 : 연간 %)

	2018년	2019년 ^o	2020년 ^o
경제성장률(%)	2.7	2.0	2.4
소비자물가(%)	1.5	0.4	1.0

자료 : 2020년 경제전망 (2019. 12.)

02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19년 예산 대비 1.2% 증가한 481.8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9년 예산보다 1.2% 증가한 481.8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19년 예산(321.4조원) 대비 $\Delta 0.5\%$ 감소한 319.9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Delta 0.9\%$ 감소한 29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95.9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4.0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9년 대비 4.7% 증가한 161.9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2020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 수입	476.1	476.4	481.8	1.2	1.1
■ 예산	321.4	321.7	319.9	$\Delta 0.5$	$\Delta 0.6$
(국 세)	(294.8)	(294.8)	(292.0)	($\Delta 0.9$)	($\Delta 0.9$)
• 일반회계	297.1	297.4	295.9	$\Delta 0.4$	$\Delta 0.5$
• 특별회계	24.3	24.3	24.0	$\Delta 1.0$	$\Delta 1.0$
■ 기금	154.7	154.7	161.9	4.7	4.7
(사회보장성기금) ¹⁾	90.9	90.9	95.8	5.4	5.4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참고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5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7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수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2-2 ▶ 예산 수입 : 2019년 예산 대비 $\Delta 0.5\%$ 감소한 319.9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회계 세입 : 2019년 예산 대비 $\Delta 0.4\%$ 감소한 295.9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0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9년 본예산(294.8조원) 대비 $\Delta 0.9\%$ 감소한 292.0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9년 본예산(10.0조원) 대비 11.7% 증가한 11.7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Delta 0.9\%$ 감소한 292.0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Delta 1.8\%$ 감소한 251.1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정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19년 예산 대비 11.7% 증가한 11.7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0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 계(I + II)	297.1	297.4	295.9	△0.4	△0.5
■ 국세(I)	287.2	287.2	284.1	△1.1	△1.1
• 내국세 ¹⁾	255.6	255.6	251.1	△1.8	△1.8
• 관세	9.1	9.1	8.8	△2.9	△2.9
• 교통·에너지·환경세	14.8	14.8	15.7	6.4	6.4
• 교육세	4.9	4.9	5.2	6.7	6.7
• 종합부동산세	2.8	2.8	3.3	16.5	16.5
■ 세외수입(II)	10.0	10.3	11.7	17.8	14.4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 특별회계 세입 : 2019년 예산 대비 △1.0% 감소한 24.0조원

2020년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 예산(24.3조원) 대비 △1.0% 감소한 24.0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용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된다. 2020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2019년 예산(7.6조원) 대비 3.5% 증가한 7.9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2019년 예산(16.6조원) 대비 △3.0% 감소한 16.1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0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 계(I + II)	24.3	24.3	24.0	△1.0	△1.0
■ 국세(I) ¹⁾	7.6	7.6	7.9	3.5	3.5
■ 자체세입(II) ²⁾	16.6	16.6	16.1	△3.0	△3.0

1) 주세·농어촌특별세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용자회수, 수수료 등

참고 2019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억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및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및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및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확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및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비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		
기본 방향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투자활력 제고 소비·수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지원 서민 지원 포용성 강화 공정경제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납세편의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

2-3 기금 수입 : 2019년 대비 4.7% 증가한 161.9조원

2020년 기금 수입은 2019년 대비 4.7% 증가한 161.9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5.2% 증가한 73.4조원, 용자원금 회수는 4.5% 증가한 25.3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4.1% 증가한 63.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용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019년 대비 5.3% 증가한 73.4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용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용자원금 회수규모는 2019년 대비 4.5% 증가한 25.3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19년 대비 4.1% 증가한 63.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2020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합 계(Ⅰ+Ⅱ+Ⅲ)	154.7	161.9	4.7
• 사회보장기여금(Ⅰ)	69.7	73.4	5.2
• 용자원금 회수(Ⅱ)	24.2	25.3	4.5
• 이자수입 등 기타(Ⅲ)	60.7	63.2	4.1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만기도래 용자원금회수 증가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자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019년 대비 3.3% 증가한 43.8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로 5.0% 증가한 112.4조원, 계정성 기금은 복권기금의 복권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9.6% 증가한 5.7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2020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합 계(58개)	154.7	161.9	4.7
• 사업성 기금(48개)	42.4	43.8	3.3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¹⁾	107.1	112.4	4.9
• 계정성 기금(4개) ²⁾	5.2	5.7	9.6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국회에서 확정된 총 67개 기금운용계획상의 기금수입(기금운용규모)은 724.8조원이나 통합재정 관점의 총수입은 161.9조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회계·기금 등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58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총수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03 지출 규모



3-1 총지출 규모 : 2019년 예산 대비 9.1% 증가한 512.3조원

2020년도 총지출은 512.3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9.1% 증가한 규모이다.

2020년 총지출은 2019년 예산 대비 9.1% 증가한 512.3조원이다. 우리경제의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예산지출은 351.1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7%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6.1% 증가한 296.0조원, 특별회계는 10.6% 증가한 55.1조원이다.

기금지출은 사회보험성기금 급여지출 등이 증가하여 2019년 계획 대비 14.6% 증가한 161.1조원 수준이다.

[표 3-1] 2020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 지 출	469.6	475.4	512.3	9.1	7.8
■ 예 산	328.9	332.6	351.1	6.7	5.6
• 일반회계	279.1	280.9	296.0	6.1	5.4
• 특별회계	49.8	51.7	55.1	10.6	6.6
■ 기 금	140.7	142.8	161.1	14.6	12.8

참고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3-2 예산지출 규모 : 2019년 예산 대비 6.7% 증가한 351.1조원

2020년 예산지출 규모는 2019년 예산 대비 6.7% 증가한 351.1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1% 증가한 296.0조원, 특별회계는 10.6% 증가한 55.1조원이다.

일반회계는 경제활력 제고·혁신 성장·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데 중점 투자하여 2019년 예산 대비 6.1% 증가한 296.0조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5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예산 대비 10.6% 증가한 55.1조원이다. 2020년도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간 및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19년 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6.8%이다.

[표 3-2] 2020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 예산지출	328.9	332.6	351.1	6.7	5.6
• 일반회계	279.1	280.9	296.0	6.1	5.4
• 특별회계	49.8	51.7	55.1	10.6	6.6
■ 예산순계	361.8	365.1	386.2	6.8	5.8

3-3 기금지출 규모 : 2019년 대비 14.6% 증가한 161.1조원

2020년 기금지출 규모는 2019년 대비 14.6% 증가한 161.1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16.9% 증가한 54.8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창업기업지원용자 확대 등으로 2019년 대비 15.5% 증가한 143.9조원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19년 보다 13.1% 증가한 76.7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19년 대비 5.9% 증가한 1.8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19년 대비 6.9% 증가한 15.4조원이다.

[표 3-3] 2020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률	
	당초(A)	수정(B)		C/A	C/B
합 계(58개) (사회보장지출 ¹⁾)	140.7 (46.9)	143.0 (47.8)	161.1 (54.8)	14.6 (16.8)	12.7 (14.6)
■ 사업비	124.6	126.9	143.9	15.5	13.4
• 사업성 기금(48개)	53.3	54.7	63.0	18.2	15.2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²⁾	67.8	68.7	76.7	13.1	11.6
• 계정성 기금(4개) ³⁾	3.5	3.5	4.2	20.0	20.0
■ 기금운영비	1.7	1.7	1.8	5.9	5.9
■ 차입금이자상환	14.4	14.4	15.4	6.9	6.9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30.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1.5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 수준(△30.5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5%(△71.5조원) 적자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하여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연평균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표 4-1] 재정수지

(단위 : 조원)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 감	
	본예산(A)	추경(B)		(C-A)	(C-B)
■ 통합재정수지(I)	6.5	1.0	△30.5	△37.0	△31.5
(GDP 대비, %, %p)	0.3	0.05	△1.5	△1.8	△1.6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II)	44.0	43.3	41.0	△3.0	△2.3
■ 관리재정수지(I-II)	△37.6	△42.3	△71.5	△33.9	△29.2
(GDP 대비, %, %p)	△1.9	△2.2	△3.5	△1.6	△1.3

참고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장래 연금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4-2 국가채무

2020년 국가채무는 805.2조원(GDP 대비 39.8%)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49.1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0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805.2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9.2% 수준인 476.6조원이며, 나머지 40.8% 수준인 328.6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구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황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 국가채무 (GDP대비, %)	680.5 (35.9)	740.8 (37.1)	805.2 (39.8)
① 적자성 채무	379.2	426.5	476.6
• 일반회계 적자보전	300.4	347.9	397.0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78.8	78.6	79.6
② 금융성 채무	301.3	314.3	328.6
• 외환시장 안정용	234.9	247.3	260.7
• 서민주거 안정용 등	66.4	67.0	67.9

* 2019년, 2020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020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이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3년까지 40%대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제 2 장

재정운용 방향



- 01. 자원배분 방향
- 02. 중점 추진과제
-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01 **재원배분 방향**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도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요인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1)혁신성장 가속화, (2)경제활력 제고 (3)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4)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5)튼튼한 국방·외교 라는 5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1-1 ▶ **혁신성장 가속화**

내년에는 혁신성장 4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여, 우리경제 전반으로 혁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0.8조원에서 2.1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이번 예산은 핵심 소재 등의 자립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성능·양산평가, 생산 확대·기술 도입에 필요한 투자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추가 지원소요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를 0.2조원 증액 반영하였다.

혁신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의 차기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위 'D.N.A. + BIG 3' 산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D.N.A.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플랫폼 분야인 데이터(Data), 5G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를 의미한다. 해당 분야에 1.7조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플랫폼 확산, 5G 콘텐츠 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 AI 생태계 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산업(BIG 3)에 3.1조원을 투자하여, 관련 기술개발·성장기반 확충, 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미래차 상용화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혁신성장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인재 4.8만명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모태펀드에 0.8조원을 출자하여 총 2.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창업·스케일업을 중점 지원하는 등 혁신적 유니콘 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1-2 ▶ 경제활력 제고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는 수출·투자의 부진을 타개하는 등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도 중점 투자한다.

고위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기금 출자·출연으로 무역금융을 3.4조원 확대하고, 마케팅 등 기업이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하였다. 민간의 설비·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정책자금 14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공급도 5.5조원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0.4조원을 투입하고, 스마트산단을 금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여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차원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첫째, 생활 SOC 사업을 금년 8조원에서 내년에는 10.5조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는 문화·체육·돌봄 시설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화 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다. 둘째, 금년 1월에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착공소요를 반영하였다. 셋째, 금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14개 지역에서 혁신적 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한편, 경기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체 일자리예산을 금년보다 20.1% 늘어난 25.5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내년에는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예산을 중점 지원한다.

1-3 ▶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데도 지속 역점을 두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로 7.9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20만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도 기존 2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하고, 최초로 국고에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0.7조원을 부담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득 하위 40%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13만개를 추가 확충한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와 일자리 지원도 대폭 확충하였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을 2.9만호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5만명에서 34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 용자지원을 3천억원 늘리고, 특례 신용보증도 5조원 확대한다. 아울러, 골목상권의 활기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온누리상품권 2.5조원 추가 발행을 위한 소요도 지원하며,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혁신을 돕는 사업도 병행한다.

1-4 ▶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생활편의 안전, 건강 등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되었다.

먼저,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상수도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 시설에 AI·5G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에 1.2조원을 투자한다. 적수문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오염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에 0.4조원을 신규 투입한다. 아울러, 도로·철도에 센서 및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 활용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이 이루어지는 첨단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당초 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올해 2배 수준인 4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로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기 위한 예산을 금년 추경에 이어 내년도에 대폭 반영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규모를 1.1조원 늘렸다. 이와 함께 조현병, 마약, A형 간염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사고예방·관리 투자도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정신건강 전문 요원 및 응급개입팀 확충을 통해 정신질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장비 보강,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도 신규로 실시하여 건강 위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한다.

1-5 ▶ 튼튼한 국방 외교

이 밖에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외교 예산도 확대하였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하였다. 이 예산으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와 첨단 개인장비·과학화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할 예정이며, 병 봉급을 33% 인상하는 등 장병의 기본적 복지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대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4대 강국 및 신남방·신북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10% 이상 증액하였다.

02 중점 추진과제



1. 혁신성장 가속화

- 1-1.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
- 1-2. D.N.A. + BIG3 집중 지원
- 1-3. 혁신선도 미래인재 4.8만명 양성
- 1-4. 대학교육 혁신 투자 확대
- 1-5. 제2벤처붐 확산

2. 경제활력 제고

- 2-1. 수출·투자·관광 활성화
- 2-2.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2-3. 지역경제 활력 제고
- 2-4. 일자리 지원

3.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 3-1.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3-2. 고용안전망 강화
- 3-3. 교육안전망 강화
- 3-4. 저출산·고령화 대응
- 3-5.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육성

4.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 4-1. 국민생활 편의증진 스마트 인프라 확충
- 4-2.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 4-3.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5. 튼튼한 국방·외교

- 5-1. 자주국방 역량강화
- 5-2. 평화경제 기반구축 및 공공외교·ODA 투자 확대

1. 혁신성장 가속화

1-1 ▶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

1)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

◎ 핵심품목 조기 공급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대

일본 수출규제('19.7.4.이후)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품목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된 1.2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핵심 100개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를 위해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66개 품목) 등 3개 대형 R&D사업을 예타 면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등 R&D 성과 제고 추진

핵심품목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R&D(4개 사업, 신규 1,186억원)을 통해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등) 지원 및 개방형(해외기관 참여)·경쟁형(단일과제/복수사업단) 등 혁신적 방식의 R&D를 추진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체기술(신규, 228억원)을 개발하고, 대학·출연연 보유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신규, 130억원)한다.

2)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등 제품 상용화 지원

◎ 신속한 성능평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R&D 성과물의 신속한 성능평가를 위해 공공나노랩(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장비 고도화(신규, 723억원), 소재부품지원센터(15개) 내 특화장비(신규, 790억원), 가상공학플랫폼(신규, 200억원) 구축을 지원한다.

◎ 조기 사업화를 위한 수요기업 생산라인 활용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대·중견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평가 및 성능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신규 400억원)을 확대한다.

3) 설비 확충,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용 펀드 조성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재정에서 예산을 출자(신규, 모태펀드 600억원, 혁신모험펀드 2,000억원)하여, 5천억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모태펀드 1천억원, 혁신모험펀드 4천억원)한다.

◎ 양산가능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 자금 지원

제품 양산을 위한 설비를 조속히 확충하도록 양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신용·기술보증 자금(신규, 800억원) 지원과 창업기업·신성장기반자금 등 융자(신규, 300억원)를 지원한다.

1-2 ▶ D.N.A. + BIG3 집중 지원

1) Data, Network, AI 경제 확산 가속화

◎ (Data·AI) 데이터 플랫폼 확산과 AI 기술과의 융합 지원

데이터의 생산·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 구축한 10개 플랫폼, 100개 센터를 운영하고, 플랫폼간 연계로 데이터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2019년) 743억원→(2020년)454억원))한다. AI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AI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축·제공하고, 고성능컴퓨팅 이용비, 사업화 바우처 지원 등을 확대

((2019년) 310억원 → (2020년) 762억원))한다. 또한 민간의 도전적 AI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2019년) 84억원 → (2020년) 132억원)하고, 포스트 딥러닝 등 AI기술 한계돌파형 R&D도 추진(신규 62억원)한다.

데이터·AI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AI 클러스터 조성(인공지능융합 집적 단지 : 신규 626억원, 제조데이터 인프라구축 : 신규 67억원)을 지원하고, 사회현안 해결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지능정보서비스 확산 : (2019년) 181억원→(2020년) 385억원)한다.

◎ (5G) 산업간 융·복합 촉진 신경망 확충 지원

5G 핵심·선도기술을 재난·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에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확대(노후시설물 대상 디지털트윈 구축 : 신규 100억원, 5G 재난관리 플랫폼 : 신규 39억원)한다. 5G 기반 동대문 VR 쇼핑몰 등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개발을 지원(VR·AR 콘텐츠 산업 육성 : (2019년) 505억원 → (2020년) 659억원, 문화 콘텐츠 선도 프로젝트 : 신규 120억원)한다.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5G 기반 서비스 창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 시험·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집중 지원(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 신규 131억원)한다.

2) 3대 핵심사업(BIG3) 발전 생태계 조성

◎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성장 생태계 조성

미래차 등 주력·신산업 분야 핵심요소인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을 양성하고자, 수요기업-팹리스 간 협력 R&D(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 신규 891억원)를 지원하고, 미래유망 핵심 설계자산(IP) 확보를 위한 전용 R&D를 신설(신규 90억원)한다. 또한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신설(판교, 신규 60억원)하고,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대학 반도체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 개소당 20억원, 신규 100억원)한다.

◎ (바이오 헬스)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1만명, 신규 150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분야 진료·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운영(5개소, 신규 93억원)하고,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2019년)85억원 → (2020년)117억원)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정밀의료기기 분야 선도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 : 신규 932억원)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치매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진단·치료기술개발을 지원(치매극복연구개발 : 신규 59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 신규 255억원)한다.

◎ (미래자동차) 성능향상·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차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충전속도 2배, 주행거리 600km이상)하기 위한 R&D에 집중 투자(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 신규 390억원)한다.

조기 상용화를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2019년)26억원 → (2020년)144억원)와 도심지 도로 실증(신규 40억원) 등 기반투자를 강화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소 구축 등에 1조원 이상 투자((2019년) 0.7조원 → (2020년)1.1조원)한다.

1-3 ▶ 혁신선도 미래인재 4.8만명 양성

1) 4차산업혁명 분야 고급·실무인력 확대

◎ AI·SW인재 양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AI분야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AI대학원을 확대 지정((2019년)3개교, 30억원 → (2020년)8개교, 130억원)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2019년)250명, 350억원 → (2020년)750명, 257억원)한다. AI 지역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재직인력 AI융합교육을 위한 '권역별 지능화센터'를 신설(신규 5개소, 50억원)하고,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확대(1→5개 권역, (2019년)67억원 → (2020년)159억원)한다. 3대 핵심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2019년)307억원 → (2020년)543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 4차산업혁명 맞춤형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전환

BK21사업 내 「혁신성장 선도인재 양성형」을 신설(6,400명, 신규 772억원)하고, 폴리텍 대학의 하이테크과정 지원을 확대((2019년)775명, 39억원 → (2020년)960명, 48억원)한다. 혁신성장분야 산학연계 대학원 지원을 통해 기업진출 박사를 양성하는 KIURI 사업을 신설(신규, 75명, 70억원)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확대((2019년)1,300명, 219억원 → (2020년)2,060명, 260억원)한다.

1-4 ▶ 대학교육 혁신 투자 확대

1)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교육 개선 투자 확대

◎ 미래를 선도할 대학혁신 지원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지역성장을 견인할 대학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신설(지역혁신형, 1,080억원)하고, 학부교육을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자율협약형·역량강화형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1,263억원, +22.2%) 단순히 규모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혁신사업에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총사업비의 30%)하여 대학 간 혁신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BK21+ 3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해를 맞아 대학원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형(6.4천명)을 중심으로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 (+873억원, 29.4%) 특히 그간 없었던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年 529억원)하여 대학원 교육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연구장학금(月): (석사) 60→70만원, (박사) 100→130만원, (박사수료) 100만원연구장학금 지원인원: 총 17,000명 → 19,000명

또한, 4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선도형 대학을 확대 지정하는 등 (20 → 40개교)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확대(5 → 15개)하고, 경진대회를 통한 학생창업팀 육성을 지원하는 등 혁신인재양성과 연계한 대학창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 교육·연구기반 강화 지원

각 국립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국립대학의 지역거점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대학의 노후 실험실습기자재를 교체하고 첨단기자재를 보강하는 등 지역 국립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682억원)한다.

◎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해 직업교육의 획기적 질 제고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대학 지원도 강화한다.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 및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1,000억원, +34.4%)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산학협력력 강화를 위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지원 사업도 확대(+55억원, +5.9%)하기로 하였다. 전문대학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1,000명)할 예정이다.

1-5 ▶ 제2벤처붐 확산

1) 「창업초기 → 성장 → 도약·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창업초기 지원

혁신형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기술혁신형 창업자 1,700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유산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성장 지원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성공패키지, TIPS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팀을 기존 1,000팀에서 1,085팀으로 확대하고, 예비유니콘을 발굴·육성사업을 신설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 도약·재창업 지원

창업 후 3~7년 기간인 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2019년) 840억원 → (2020년) 1,275억원) 실패 이후에도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하며((2020년)286팀), 재창업 교육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2019년) 1개소 → (2020년) 5개소)한다.

2)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확충

◎ 창업기업 자금지원 확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을 확대((2019년) 2.2조원 → (2020년) 2.55조원)하여 지원한다. 특히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2020년) 0.3조원) 및 고성장촉진자금((2020년) 0.3조원)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벤처 투자시장 활성화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 8천억원('19년 2,400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AI 등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보증 지원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산업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보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신규 출연을((2020년) 200억원) 통해 해당 분야 기업의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 출연을((2020년) 300억원)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저변 확대 등 혁신성장산업분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 KCON 등 글로벌 한류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한류콘텐츠(브랜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한류마케팅 지원사업((2019년) 60억원 → (2020년) 98억원)을 고도화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과 판매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하고,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운영((2020년) 80억원)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트랙을 신설((2020년) 300억원)한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중소기업에서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서 채용 시에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 효과 및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2020년) 242억원, 990명 고용지원)

2. 경제활력 제고

2-1 수출 · 투자 · 관광 활성화

1) 무역금융 보강 · 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무역금융 대폭 보강

2020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 국가개발 프로젝트 수주 및 방위산업 수출, 수출 중소기업의 신남방 등 신흥시장 진출 및 수출 계약서 기반 특별 보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수입 다변화 지원 등 무역금융 공급을 3.4조원 확대한다. ((2019년)350억원 → (2020년)4,560억원)

◎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2019년)3,200개사, 1,245억원 → (2020년)3,500개사, 1,407억원), 해외전시회·사절단 지원도 확대하여 현지마케팅을 통한 수출실적 창출을 유도한다. ((2019년)5,800개사, 356억원 → (2020년)6,500개사, 407억원)

◎ 통상대응 강화

일본 수출규제, WTO 분쟁 등과 같은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통상정보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2020년)15억원), WTO 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 등을 대폭 확대한다. ((2019년)49억원 → (2020년)163억원) 또한,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 애로 해결을 위한 비관세장벽지원실((2020년)4억원)을 신규로 설치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지원한다.

2) 정책자금 공급 확대로 민간 설비·시설 투자 촉진

◎ 정책금융기관 출자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확대한다. ((2019년) 7,000억원 → (2020년) 7,545억원) 이를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 공급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 설비·시설 투자를 촉진한다. ((2019년) 6.0조원 → (2020년) 14.0조원)

◎ 보증기관 출연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보에 대한 출연을 확대한다. ((2019년) 1,540억원 → (2020년) 4,400억원) 이를 통해 만기연장 3.0조원 등 5.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정책자금 용자

창업기업, 신성장기반 중소기업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용자를 확대한다. ((2019년) 36,700억원 → (2020년) 45,900억원)

[표 2-1] 정책자금 용자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기관 출자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자산관리공사 	<p>7,000</p> <p>5,000</p> <p>2,000</p> <p>—</p>	<p>7,545</p> <p>4,505</p> <p>2,640</p> <p>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 14.0조원 공급 • 3.9 → 8.6조원 공급 • 2.1조원 → 5.4조원 공급 • 1.5조원 공급 효과
■ 신용보증기금출연	910	2,700	• 만기연장 1.75조원 등 3.4조원 공급
■ 기술보증기금출연	630	1,700	• 만기연장 1.25조원 등 2.1조원 공급
■ 중진기금 용자	36,700	45,900	• 창업기업 +0.5조원, 신성장기반 +0.4조원

3) 5G · 한류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국내관광 활성화

◎ 5G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

5G에 기반한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에 선도적으로 투자(189억원→453억원)하여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에 체험존을 조성(30개소, 200억원)하여 일반국민의 실감형콘텐츠 향유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자금 소액대출 등 용자를 확대하고(85억원→190억원, 1,170명→2,370명),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166억원→362억원, 5,500명→12,000명)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 한류를 활용한 관광 붐 조성 및 관광 인프라 강화

K-POP 등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관광 붐을 조성하고 외래관광객 2천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체조경기장 시설 개선(171억원), K-컬처 페스티벌(61억원) 등을 통해 한류 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관광도시(광역 1개소), 지역관광거점도시(기초 4개소)를 육성하여 지역관광의 활력을 도모한다. 또한 관광빅데이터 도입(50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45억원) 등으로 스마트관광 기반을 조성하며, 관광기업 생애주기별 성장지원(99억원), 관광기업 육성펀드(130억원→300억원) 등 금융지원 확대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 '생활체험형' 문화재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생활 체험형' 문화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무형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체험기회를 제공하고(한양도성 타임머신 90억원), 궁궐·향교·종갓집 등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며(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 128억원→165억원) 서원 등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활용을 지원한다(문화유산 방문캠페인 49억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스포츠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 클럽을 확대하고(98개소→171개소, 155억원→224억원), 스포츠클럽 디비전 리그를 신설(1종목→4종목, 38억원→108억원)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스포츠산업

용자지원을 확대하고(312억원→662억원), 성장 단계별 통합 지원을 위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신설(52억원)하는 등 스포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2-2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공장 보급, 스마트산단 조성 지원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0.4조원을 지원하고,((2019년)3,428억원, 4,000개 → (2020년)4,430억원, 5,500개, 누적 18,000개 보급)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스마트산단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의 혁신을 유도한다.((2019년)3,401억원, 2개소 → (2020년)4,310억원, 4개소)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신기술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Cash Grant)을 확대하고((2019년)500억원 → (2020년)550억원), 국내기업의 지방이전·신증설 등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2019년)2,353억원 → (2020년)3,082억원)

◎ 자동차·조선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 장비구축을 지원하고((2020년) 100억원), 자동차 부품업체의 사업재편,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2020년) 55억원) 조선업 생산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신규로 지원하고((2020년) 88억원), 국내 LNG 선박의 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LNG 병커링 전용선박 건조를 지원한다.((2020년) 30억원)

◎ 제조 소기업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제조 소기업의 컨설팅·판로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혁신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고 ((2020년)2,000개사, 595억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대상 공동생산·편의시설 구축 등 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2019년)108억원 → (2020년)123억원)

2-3 ▶ 지역경제 활력 제고

2020년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생활SOC 10.5조원 투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 지역 혁신거점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1) 생활SOC 2020년 10.5조원 투자

생활 SOC란 보육·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지역간 생활SOC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누린다는 비전하에 정부는 2019년 4월 생활SOC 2020년-2022년 3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national minimum)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국비기준 30조원을 전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의 첫해인 2020년은 2019년 8.0조원에서 30% 이상 확대한 10.5조원 수준으로 투자한다.

2020년 생활SOC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안전보강 및 깨끗한 환경 조성(2019년 3.6조원→5.0조원), 주민 밀착형 여가·문화시설 대폭 확충(0.9→1.1조원), 구도심 재생 및 농어촌 정주기반 개선(2.6→3.5조원), 공공보육·의료 및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확충(0.9→0.9조원) 등이다.

[표 2-2] 2020년 생활SOC 투자내용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주요사업 내용
생활 SOC	80,205	104,676	+2.5조원, 31%
■ 도로 및 철도 안전	22,579	28,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시설 개보투 투자를 최대한 확대 * 도로(1.6→1.7조원), 철도(0.7→1.1조원)
■ 노후 SOC 개보수	8,407	13,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노후 상수도, 하수관로 정비 확대 등 * 노후상수도(0.2→0.5조원), 노후하수관로(0.2→0.3조원)
■ 깨끗한 생활환경	5,076	7,5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차단숲(60→93ha), 도시 바람길 숲(11개→17개) 조성 확대, 휴양림 확대 등 * 미세먼지저감숲(355→1,045억원)
■ 취약지역 기반강화	26,134	34,7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뉴딜300) 어촌·어항의 노후화된 선착장 현대화,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 개발(70→190개소) • (도시재생) 민간 상업·주거 복합시설, 소규모 주택 정비 등을 위한 용·출자,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221→329개소) 등 • (주차난 해소)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주차장 확대(+280여개소) * 어촌뉴딜(0.2→0.4조원), 도시재생(1.2→1.7조원), 주거지 주차장(0.1→0.3조원)
■ 문화·체육시설	9,171	11,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180여개소), 국민체육센터(+170여개소) 등 확충으로 국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시설 지역격차 완화 * 국민체육센터(1,947→2,439억원), 공공도서관, 문화센터(1,240→2,695억원)
■ 돌봄 인프라	8,839	8,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550개소) 등 공공보육 인프라,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투자(시설별 70→150인) 등 양질의 요양시설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688→748억원)

2020년 예산은 이러한 생활SOC에 대한 양적인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부지·건설비 등 재정을 절약하고, 국민이 한곳에서 원스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모아서 건축하는 이른바 ‘복합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총 10종의 생활SOC 시설 중, 전국 지자체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로 복합건물을 구성하였으며, 2020년은 17개 시·도에 280여개의 건물을 투자할 계획이다. 복합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0년에 약 3,400억원, 2022년까지 약 8,500억원 규모이다.

[그림]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도



2)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

'19.1월 발표한 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①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②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③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④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23개 사업에 0.4조를 투자한다.(총사업비 25.4조)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고, 일부 사업은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을 활용하여 착공을 추진한다.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R&D 연구도 본격 추진한다.

3) 지역 혁신거점 구축

◎ 지역주도,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성장 지원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에 2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해소와 지역 성장이 연계된 획기적인 제도로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도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정책으로 규제특구 사업자에 대해 규제특례가 적용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R&D를 지원하고((2020년)642억원), 책임보험가입 및 특허·인증확보, 판로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2020년)196억원)하며, 실증연구에 공통으로 필요한 연구장비 등 구축((2020년)142억원)과 실증데이터의 축적·활용을 위한 실증기반구축((2020년)75억원) 및 규제자유특구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운영비용((2020년)48억원)을 지원한다.

4)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 직불제 개편

기존 농업 직불제는 쌀에 편중된 운영으로 쌀 증산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쌀 과잉공급을 심화시켰고, 대농에 직불금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2019년보다 1조원 늘린 2.4조원으로 편성하여 중소농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절기능, 사전 관측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5종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적용 범위를 전체 생산량 대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한 실측조사 체계 및 스마트농업 정보플랫폼 구축 등으로 농업 관측을 고도화한다.

우리 농산물의 수요기반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산부 4.5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기초영양섭취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투자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도 2019년 2,985억원에서 2020년 3,80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광역방제기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5)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활력 제고

◎ 스마트농어업 혁신거점 조성

원예, 축산, 양식 등 스마트농어업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를 8개소로 확대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3개소로 확대 조성하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도 2개소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 청년농의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에 대한 지원 예산을 0.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 지원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2019년 3,600명 → 2020년 4,800명)한다. 이들에게는 농지임대, 자금,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학 중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영농 및 농촌소재 농식품분야 취·창업의무를 부과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도 확대(2019년 500명 → 2020년 800명)한다. 특히, 농대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비농대생에게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촌 활력 제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대폭 늘린다.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시설 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어촌·어항의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개발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0은 신규로 120개소를 추가 지원(2020년 총 190개소)할 계획이다. 지역의 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고도화를 지원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도 확대(2019년 30개소 → 2020년 60개소)한다.

2-4 ▶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예산은 '19년 대비 20.1% 늘어난 25.5조원

◎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 확대

2020년 일자리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급속한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에 따라 2019년 대비 20.1% 증가한 25.5조원으로 확대하였다.

◎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및 관리

국민들이 늘어난 일자리사업 예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전체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이에 근거한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라, 성과가 낮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등 개편하였다.

◎ 철저한 조기집행 및 성과관리 강화

2020년 일자리사업들은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을 '20년 상반기까지 '19년 목표치보다 1%p 상향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66%까지 집행하고자 하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채용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수립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각 부처·고용부 간 사전협의를 활성화한다. 또한, '20년에는 직접일자리사업 '일몰제' 도입 본격화, 핵심지표 최소성과기준 도입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동 결과를 예산에 환류하여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2)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개 확대

◎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출산·고령화 및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전년대비 9.5만개 확대하였다.

주요 확대내역은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1만 2천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만 8천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1만 7천개, 장애인활동보조인 8.8천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천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2.3천개, 미세먼지배출감시단 1천개 등이다.

3)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위기 우려지역 대상 일자리사업 지원 강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한 유형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신설된다.(20년 예산, 390억원)

◎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직업훈련 강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기업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을 확대('19년 1,300명→'20년 2,060명)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도제학교 시범 운영('20년 29억원, 5개교) 및 도제학교 졸업생 대상 고숙련 기술훈련(P-Tech, 120→160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 대상 훈련(1.8천명) 및 산업계가 주도하는 청년 맞춤형 훈련(3,000명)을 신설한다.

4)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 중소·중견기업 청년 추가채용 지원

청년의 어려운 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연간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신규 9만명에게 확대 '(2019년)20만명 → (2020년)29만명' 지원한다.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 '(2019년)25만명, 9,971억원 → (2020년)34.2만명, 12,820억원' 추진한다.

◎ 취약계층 전직지원 강화 및 신중년 특화 교육훈련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2019년 7,822억→2020년 8,778억원)하고,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폴리텍 내 신중년 특화 훈련 학과(2019년 14개→2020년 18개)를 확대한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별 최대 2년간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을 지원한다.

◎ 신중년의 경력활용 및 사회공헌 기회 확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활동 또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였을 때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19년 대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신중년 사회공헌- 2019년 169억원 → 2020년 179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019년 90억원 → 2020년 307억원)

◎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지원 확대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월 180 → 200만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위한 재직자 근속요건을 완화(1년→6개월)하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2.28.시행). 중소기업 사업주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인상한다(월 60 → 80만원). 그리고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 직접일자리를 확충하고(2019년 2.0만개 → 2020년 2.2만개), 중증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확대한다(2019년 3,000명 → 2020년 5,000명). 고용률이 낮은 여성·중증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를 인상한다(2019년 30~60만원 → 2020년 30~80만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대폭 확대(2019년 13개소 → 2020년 19개소)하여 발달장애인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을 강화한다.

3.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3-1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1)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7.9만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30%를 신규로 공제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수급요건도 완화한다.

◎ 장애인연금 및 해산·장제급여 인상

장애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소득 수급자의 해산급여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2)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경감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인상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9만원에서 33.9만원으로 62% 인상한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최고 14.3%, 자가수선 급여는 21% 인상한다.

◎ 에너지·의료비 등 경감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난방바우처를 10.2만원에서 10.7만원으로 인상하고, 냉방바우처는 6,7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월 8만원 지급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지원 한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 노인 및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결핵검진을 11.8만명에서 27.6만명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4.1만명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신규 지원한다.

3)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에 발맞추어 장애인 활동지원 월평균 급여시간을 11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8.1만명에서 9.1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대책(18.9월)에 따라 시작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각각 2,500명에서 4,000명, 4,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인 발달장애인은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 급여시간을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 요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집중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지자체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청소년안전망팀을 9개소 구축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센터를 2개소 신설하는 한편, 요보호아동 사례관리사 281명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한편, '19년 신규 도입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을 본격화하여 전년보다 2,900명 늘어난 7,800명에 대해 자립수당(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위기·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위기·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청소년안전망팀(9개소), 고위기청소년 프로그램(17개소)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선도지역 위기청소년을 집중 지원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을 집중 지원한다.

4)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확대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4개소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을 11개소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등 신규 국공립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직영하는 모든 시설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1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통합사례관리사 50명을 채용하여 국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복잡다기한 사회서비스 연계·통합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한다.

3-2 ▶ 고용안전망 강화

1)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그간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20. 하반기~, 20만명).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받으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는 실업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평균임금 50% → 60%)하고, 지급기간을 확대(90~240일 → 120~270일)하였다. 또한,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지원을 확대(2019년 121만명 → 2020년 137만명)한다.

3) 공공 고용서비스 개선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형고용센터(24개소, 상주인원 5인 규모),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24개소), 민원인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키오스크(30개소)·온라인 실업인정공간(88개소)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3-3 ▶ 교육안전망 강화

1)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차별 없는 출발선 보장

◎ 고등학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19.2학기 고3 → '20년 고2·3)

고등학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19.2학기 고3 → '20 고2·3 → '21 고교전체)을 위해 국고 0.7조원을 신규 지원(총 88만명, 학생당 年 158만원)하기로 하였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17~'19년 → '17~'22년)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만에 2만원 인상(月 22 → 24만원, +2,470억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月 33 → 36만원, +155억원)하여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지원 확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본격 지원을 위해 968억원을 출연한다.('20년 2,350명(신규 1,000명)). 또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중에서는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근로장학금을 확대(+3천명, '20년 3,282억원)하고 전문대 장학금 신설(1,000명) 등 우수장학금을 확대한다('19년 197 → 368억원)

3-4 ▶ 저출산·고령화 대응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 및 아동 돌봄 인프라 확충

'20년 3월 도입되는 어린이집 연장반의 안정적 정착 뒷받침을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연장반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지원한다. 또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료를 전년 대비 3.3% 인상하고 보조·연장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도 30% 지원한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를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4천명 및 사례관리사 222명을 증원하여 아동 돌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육아친화적 일터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영구·국민임대 및 신혼희망타운을 확대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인상(180/175만원→200/180만원)하여 육아친화적 일터를 지원한다.

2) 노인소득기반 확충 및 고령화 대응 인프라 구축

◎ 노인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들의 일하는 복지를 위해 노인일 자리를 61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하고, 연중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소득하위 20%까지 30만원으로 인상지급중인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하여 인상지급하고, 물가상승률 및 급여 인상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당겨 지급한다.

◎ 고령화 대응 인프라 구축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에게 제공하던 안부확인, 가사 도움 등 6개 서비스를 통합하여 17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형돌봄으로 사업이 개편된다.

또한,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던 것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제로 개편하고, 수혜자는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된다.

3-5 ▶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육성

1)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자금지원 확대

◎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을 확대하고,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QR코드, 리더기도 보급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고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구축 지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2019년)54개소 → (2020년)54개소)

◎ 소상공인 자금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용자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 ((2019년) 19,500억원 → (2020년) 23,000억원)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규모도 전년 계획 대비 5조원 확대하여 지원한다. ((2019년) 20.5조원 → (2020년) 25.5조원)

2) 경영역량 제고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 경영역량 제고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도 지속 지원된다. 창업 전 예비 창업자 8,0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0년) 40억원) 또한 기술교육지원도

12,372명 규모로 지원된다.((2019년) 15,000명 → (2020년) 12,372명) 이와함께 멘토링 지원 인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지원될 계획이다.((2019년) 5,000명 → (2020년) 5,000명)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TV홈쇼핑·T-커머스((2019년) 150개사 → (2020년) 300개사), 온라인 기획전 지원((2019년) 25회 → (2020년) 100회), V-커머스 방송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2019년) 200개 → (2020년) 1,000개)을 강화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2019년) 50개사 → (2020년) 400개사) 및 홍보·판매도 지원한다.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2019년) 200명 → (2020년) 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도 구축한다.

◎ 사회적 안전망 확충

폐업 이후에도 원활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안전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2019년) 20,000 → (2020년) 25,000명) 점포 철거 및 복구비용 지원은 19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2020년) 지원인원 2,000명, 지원금액 200만원)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재창업 교육 인원을 전년보다 20% 확대해 지원하고((2019년) 5,000명 → (2020년) 6,000명), 2019년에 신설한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및 재기 법률자문을 추가로 지원한다.((2020년) 3,000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도 신청서를 비치하고,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에도 보험료 지원을 안내한다. 또한 정산기간을 분기에서 매달로 단축하여, 지원의 체감도를 높였다.

4.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4-1 국민생활 편의증진 스마트 인프라 확충

1)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으로 적수문제 근본적 해결

◎ 전국 지방상수도 ICT 기반 수질·수량 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및 사고발생시 신속 파악·대처 등으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1.4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 서울 등 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2022년까지 전국에 순차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2) 도로·철도 등 첨단 교통체계구축

기존 도로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도 ITS를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일반국도 약 530km의 구간에 ITS를 구축해 교통 소통을 개선하고, 사고다발 구간 등에 대해서는 돌발상황을 빠르게 감지하는 스마트 CCTV를 도입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여 최종 선정된 31개 지자체에 대해서 국고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며, 일반국도 구간에 주로 설치하던 감응신호 시스템을 지자체 관내 구간까지 확대하여 교통축·권역 단위의 소통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철도역사에 미래 교통환경 변화 및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실시간 연계교통정보, 역사이용 및 편의제공정보, 비상대응시스템 등 ICT기반 스마트기술을 시범 도입한다. 전국 철도에 국가주파수정책 및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철도산업고도화 등을 위해 고속·일반철도 350km에 대해 전국철도통합무선망(LTE-R)

체계를 구축한다. 철도건널목 중 사고다발 및 日교통량 1만건 이상의 건널목 5개소를 선정하여 지능형경보시스템 및 레이저 지장물검지장치 등 스마트건널목 체계를 구축한다.

3)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 등 미래 도시환경 구현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을 위해 119·112·재난·복지 등 종합데이터 통합연계·관리 플랫폼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2019년)15개 지자체 → (2020년)30개 지자체), 전문인력양성 및 인증제도 운영 등을 지원한다((2019년)20억원 → (2020년)22억원).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 신기술을 접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19년)265억원 → (2020년)712억원). 또한, 시민·지자체 수요와 기업 아이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발굴하고 기존도시로 보급·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확대한다((2019년)93억원 → (2020년)269억원).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2019년)10억원 → (2020년)35억원) 대폭 확대, 스마트시티 생태계 분석·전략 수립 등 국내산업육성 지원사업 신규 추진((2020년)5억원)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AI 기반 스마트하우징 기술개발(신규, 29억원),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신규, 25억원) 등 R&D 지원도 확대한다.

4-2 ▶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1)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국고지원

◎ 노후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 안전투자 확대 0.1조원

개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도가 높은 도시철도에 대하여 안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신호·통신 분야에서 전기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후 철도 역사에 대한 개량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노후도(30년 이상), 안전등급 등 지원 기준(D등급 이하)을 마련하여 철도이용 국민의 안전과 편리(혼잡도 해소)를 제공한다.

◎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郡에서 市 지역 확대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조기 완료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정도 규모로 확대한다.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2017년에 시작하여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착수하려던 市 지역을 2020년에 일괄 착수함으로써 2024년까지 완료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4년 단축할 예정이다.

[표 4-1]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郡에서 市 지역 확대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 ((b-a)/a)	비 고
노후상수도 정비	2,359	4,680	98.3	郡→市 지역 전면 확대

2) 대형·복합재난 대비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2배 인상

이상 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잦은태풍 등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복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붕괴 등 재해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자연재난으로 상가, 공장, 재고자산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행 지역을 '19년 37개 시군구에서 '20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년부터 보험료 국고 지원을 2배 인상(25%→50%)한다.

[표 4-2]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확대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 ((b-a)/a)	비 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3,959	4,365	10.3	462개소 → 543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9	64	611.1	풍수해 보험료 국비지원 확대

◎ 소방헬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보강

중앙119특수구조대에 중형 소방헬기 및 최근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헬기 도입을 즉시 추진하여 전국 4개 권역별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또한 고양 저유소 화재('18.10월)와 같은 초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 지역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표 4-3] 소방헬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보강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 ((b-a)/a)	비 고
중앙119 특수구조대지원 (수도권대, 영남대)	15	161	978.9	독도 사고헬기 대체보강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30	127	325.97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사업비 83억원, 제독차 보강 25억원

◎ 연안 초동 잠수요원 양성, 연안 VTS 및 해경 대형헬기 보강

해상 차량추락 사고 및 선박전복 등 해양사고시 초동조치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 잠수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전국 70개 해경 파출소 및 중·소형 함정 172척에 764명의 연안초동 잠수요원을 양성·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서귀포 연안 VTS를 신규 설치하고 제주권에 기상조건이 나쁘거나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고 20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대형헬기 1대 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4-4] 초동 잠수요원 양성, 연안 VTS, 대형헬기 보강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 ((b-a)/a)	비 고
수색구조역량강화	51	86	68.6	파출소 70개, 중소형 함정 172척에 대해 초동잠수요원 764명 양성·배치
VTS 구축운영	211	303	43.6	제주·서귀포 연안 VTS 신규 설치
항공기 도입	218	315	44.5	제주권 대형헬기 1대 신규 배치

제2부

2장 재정운용 현황

3)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투자 확대

◎ 교통안전 강화시설 대폭 확충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19.12월 제정)에 맞춰 '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우선 '20년에는 1,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무인 교통단속장비 1,500대, 사고 위험이 높은 4거리 위주로 신호등 2,200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대상사업 지역도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된 530개소를 정비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전년대비 200% 증가한 12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표 4-5] 교통안전 강화 시설 확충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 ((b-a)/a)	비 고
지역교통환경개선	569	1,768	210.7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	(956)	(순증)	무인 교통단속장비 1,500대(273억원) 신호등 2,200대(683억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14)	(319)	(48.9)	351 → 530개소
(노인보호구역개선)	(20)	(60)	(200.0)	40 → 120개소

◎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확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2019년 공사규모 20억원 미만 → 2020년 50억원 미만), 지원 물량을 대폭 확충한다.(2019년 4,000개소 → 2020년 6,900개소)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019년 769억원 → 2020년 1,002억원 (+233억원, 30.4%)

◎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례관리자’ 대폭 확대

기초정신건강센터의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인력을 충원(+207명)하여 지역의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등의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전국 응급실내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자를 대폭 확충(+164명)하여 자살률을 낮추고 국민들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기초정신건강센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인력: ('19)414명 → ('20)612명(+207명).

응급실내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자: ('19)134명 → ('20)298명(+164명)

4-3 ▶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2020년에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각 부문에서 감축효과가 검증된 영세사업장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핵심배출원 저감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DPF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 핵심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가속화

◎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감시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19년 182개소 → '20년 4,000개소)하고, 원격감시장치(IoT 센서 등) 설치를 추진한다.('20년 2,200억원)

◎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19년 15만대 → '20년 30만대)하고, 건설기계·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 저녹스 보일러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금액 상향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19년 3만대 → '20년 35만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상향(5만대, 20만원 → 50만원)한다.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 확대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확대

노후 경유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전환 지원을 확대 ('19년 2,272대 → '20년 6,000대) 추진한다.



〈1톤 LPG트럭〉

◎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일평균 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한다. 또한 노후 환기설비 교체, 스마트 지하역사 환기설비 설치 등에 615억원을 지원한다.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



〈공기질 측정기〉



〈제어 및 운영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장치〉

◎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 고도화

지난해 한·중 환경장관은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MOU(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를 체결('19.11.4)하였다. 청천계획은 3개 부문(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6개 사업(대기오염 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중 양국은 이를 근간으로 예보정보 공유, 기술·정책교류 및 공동연구 고도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발사('20.2)하여 한반도 주변 대기오염물질의 감시·예측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 건강문제가 야기되기 쉬운 저소득층 246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1인당 18매를 보급한데 이어 2020년에는 50매 수준의 마스크를 보급한다.

3) 국민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공공의료 투자 확대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차질없는 이행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조음파) ('19) 허복부, 비노기, 생식기 → ('20) 흉부, 심장 (MR) ('19) 경부, 복부, 흉부 → ('20) 척추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19년 78,732 → '20년 89,627억원(+10,895억원, +13.8%)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장기요양보험 지원: ('19) 8,912 → ('20) 12,414억원
 ** 국고지원비율: ('19) 보험료 예상수입의 18.4% → ('20) 19.0%

◎ 조현병·마약 등 5대 건강위험요인 사고예방·관리투자 확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5대 위험요인(조현병·마약·자살·결핵·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대폭 확충(+580명)하고, 정신질환사고에 신속 대응토록 응급개입팀을 신설(34개팀)할 예정이다. 수입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한 검사 등 장비를 보강하고 마약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생활하수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독감·결핵·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독감 백신을 3가에서 4가로 전환 후 그 대상을 기존의 영유아·초등생·어르신·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40대 A형 간염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요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 강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분류하고,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을 보다 빈틈없이 살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국내에서도 뇌전증(간질)에 대한 정밀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뇌자도·뇌파로봇 등 전문장비를 구비한 뇌전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중증 소아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건립을 추진한다.

4) 육·해상 폐기물 및 위험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

◎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및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확대

주민 안전 확보, 화재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등 사업장 내 무단 방치된 폐기물과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는 행정대집행(270억)을 추진한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에 예산을 총 1,267억원으로 확대 투입한다. 아울러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 대체 보급 지원('19년 583척 → '20년 860척) 및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19년 50만개 → '20년 100만개)을 확대한다. 도서지역 해양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권역별 정화 운반선(7척) 건조지원을 추진한다.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등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확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이행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흡입독성 시험장비〉

'21년에 등록유예가 종료되는 기존 화학물질(年 1천톤이상, 年 1톤이상 CMR 물질)의 기존 유해성정보 조사를 확대('19년 10억→'20년 25억)하고,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정부가 직접 유해성 자료를 확대 생산('19년 47억→'20년 250억)하여 등록시 활용하도록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질없이 등록이 완료되도록 등록서류(노출시나리오 등) 작성 등 전과정 지원('19년 33억 →'20년 171억원)도 확대한다

5. 튼튼한 국방 · 외교

5-1 ▶ 자주국방 역량강화

1 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

◎ 국방비 및 무기체계 투자 확대

2020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0.2조원으로 2019년 46.7조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이다.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국방개혁의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비 규모를 최초 50조원 이상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6.7조원으로 2019년 15.4조원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핵 · WMD 대응전력 등 첨단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 육성

◎ 핵 · WMD 대응

적의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표적타격', 적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 주요 지휘부 섬멸 등 적의 공격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대응' 전력 등 핵 · WMD 대응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적극 지원한다.(2019년 5.1조원 → 2020년 6.2조원)

◎ 국방 R&D 투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군정찰위성 개발 등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과 국방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한 방산기술 국산화 및 우리 군의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 예산을 적극 투자한다. (2019년 3.2조원 → 2020년 3.9조원)

◎ 스마트 정예군 육성

개인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조준경·확대경 등 첨단 개인전투장비(위리어 플랫폼) 보급 인원 확대,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확대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며 효율적 군수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리 부속·급식·물자 수요예측 등 스마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9년 1,353억원 → 2020년 2,381억원)

3) 장병 기본 복지 향상

◎ 장병의 봉급·급식·피복 등 기본 복지 대폭 개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며(2020년 병장기준, 월 40.6만원 → 월 54.1만원), 급식비 단가 6% 인상(일 8,012 → 8,493원), 초급 간부 등 주거지원(862억원 → 1,242억원) 등 튼튼한 안보태세의 기초가 되는 장병 기본 복지를 확대하고 장병 자기계발 비용 지원(연 5만원 → 10만원) 등 전역 후 사회적응 지원 및 미래 준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한다

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2020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5.0% 인상

2020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을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0% 공통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몰·순직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2.0%p(2020년 7.0%), 7급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을 1.5%p(2020년 6.5%) 추가 인상한다. 또한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6·25제적자녀에 대한 위로가산금을 3만원(2020년 8만원) 인상한다.

◎ 6·25 70주년, 4·19 60주년을 맞아 참전수당 등 2만원 인상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36~38만원에서 38~40만원으로 각 2만원 인상한다. 또한,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4·19혁명공로수당을 31만원에서 3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 의료시설·국립묘지 정비, 현충시설 건축, 감사행사 지원 확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의료시설 환경 개선사업(2020년 249억원)과 6·25전쟁 70주년 등 특별주기를 맞아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립묘지 노후 안장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 일제정비(2020년 81억원), 美 추모의 벽 등 현충시설 건립(2020년 228억원)을 추진하고, 6·25참전유공자 위문 등 감사행사(2020년 145억원)를 확대한다.

5-2 ▶ 평화경제 기반구축 및 공공외교·ODA 투자 확대

1)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

◎ 남북 경제교류협력 지원 및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경제 협력 지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4,289 → 4,890억원)을 추진하고, 시범조림 확대(4,000 → 5,000ha) 등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원을 지원(1,137 → 1,275억원)하는 등 남북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DMZ 등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 방안 구체화

한강하구 수자원 및 생태환경 조사(신규 94억원),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10 →

12억원), 편문점 견학 확대(신규 17억원) 등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126→261억원)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역사·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DMZ 등 접경지역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

‘평화경제’ 구현 등 한반도 미래비전을 구체화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및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지원(10→16억원)한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호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국제협력(16→21억원)도 강화한다.

◎ 민족 동질성 회복 지속 지원

인도적 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지속

최근 식량난이 심각한 북한에 대한 쌀지원을 확대(10→20만톤)하고, 이산가족 상봉 및 유전자 검사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20년 하계올림픽 공동진출(신규 17억원), 문화재 공동발굴 조사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확대(20→224억원) 등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 공공외교·ODA 투자 확대 및 재외국민 안전 강화

◎ ODA 투자확대로 개도국 동반 경제협력 기반 조성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의 전략적 역할 강화

ODA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0.9% 증가율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남방(아세안 국가·인도) 및 신북방(몽골·중앙아시아) 지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원국 중심으로 ODA를 집중 확대하여 경제협력 및 무역다변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국내 ODA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주체들 간의 협력 강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ODA 사업의 경쟁적·중복적 이행을 지양하고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프로젝트에 多부처가 협업하는 융합예산의 발굴을 확대(50개 프로그램, 1,875억원 → 70개 프로그램, 2,733억원)하는 등 ODA 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 및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확충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 확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등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 국가들과 전방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하고, 역내 고속성장 지역인 메콩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 지원을 확대(22→35억원)한다. 일본 내 우호적인 여론 조성 및 일본 국민의 친한(親韓) 인식 제고를 위해 일본 주재 공관에서의 아웃리치 및 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12→45억원)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154→236억원)을 확대하여 K-Pop, 태권도 등 한류를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공공외교와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산하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지식공공외교, 외국의 여론주도층 대상 정책세미나 개최 등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전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민원접수채널 다양화 등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데이터 통신(카카오톡 문자상담 및 상담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시범 실시,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예산 확대(119→191억원)을 통해 해외에 방문·체류·거주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영사 민원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재외공관 영사서비스(민원) 담당 영사를 13명 증원하고, 재외공관 사증심사 보조 행정직원을 16명 증원(112명→128명)함으로써 신속한 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인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 감	
			(B-A)	%
■ 총 지 출	469.6	512.3	42.7	9.1
1. 보건·복지·노동	161	180.5	19.5	12.1
※ 일자리	21.2	25.5	4.3	20.1
2. 교 육	70.6	72.6	2.0	2.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	55.4	0.1	0.2
3. 문화·체육·관광	7.2	8	0.8	10.6
4. 환 경	7.4	9	1.6	21.8
5. R&D	20.5	24.2	3.7	18.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7	5.0	26.4
7. SOC	19.8	23.2	3.5	17.6
8. 농림·수산·식품	20	21.5	1.5	7.4
9. 국 방	46.7	50.2	3.5	7.4
10. 외교·통일	5.1	5.5	0.4	8.8
11. 공공질서·안전	20.1	20.8	0.7	3.5
12. 일반·지방행정	76.6	79	2.5	3.2
※ 지방교부세	52.5	52.2	△0.3	△0.5

제 3 장

분야별 투자계획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02. 교육 분야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04. R&D 분야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06. SOC 분야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08. 환경 분야
0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1-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80.5조원 수준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5.2%에 이른다. 사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적극 뒷받침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화 대비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조현병·마약·감염병 등 국민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생계비부담 경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30%를 신규로 공제한다. 금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총 7.9만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교육급여 중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2% 인상한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월 10만원 저축시 30만원을 매칭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투자 및 고령화 대비 투자 확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 보육, 노인돌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0.2→1.0만호) 및 신혼희망타운(1.5→1.9만호)를 확대하고, 난임시술비 확대 등으로 임신·출산비도 경감한다. 보육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16시 이후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 연장반 전담교사를 2.2만명 지원, 연장보육료 신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제2부
3장 분야별 투자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61→74만명)하고,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노인돌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장애인 및 소외아동·청소년 지원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17시간 추가로 확대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서비스 감소자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인 연금인상(25→30만원) 대상을 확대한다. 빈곤·요보호아동 및 위기·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지역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 관리 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지속 확충

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등 5대 국민건강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중증 어린이 단기입원병동, 뇌진증 센터 등을 신설한다.

[표 1-1]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609,972	1,805,430	12.1
기초생활보장	127,046	139,659	9.9
취약계층지원	34,019	39,603	16.4
공적연금	503,116	554,491	10.2
보훈	55,588	57,345	3.2
주택	257,309	297,314	15.5
사회복지일반	12,958	14,215	9.7
아동·보육	81,297	85,127	4.7
노인	139,776	166,323	19.0
여성·가족·청소년	10,475	10,950	4.5
고용	194,598	222,759	14.5
노동	67,138	77,133	14.9
고용노동일반	5,449	5,291	△2.9
보건의료	25,930	27,694	6.8
건강보험	90,187	101,956	13.0
식약안전	5,086	5,568	9.5

1-2 ▶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긴급복지와 자활사업 확대, 자산형성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2019년) 12조 7,046억원 → (2020년) 13조 9,659억원 (9.9%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약 7.9만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도록 지원한다. 우선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자산·고소득자 제외). 간주부양비 부양비율도 남성(30%), 여성(15%) 모두 10%로 인하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로 도입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수급요건도 완화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MRI(척추), 초음파(흉부·심장) 등을 급여화 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경우에도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 의료, 돌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지속 실시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하였다.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거주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고등학교 부교재비 단가를 약 60% 인상(21.2 → 33.9만원)하여 중학교 기준단가의 1.6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교재비 및 초중고 학용품비는 '19년대비 1.4% 인상한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희망하는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자활일자리를 확대('19년 4.8 → '20년 5.8만개)한다. 아울러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규 시행한다.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 매칭하여 3년간 약 1,440만원의 자립자금을 마련을 지원한다.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27,046	139,659	9.9	
생계급여	37,508	43,379	15.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의료급여	63,915	70,038	9.6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의료보장성 강화 등
주거급여	16,729	16,305	△2.5	기준중위소득 44 → 45%
교육급여	1,317	1,016	△22.8	고교부교재비 62% 인상
자활사업	4,910	5,808	18.3	급여단가 최대 5%인상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781	1,006	28.8	청년저축계좌 신설

◎ 취약계층지원 부문

장애인연금, 일자리 지원을 통해 소득보장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지원 강화한다.

☞ (2019년) 3조 4,019억원 → (2020년) 3조 9,603억원(16.4% 증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발맞춰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지원 시간을 대폭 인상하여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간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9년 81천명에서

'20년 91천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월평균 바우처 급여도 127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지원단가를 '19년 12,960원에서 '20년 13,500원으로 4.2%를 인상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혼자 활동이 곤란해 돌봄 수요가 높은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는 2,500명에서 4,000명으로,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4,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중증 성인 가족들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월 급여시간을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중 생계의료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월 5만원 인상된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미취업 장애인 일자리도 25백개 증가한 22,352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원한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요보호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0만원)을 전년보다 2,900명 늘어난 7,8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수준의 청소년안전망팀 9개소를 구축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최근 아동돌보미의 아동학대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아동 학대 사례 관리자 222명도 신규로 지원한다.

[표 1-3] 취약계층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34,019	39,603	16.4	
장애인활동지원	10,035	13,057	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8.1 → 9.1만명 • 단가 12,960 → 13,500원 <주간활동>
발달장애인지원	427	916	1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2.5천개 → 4천개 • 단가 : 12,960 → 13,500원 • 시간 : 88시간 → 100시간 <방과후활동>
장애가족지원	1,010	1,107	9.6	• 발달재활서비스 57 → 61천개
장애인일자리 지원	1,208	1,415	17.2	• 일자리 19.8 → 22.4천개
장애인연금	7,197	7,862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367 → 378천명 • 지급액 (생계·의료)300 → 300천원 (주거·교육·차상위)254 → 300천원 (차상위초과)254 → 258천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99	218	121.4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7,820명, 월30만원

◎ 공적연금 부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및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한다.

☞ (2019년) 50조 3,116억원 → (2020년) 55조 4,491억원 (10.2% 증가)

공적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국민, 공무원,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에 대한 급여를 지속 지급한다.

특히, 4대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518.2→561.3만명으로 43.1만명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급여지급액도 3.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여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수도 각각 51.1 → 53.3만명, 8.1 → 9.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4] 공적연금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503,116	554,491	10.2	
국민연금	237,583	274,111	15.4	518.2 → 561.3만명
공무원연금	187,410	196,030	4.6	51.1 → 53.3만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	44,494	49,689	11.7	8.1 → 9.0만명
군인연금	33,630	34,661	3.1	9.3만명

◎ 사회복지일반 부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19년) 1조 2,958억원 → (2020년) 1조 4,215억원 (9.7% 증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곳에서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16개소로 확대 운영 계획이다.

※ 주거 지원, 의료·요양·돌봄 등 케어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을 일부 지자체에 시범운영하여 지자체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마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19년 4개 시·도에서 '20년 11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 신규 국공립 시설 중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 및 요양시설을 우선 위탁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재가서비스를 제공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진입을 촉진하여 민간부문의 공공성 보완 및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통합적 사회서비스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도 시행 예정이다.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등

지역의 부족한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전년 대비 12.5% ↑)

※ 지자체가 직접 돌봄·재활·상담 등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기획 및 운영

[표 1-5] 사회복지일반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2,958	14,215	9.7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64	178	177.9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실시
사회서비스원	60	121	102.0	중앙지원단 1개소 사회서비스원 11개소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3	11	328.0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사업(10개 시군구) 및 협동조합형 돌봄사업 추진(2개 시군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68	3,115	12.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혜자 증가(증 2만명) 산모신생아 및 가사간병사업 단가 인상(2.8%)

◎ 아동·보육 부문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 및 아동 돌봄 인프라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2019년) 8조 1,297억원 → (2020년) 8조 5,127억원 (4.7% 증가)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16시 이후 어린이집 연장반을 도입·운영한다.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연장반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여 제도 개편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급간식 재료비 기준단가 인상(1일 1,805→1,900원) 등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료를 전년 대비 3.3% 인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도 30% 지원한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온종일 돌봄사업을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히 모든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를 확대하여 설치한다.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에게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확인·취소·변경을 할 수 있고,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 후에 만족도 평가와 아이돌보미 활동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222명을 신규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실시와 양성 및 보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10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서 2019년 7월부터 최대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한 바 있으며, 또한 기존에는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였으나 '20년부터는 시술별 지원단가를 차등화하여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표 1-6] 아동·보육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81,297	85,127	4.7	
아동수당	21,627	22,834	5.6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다함께 돌봄 사업	106	262	146.7	'20년 다함께 돌봄 센터 400개소 신설
영유아보육료지원	34,053	34,162	0.3	'19년 대비 3.3% 인상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1,868	14,242	20.0	연장교사 22만명(신규) 담임수당 월 22만원 → 월 24만원
지역아동센터지원	1,731	1,830	5.7	운영비 월 529만원 → 월 569만원
아이돌봄 지원	2,246	2,440	8.6	아동학대 사례관리사 222명 확충 대기관리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모자보건사업	274	333	21.6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 10→17회, 단가 : 50→최대 110만원)

◎ 노인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및 활력있는 사회활동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 (2019년) 13조 9,776억원 → (2020년) 16조 6,323억원(19.0% 증가)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16년 46.5%)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19년 539만명에서 2020년 569만명으로 확대되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5만원인상), 40~70% 대상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5.4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6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병원동행 및 가사지원 등을 포함한 17종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된다. 수혜자는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으로 진입하는 노인을 억제하여 노인 의료비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확충 및 건강유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2019년 61만개 일자리를 2020년에는 13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월 평균 근로시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상담·등록, 조기검진, 치매쉼터, 가족지원, 사례관리 등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부터는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를 지원하고,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질의 치매전담형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 지원단가도 기존 m²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시설별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 일반시설의 치매전담형으로 전환 등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표 1-7] 노인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주요내용
부문 계	139,776	166,323	19.0	
기초연금	114,952	131,765	14.6	538.6→568.8만명
노인돌봄서비스	2,458	3,728	51.7	돌봄제공인력 11,800→29,891명
노인일자리 운영	8,220	12,015	46.2	64→74만개(10만증)
치매관리체계구축	2,364	2,068	△12.5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노인요양시설 확충	1,129	864	△23.4	33개소 추가 확충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부문

공공의료 확충 및 미래성장 동력인 보건산업 R&D 투자를 강화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 (2019년) 11조 6,117억원 → (2020년) 12조 9,650억원 (11.7% 증가)

주요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초음파) (19)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 (20) 흉부, 심장(MR) (19) 경부, 복부, 흉부 → (20) 척추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차질없는 이행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건증) '19년 78,732→'20년 89,627억원(+10,895억원, 13.8%)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기존 3가백신에서 예방범위가 더 넓은 4가백신으로 전환 지원하고, 그 대상을 기존의 영유아·초등생·어르신·임신부 외에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20~40대 A형 간염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결핵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정신질환 사고에 신속 대응토록 정신질환 응급개입팀을 신설하며, 저소득층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응급입원·외래치료지원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응급실 내 자살예방사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공공의료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의료의 영역도 보다 확대된다. 국내에서도 뇌전증(간질)에 대한 정밀진단과 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뇌자도·뇌파로봇 등 전문장비를 구비한 뇌전증지원센터를 올해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건립을 2021년 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병원선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각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를 내실화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용 신약 및 의료기기, 의료기술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며 융합형 의사과학자 및 AI활용 등 신약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표 1-8] 보건의료·건강보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합 계	116,117	129,650	11.7	
건강보험	90,187	101,956	13.0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일반 : 59,721→70,826억원) (기금 : 19,011→18,801억원)
보건의료	25,930	27,694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예방접종(3,352→3,388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729→976억원) •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9→53억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134→1,264억원)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구축(신규, 93억원) •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 구축(1개소, 25억원) •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1개소, 43.2억원)

◎ 고용 · 노동 · 고용노동일반 부문

청년 · 여성 · 장애인 · 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정망을 대폭 확충하며, 저소득 노동자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2019년) 26조 7,185억원 → (2020년) 30조 5,183억원 (14.2% 증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여건을 확충하고,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2019년 20만명(6,735억원)에서 2020년 29만명(9,909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019년 25만명(9,971억원)에서 2020년 34.2만명(12,82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청년들의 구직활동 애로 해소를 위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을 감안하여 2019년 8만명(1,582억원)에서 2020년 5만명(1,64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청년 친화적인 취업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센터(12개소)를 운영하고(2019년 53억원 → 2020년 49억원), 해외진출 희망 청년을 해외취업으로 연계한다.(2019년 584억원 → 2020년 596억원)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전후 · 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월 180 → 200만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위한 재직자 근속요건을 완화(1년 → 6개월)하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2.28.시행). 중소기업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인상(월 60 → 80만원)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채용한 대체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하여도 지급한다.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2019년 90억원(3,000명) → 2020년 307억원(5,000명)) 또한, 퇴직 신중년이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2019년 169억원 (12,500명) → 2020년 179억원 (13,000명)>

장애인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3,000 → 5,000명) 및 보조공학기기(1 → 1.1만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 (60 → 75개소)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30~60만원 → 30~80만원).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대한다. (13개소 → 19개소) 고용보험제도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20. 하반기~, 20만명).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평균임금의 50 → 60%)하고, 지급기간을 연장(+30일)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여 월 보수 지원 기준(월 보수 210 → 215만원 미만)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237만 → 274만명)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2.87%)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한다(2019년 2조 8,188억원 → 2020년 2조 1,647억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확대(1,300 → 2,060명)하고, 고학력 구직자 대상 폴리텍 대학 하이테크 훈련과정 운영(775 → 960명) 및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한 폴리텍 대학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사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한다(2020년 8,778억)

[표 1-9]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267,185	305,183	14.2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8,188	21,647	△23.2	230만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3,419	11,490	△14.4	274만명(고용보험 131만명, 국민연금 143만명)
구직급여	71,828	95,158	32.5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	2,771	순증	20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9,971	12,820	28.6	신규 13.2만명
고용창출장려금	8,722	11,431	33.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14,553	15,432	6.0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82	1,642	3.8	5만명
고용보험기금	126,849	154,986	22.2	구직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9,769	69,061	15.5	산재급여 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788	5,975	24.8	장애인고용 장려금등
임금채권보장기금	4,585	4,868	6.2	체당금 등
근로복지진흥기금	1,328	1,453	9.4	생활안정자금 등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1-1 ▶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5.5조원으로 2019년 21.2조원 대비 20.1%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 일자리 예산은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확대 편성하였다.

정부는 최근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를 가속화 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대외경제 불확실성 및 급속한 고령화·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에 따라 '20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0년 일자리 예산은 2019년 대비 20.1% 증가한 25.5조원 수준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2.9조원(11.2%),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2조원(8.8%),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2조원(4.7%) 규모이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은 6.5조원(25.5%), 창업지원에는 2.6조원(9.2%)이 투자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10.3조원(40.6%)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0년에도 일자리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에 기초한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실집행률을 매달 관리하는 한편,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참여자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현장모니터링·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표 참고1-1] 일자리분야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12,374	254,998	20.1
직접일자리	20,779	28,587	37.6
직업능력개발훈련	19,610	22,434	14.4
고용서비스	9,867	11,994	21.6
고용장려금	57,883	64,950	12.2
창업지원	25,097	23,585	△6.0
실업소득 유지·지원	79,139	103,447	30.7

참고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94.5만개를 지원한다.

☞ (2019년) 20,779억원, 78.5만개 → (2020년) 28,587억원, 94.5만개

2020년에는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94.5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조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13만개 확대(2019년 61만명 → 2020년 74만명)하고, 장애인의 일할 기회도 늘린다.(2019년 2만개 → 2020년 2.2만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2019년 4.8만개 → 2020년 5.8만개)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도 확대한다.(2019년 1.05만개 → 2020년 1.2만개)

[표 참고1-2] 직접일자리 창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0,779	28,587	37.6
노인일자리	8,130	11,913	46.5
자활근로사업	3,897	5,078	30.3
장애인일자리지원	1,208	1,415	17.1
지역공동체일자리	409	461	12.7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한다.

☞ (2019년) 19,610억원 → (2020년) 22,434억원(14.4% 증가)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산업·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면서, 중장기적 역량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표 참고1-3]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a)	2020(b)	증감률((b-a)/a)
합 계	19,610	22,434	14.4
국민내일배움카드	7,822	8,777	12.2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846	3,555	320.2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280	340	21.4

◎ 고용서비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 (2019년) 9,867억원 → (2020년) 11,994억원(21.6% 증가)

'20년 하반기,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정비된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형고용센터(24개소),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신규 확충하고,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표 참고1-4] 고용서비스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9,867	11,994	21.6
국민취업지원제도	-	2,771	순증
직업안정기관운영	309	407	31.7
일터혁신 지원	142	236	66.2

◎ 고용장려금

‘청년’의 취업률 제고 및 장기근속, ‘여성’의 일·육아 병행 일자리 환경 조성, ‘신중년’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안정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2019년) 57,883억원 → (2020년) 64,950억원(12.2%증가)

청년고용지표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0년 신규 13.2만명)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신규 9만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통상임금의 100%, ’19.10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확대(통상임금의 80%→100%, ’19.10월~)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60→8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1인당 월 30만원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중증여성 60→80만원, 중증남성 50→60만원, 경증여성 40→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

[표 참고1-5] 고용장려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57,883	64,950	12.2
청년내일채움공제	9,971	12,820	28.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45	9,909	46.9
모성보호육아지원	14,553	15,432	6.0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46	순증
장애인고용장려금	2,106	2,297	9.1

◎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지원

창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의 성공률·생존률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

☞ 창업지원 : (2019년) 25,097억원 → (2020년) 23,585억원(6.0%감소)

☞ 실업소득유지 : (2019년) 79,139억원 → (2020년) 103,447억원(30.7%증가)

예비, 초기(~3년), 도약(3~7년)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을 확대('19. 3,388 → '20. 3,972개소)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는 창업팀에 창업 전 과정을 지원('19. 800 → '20. 900팀)하고, (예비)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교육부터 제품개발까지 일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도 확대('19. 920 → '20. 1,085팀)한다.

안정적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18개월간 유급근로 180일에서, 24개월간 180일로 완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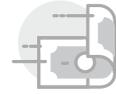
체불노동자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2019년 1,800만원 → 2020년 2,100만원)한다.

[표 참고1-6]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02,933	127,033	23.4
창업사업화지원	2,950	4,008	35.9
창업성공패키지	922	1,041	12.9
청년등사회적기업가양성	281	316	12.6
구직급여	71,828	95,158	32.5
체당금지급	4,114	4,335	5.4

02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2.6조원이며, 2019년도 70.6조원보다 2.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누리과정의 지원단가가 7년 만에 인상(22만원 → 24만원)되어 3.8조원에서 4.0조원으로 5.7% 증가하였으며, 고교무상교육('20년 고2·3 → '21년 전학년)을 지원한다. 고등교육 부문 투자 규모도 10.3조원에서 11.0조원으로 7.4% 증가하였다. 지역혁신플랫폼 신설(3개소) 등 대학 혁신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대학 창업 활성화 및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 실용적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학문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직업교육-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를 지원하여 고졸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보장 확대 및 AI 등 신산업분야 관련 K-MOOC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 생애 전주기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 지속 지원을 위한 유특회계 일몰기한 연장(3년), 고교무상교육 실시('20년 고2·3 → '21년 수학년) 등으로 차별 없는 출발선을 보장한다.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을 확대하고, 행복(사립·연합)기숙사 건립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설, 저소득층 평생바우처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강좌 확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평생교육 과정을 설계한다.

◎ 고졸인재의 성공 취업 및 역량 발휘 지원

고교졸업 후 중소기업·중견기업 취업 시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단가 인상, 고교졸업 후 재직 중 대학 진학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전문대 후진학자 전담과정 확충 등 선취업·후학습에 대한 단계별 지원 강화로 역량 있는 고졸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고졸인재의 주된 취업경로인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을 신설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실습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또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중앙-시·도-학교로 이어지는 고졸 취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 고졸 인력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혁신 및 인재 양성 지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형 신설 등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투자 확대, 산학협력 및 대학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시작되는 BK21 4단계 사업(두뇌한국21)도 확대·개편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인문사회 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기초·실용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우수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706,490	726,344	2.8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3,832	604,126	1.7
고등교육	102,576	110,139	7.4
평생·직업교육	8,771	10,715	22.2
교육일반	1,312	1,365	4.1

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확충한다.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 (2019년) 593,832억원 → (2020년) 604,126억원 (1.7% 증가)

재정분권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교부율을 인상(20.46 → 20.79%)하여, '19년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1,234억 원(0.22%)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조 3,722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학부모의 유아학비·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2020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적용 예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2만원 인상(22 → 24만원)하여 총 4조 316억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설립키로 한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예술 교육 및 진로·직업 다양화 등 장애 학생의 교육여건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593,832	604,126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488	553,722	0.2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8,153	40,316	5.7
고등학교 무상교육	-	6,594	순증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27	138	411.9

◎ 고등교육 부문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확충에 중점을 둔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도 지속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학금을 확충하며 학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강사제도 안착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획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2019년) 102,576억원 → (2020년) 110,139억원 (7.4% 증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지역성장을 견인할 대학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신설(지역혁신형, Ⅲ유형)하였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형(6.4천명)을 중심으로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확대·개편하였으며, 대학원 혁신지원비도 신설하여 대학원 교육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확대지정, 학생창업팀 육성 등을 통해 대학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535 → 1,217억원) 등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지원 및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확충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근로장학금의 단가 인상 및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수장학금을 확대·개편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우수한 전문대학생들이 취업역량을 집중 개발하여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1,000)하여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학금 확충 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20년부터 0.2%p인하하여 2.0%로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19.8.1일)됨에 따라, 대학 강사제도 안착 지원도 강화하였다. 강사 방학중 임금·퇴직금을 지원하며, 강사에 대한 인문사회 연구지원 확대 및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도 신규로 제공한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표 2-3] 고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02,576	110,139	7.4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9,986	40,018	0.1
대학혁신 지원사업	5,688	8,031	41.2
BK21 플러스 사업	2,967	3,840	29.4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535	1,217	127.3
국립대 시설확충	6,093	7,167	17.6
대학창업활성화	172	198	14.9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559	719	28.6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2,925	3,689	26.1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194	1,517	27.0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52	429	181.6

◎ 평생·직업교육 부문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신설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에 AI 등 강좌를 확충한다. 또한,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졸취업활성화를 추진하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대폭 확충한다.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 대상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하여 전문대학의 기술인 육성을 지원한다.

☞ (2019년) 8,771억원 → (2020년) 10,715억원 (22.2%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확대(5,000명 → 8,000명)하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신설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시스템(K-MOOC)에 AI 등 신규강좌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제든지 양질의 대학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졸업 후 대학 진학 외 다양한 성공경로를 구축하고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또한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표 2-4] 평생·직업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8,771	10,715	22.2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25	34	37.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35	46	31.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114	135	18.4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18	순증
현장실습기업 현장교육지원	-	205	순증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780	1,107	41.9
고졸자후속관리지원모델 개발	-	18	순증
전문대학 혁신지원	2,908	3,908	34.4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	938	993	5.9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0조원 수준으로 2019년 7.2조원보다 10.6% 증가하였다.

쉽고 활력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제고 및 열악한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첨단융복합 콘텐츠산업발전을 지원한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체육 서비스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 쉽고 활력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제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책 문화가 함께하는 북카페형 공공 도서관 리모델링 및 작은 도서관 조성도 확충한다. 아울러 주요 문화유산 등을 VR·AR 콘텐츠로 제작하고 박물관 등에 체험존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제고 및 열악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지원규모를 5,500명에서 12,000명으로 확대한다.

◎ 첨단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고, 콘텐츠 분야 투·융자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향유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 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2천만명 달성

한류 등 콘텐츠를 활용하여 외래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외래객 2천만명을 달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콘텐츠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관광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관광기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성장지원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관광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관광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한다.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대로 국민 체육복지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2020 도쿄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훈련 지원 및 선수촌 운영 등 전문체육 경기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영세스포츠 업체 대상 융자 지원 확대 등 스포츠 산업 기반 강화 노력도 계속한다.

[표 3-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72,495	80,181	10.6
문화예술	31,069	35,371	13.8
관광	14,140	13,491	△4.6
체육	14,647	16,961	15.8
문화및관광 일반	3,632	3,447	△5.1
문화재	9,008	10,911	21.1

3-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문화예술 부문

지역 및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확대하여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취·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2019년) 31,069억원 → (2020년) 35,371억원 (13.8%증가)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인상(1인당 8 → 9만원)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915 → 1,033억원), 지역 문화자원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189 → 197억원) 함으로써 국민문화향유권을 지속 신장시킬 계획이다.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 선도투자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체험존 조성을 통해 일반국민의 실감형콘텐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예술인 생활자금 소액대출 등 용자를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지원한다.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들의 미담과 할머니의 연륜을 활용하여 56세부터 70세의 할머니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선현 미담 중심의 전통이야기 교육을 실시하는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사업을 확대한다. (78 → 105억원) 또한 전통문화를 통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비창업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문양을 산업디자인에 활용하려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전통문양 원형 추출 후 현대화를 지원한다. (신규, 27.5억원) 세종학당을 해외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201 → 332억원)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대상을 5,500명에서 12,000명으로 확대하고(165 → 360억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대상도 약 1,170명에서 2,370명으로

확대한다. (85 → 190억원) 또한, 기획·유통·홍보 등 예술분야 지원인력 집중육성을 통해 예술분야 인력군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조성을 지원한다. (신규, 25억원)

쇠퇴하는 지역의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원한다. (신규, 100억원)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3)에 따라 공공부문 선도투자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먼저, 박물관, 문화유적, 관광자원이 집약된 광화문 일대를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성한다. (광화문프로젝트, 신규, 400억원) 또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기술과 지역 박물관·미술관 콘텐츠의 융합으로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을 통한 새로운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100억원)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제작자금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를 계속 지원(630 → 530억원)하고, 기획단계 등 제작 초기 단계, 투자취약 장르(창작공연·만화·출판 등) 등 투자가 기피되는 영역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한다. (신규, 600억원)

게임, 대중문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산업 구성원들은 임금체불, 불공정한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 등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조정절차 활용 및 소송지원과 같은 사후조치도 지원한다. 한편, 콘텐츠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분석, 인식조사 등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 읽는 사회 확산 프로젝트'(20 → 15억원) 및 세종도서 선정 구입지원(87 → 87억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새로운

기술 환경과 소비환경에 대응한 출판콘텐츠 경쟁력 제고 및 출판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오디오북 시장활성화 지원(13 → 28억원) 및 서울 라이즈페어&마켓(신규, 3억원) 신설을 통해 출판시장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 3-2] 문화예술부문 주요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31,069	35,371	13.8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8	105	34.6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활성화	-	28	순증
세종학당 운영 지원	201	332	65.2
창작준비금 지원	165	360	118.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85	190	순증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25	순증
문화도시 조성	-	100	순증
실감형콘텐츠산업 육성	261	870	232.8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630	1,130	79.4
출판산업육성	234	243	4.1

◎ 관광 부문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사업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 (2019년) 14,140억원 → (2020년) 13,839억원 (4.6%감소)

수도권과 제주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광역자치단체 1곳)와 지역관광거점도시(기초자치단체 4곳)를 선정 육성한다. 국제관광도시는 43억원(기본계획 및 도시브랜드 전략수립 3억원, 빅데이터 분석 5억원,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 5억원, 도시관광디자인 개선지원 30억원)이, 지역관광 거점도시는 4개 도시에 각 21.5억원씩 총 86억원(기본계획 및 도시브랜드 전략수립 6억원, 빅데이터 분석 10억원,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 10억원, 도시관광디자인 개선지원 60억원)이 지원되며, 관광거점도시를 홍보하고 컨설팅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이 편성되었다.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반영하였다. 해외시장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한류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354억원→421억원)을 확대하였고, 외래관광객의 지역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관광-항공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신규, 20억원)사업을 도입하였다. 또한 2020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두바이엑스포 등 메가이벤트와 연계하여 한국관광을 홍보하고 외래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신규, 70억원)을 편성하였다.

한국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스마트관광을 도입하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를 시행한다. DMZ 평화관광 콘텐츠 확충(42억원→151억원), 한류관광활성화(37억원→65억원) 등을 통해 한국 관광에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적극 발굴 활용한다. 또한 5G 상용화를 선도하는 IT강국의 이점을 살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신규, 45억원), 관광빅데이터 구축(신규, 50억원) 등으로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관광산업의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관광벤처기업의 창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광벤처기업 사업화자금 지원의 대상(80개→150개) 및 지원액(2천만원→4천만원)을 상향하고(16억원→60억원), 관광기업에 대한 투자연계 액셀러레이팅 사업(신규,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관광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바우처 사업(신규, 37억원)과 해외에 진출할 역량을 갖춘 관광선도기업을 육성하며(신규, 15억원), 관광분야에 고급기술을 접목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관광플러스 팀스(TIPS)사업(신규,

16.5억원)을 도입한다. 이러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확대(170억원→300억원)하고 각 지역에서 관광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관광 기업지원센터를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다.(13억원→49억원)

[표 3-3]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4,021	13,839	△4.6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2	172	309.5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537	782	45.7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40	202	44.3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150	172	15.0
스마트관광 활성화	77	157	102.8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97	515	160.6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육성	72	110	52.4
관광산업 융자지원	4,950	5,500	11.1

◎ 체육 부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위해 도쿄올림픽 대비 지원을 강화하며,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 (2019년) 14,647억원 → (2020년) 16,961억원 (15.8%)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스포츠체험기회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7개월→8개월, 연 59천명),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시·군·구 대상 거점형에서 생활 밀착형 중심으로 확대(신규 81개소, 966억원),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확대(50개소→

75개소) 지원한다. 또한, 스포츠클럽 육성(224억), 생활체육 디비전 리그 확대(1개종목→4개종목, 108억),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226억),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 지원(116억) 등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계기로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발굴·계승하고, 남북한 및 동북아 스포츠교류협력, 스포츠외교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제체육교류지원을 확대(176억원)한다.

또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사업(107억원)을 통하여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태권도 진흥(187억원),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234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핑방지활동 사업 지속 지원(77억원), ODA사업인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사업 확대(62억원→72억원)를 통하여 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2020 도쿄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훈련 지원 및 선수촌 운영 등을 통해 전문체육 경기력을 제고하고 훈련 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국가대표 선수, 후보 및 꿈나무양성 등 미래의 체육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차세대 세계적 선수로 육성, 우수선수 육성시스템 근간을 마련한다.(우수선수양성지원 992억원→1,131억원) 또한 경기단체 경기력향상 및 훈련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회원종목단체 지원 확대, 361억→367억)

영세스포츠 업체 대상 융자금 지원을 확대(560→661억)하고 기 운용되고 있는 모태펀드 스포츠계정에 100억원 추가 출자하여 스포츠산업 분야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스포츠산업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고(49억원→79억원),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52억원)’를 신규 설립한다.

또한, 장애인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800명 → 1,000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인다(257억원). 이와 더불어,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342억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316억원)을 통하여 한국 장애인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표 3-4]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4,647	16,961	15.8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847	1,021	20.6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47	277	12.1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198	2,553	16.2
우수선수양성지원	992	1,131	14.0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361	367	1.9
국제체육교류지원	245	176	△68
도핑방지활동 지원	64	77	13.0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327	107	△220
태권도 진흥	150	187	37.0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	212	234	23.0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ODA)	62	72	10.0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186	342	156.0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205	257	52.0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262	316	54.0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662	762	15.1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389	556	42.9
주최단체지원	1,384	1,568	13.3

◎ 문화재 부문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통해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로 국민의 문화 향유를 향상한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사회 협력 강화로 국가 간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

☞ (2019년) 9,008억원 → (2020년) 1조 911억원 (21.1%증가)

지정·등록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51억원)를 신설하고, 궁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784억원→1,110억원, 326억원 증가)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30억원)을 신설하고,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90억원) 등 디지털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을 다각도로 발굴(5개 사업, 197억원)하여 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전개(49억원)와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프로그램 추진(77억원)을 통해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생생문화재(46억원)와 서원향교 활용사업(50억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19.7월)에 따른 체계적 홍보를 확대(19억원 증가)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계유산 명품 둘레길을 조성(22억원)할 계획이다.

남북간 문화재 교류사업 및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도 확대한다.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태봉 철원성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20억원)를 확대하고, 국제기구(ICCROM, ICOMOS 등) 지원(8억원) 및 국제개발협력(ODA)사업(21억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9,008	10,911	21.1
문화재 보존관리	3,997	4,704	17.7
문화재 보호	698	821	17.6
문화재 국제교류	709	879	24.0
문화재 활용	565	854	51.2
공능원 관리	784	1,110	41.6

04 R&D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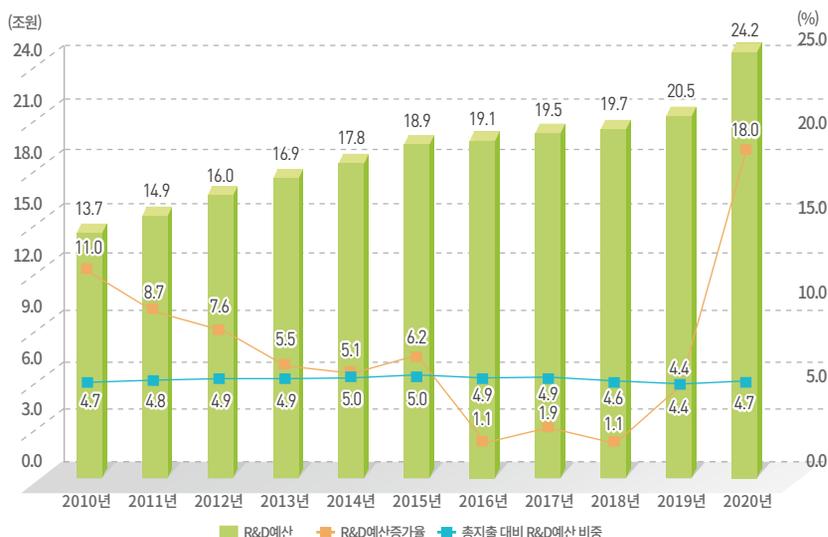


4-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19년 대비 3.7조원증가한 24조 2,195억원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8.0%로 정부재정지출 증가율 9.1%의 2배 수준이다. R&D 분야의 예산 편성은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D.N.A, 플랫폼경제 및 BIG3 3대 핵심사업 집중투자,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중소기업 R&D 지원 및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사상 최초로 R&D 예산 전년대비 18.0% 증가한 24.2조원

[그래프 4-1] 정부 R&D 투자 추이(2010~2020년)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20년도 R&D예산은 전년대비 18.0% 증가한 24.2조로 편성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인 9.1%의 2배 수준이며, 증가규모는 3.7조원으로 12대 총지출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크다. 포용성장 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R&D 투자 확대와 함께 성과제고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투자전략도 강화한다.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R&D PIE 투자 시스템을 예산에 적용하고, R&D 혁신·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과제를 이행한다. 출연(연) 성과 제고를 위한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 R&R)을 재정립하고, 이행 실적을 예산과 신규인력에 반영한다. 장기·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하던 일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일몰혁신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표 4-1] R&D 지출부문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05,328	242,195	18.0
과학기술	63,732	72,225	13.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867	58,230	29.8
교육	20,392	23,105	13.3
사회복지·보건·환경	9,391	10,457	11.4
SOC	7,973	8,883	11.4
기타	58,975	69,295	17.5

4-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품목의 특정국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 소재·부품·장비분야 R&D 예산 :

(2019년) 8,249억원 → (2020년) 17,206억원 (108.6% 증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분야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 신규 1,506억원)와 기존에 연구된 기술의 고도화(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신규, 130억원)를 위해 투자를 집중한다.

국내 기술의 신뢰도 향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인프라를 고도화 (공공나노팩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 : 신규 723억원)하고, 공공 테스트베드 확충(소재부품지원센터 15개, 신규 990억원)을 지원한다.

[표 4-2] 소재·부품·장비분야 R&D 지원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 소재·부품·장비 R&D	8,249	17,206	108.6
• 기술개발	6,014	12,092	101.0
• 기반구축	2,236	5,114	128.7

◎ D.N.A. + BIG3 투자 확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D.N.A.(Data, Network(5G), AI) 플랫폼 경제 분야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위한 3대 핵심사업(BIG3) 투자를 확대한다.

☞ D.N.A.+BIG3분야 R&D 예산 :

(2019년) 16,411억원 → (2020년) 22,304억원 (35.9% 증가)

혁신성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데이터·AI 및 5G 플랫폼경제를 활성화하고, 조기 성과 창출 및 타 산업으로의 확산이 기대되는 3대 핵심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데이터·AI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 (2019년) 50억원 → (2020년) 139억원, AI집적단지 R&D : 신규 91억원)을 지원하고, 차세대 AI 인재양성을 위해 AI대학원을 확대((2019년) 3개 → (2020년) 8개)한다.

5G를 활용한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5G 기반 VR·AR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신규 129억원) 및 몰입콘텐츠 가상증강 원천기술 개발((2019년) 48억원 → (2020년) 76억원)을 지원하며, 홀로그램을 위한 기술개발(신규 150억원)도 신설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소자·설계·제조분야 기술개발(신규 891억원) 및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신규 90억원)을 지원하고,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2019년) 111억원 → (2020년) 667억원) 및 나노팹을 고도화(신규 165억원)한다.

개인 맞춤형 의로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가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신규 150억원)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신규 932억원)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신규 133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극복 연구(신규 59억원) 및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신규 48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 : 신규 390억원)에 집중 투자하고, 도심지 자율협력주행 체계 개발((2019년) 60억원 → (2020년) 114억원) 투자를 확대한다. 상용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상용차산업 생태계구축(신규 127억원) 및 새만금지역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구축(신규 40억원)에 신규 투자한다.

[표 4-3] D.N.A.+BIG3분야 R&D 지원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 D.N.A.분야	3,223	5,103	58.3
• 데이터·AI경제	1,390	2,163	55.6
• 5G	1,833	2,939	60.3
■ BIG3분야	13,188	17,202	30.4
• 시스템 반도체	881	2,488	182.4
• 바이오 헬스	9,817	11,491	17.1
• 미래 자동차	2,490	3,223	29.4

◎ 주요 선도사업 투자 지속 확대

혁신성장 전략분야인 3대 플랫폼경제 및 8대 선도사업(D.N.A.+BIG3 분야 중복 제외)분야에 대한 지속 투자 확대로 혁신성장을 확산시킨다.

☞ 주요 선도 분야 R&D 예산 : (2019년) 7,957억원 → (2020년) 9,955억원 (25.1% 증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생산·저장·이송 기술에 대해 투자(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수소관련 : (2019년) 312억원 → (2020년) 513억원)를 확대하고, 안정성 제고를 위해 안정성 평가기술 및 장비개발(신규 60억원)을 지원한다. 수소 활용 확대를 위해

수소선박((2019년) 50억원 → (2020년) 86억원)과 수소시범도시 인프라(신규 40억원) 지원도 확대한다.

드론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신규 사업(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 신규 130억원)을 추진하고, 기술고도화를 위한 인증기술개발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혁신조달연계 기술개발((2019년) 53억원 → (2020년) 120억원) 및 드론활용 서비스시장 창출((2019년) 20억원 → (2020년) 100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분야는 이차전지 성능고도화(신규 47억원) 및 안전성 검증(신규 150억원)에 집중 투자하고, 표준화 및 인증(에너지 신기술 : (2019년) 52억원 → (2020년) 132억원, 신재생에너지 : 신규 11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분야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조혁신 기술개발(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 (2019년) 37억원 → (2020년) 131억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혁신형R&D : 신규 133억원)에 투자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스마트공장 고도화 테스트베드 : (2019년) 46억원 → (2020년) 80억원)하여 기술을 고도화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솔루션 개발을 위해 AI융합 스마트하우징에 신규 지원(신규 61억원)하고, 에너지 솔루션 확보((2019년) 30억원 → (2020년) 73억원)에 투자를 확대하며, 국제표준화(신규 25억원)를 위해 지원한다.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개발((2019년) 92억원 → (2020년) 168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산업에 적용할 모델 개발(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 : 신규 60억원, 농업 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향상 모델 : (2019년) 20억원 → (2020년) 31억원)에 투자를 강화한다.

핀테크 분야는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2019년) 117억원 → (2020년) 161억원)에 투자를 확대한다.

[표 4-4] 주요 선도사업 분야 R&D 지원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 주요 선도사업 분야	7,957	9,955	25.1
• 수소경제	792	1,235	55.9
• 드론	585	859	46.8
• 에너지신산업	4,351	4,982	14.5
• 스마트공장	582	843	44.8
• 스마트시티	882	1,073	21.7
• 스마트팜	647	802	24.0
• 핀테크	117	161	37.6

※ 사업 분류 기준은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혁신인재 양성, 기초 및 혁신연구, 중소기업 전용 R&D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혁신인재 : (2019년) 1,679억원 → (2020년) 3,481억원 (107.3% 증가)

기초연구 : (2019년) 17,105억원 → (2020년) 20,278억원 (18.5% 증가)

혁신성장 수행주체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성장 분야별 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2019년) 560억원 → (2020년) 759억원)과 산업혁신인재성장((2019년) 540억원 → (2020년) 89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자에 대해서는 자율·창의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강화하고, 과학·산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형 R&D(혁신도전프로젝트 : 신규 14억원,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 : 신규 25억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 신규 118억원)를 신설한다.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를 이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제고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표 4-5]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지원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혁신인재양성	1,679	3,481	107.3
기초연구	17,105	20,278	18.5
중소기업 전용 R&D	17,239	23,069	33.8

◎ R&D성과 활용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투자 확대

R&D성과물의 기술사업화와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에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제고한다.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 :

강소특구 : (2019년) 16억원 → (2020년) 368억원 (2,200% 증가)

국민참여R&SD선도 : (2020년 신규) 45억원 (55.7% 증가)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사업화·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2019년) 734억원 → (2020년) 1,154억원) 및 대학 실험실의 고급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험실창업지원((2019년) 110억원 → (2020년) 242억원)을 강화한다.

R&D성과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원인규명 고도화 및 저감기술개발(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 신규 45억원)과 지역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R&D(국민참여 R&SD 선도 : 신규 45억원) 등을 지원한다.

[표 4-6]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지원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 연구개발특구육성	734	1,154	57.3
• 강소특구	16	368	2,200
■ 실험실 창업	110	242	119.5%
■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	45	순증
■ 국민공감·국민참여 R&SD선도	-	45	순증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3.7조원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 모태펀드 역대 최대규모 출자, 스케일업 지원 등 제2벤처붐 확산, 포용적 자금지원 확충·新기술 적용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다.

◎ 무역금융 보강 및 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2020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 국가개발 프로젝트 수주 및 방위산업 수출, 수출 중소기업의 신남방 등 신흥시장 진출 및 수출 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수입 다변화 지원 등 무역금융 공급을 3.4조원 확대한다. (350억원 → 4,560억원)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1,245억원 → 1,407억원),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전시회·사절단 지원도 확대하여 현지마케팅을 통한 수출실적 창출을 유도한다. (356억원 → 407억원)

일본 수출규제, WTO 분쟁 등과 같은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15억원) 및 한일 조선보조금 분쟁과 같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WTO 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 등을 대폭 확대한다. (49억원 → 163억원) 또한,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 지식

재산권, 서비스·투자 장벽 등 비관세장벽 애로 해결을 위한 비관세장벽지원실(4억원)을 신규로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제고 및 Big 3 핵심산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예산이 2배 넘게 증가하였다((2019년)2,360억원 → (2020년)6,027억원).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핵심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Big3 핵심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2020년)90억원) 등 신규사업을 마련하였으며,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5년간 총사업비 1조 2천억원 규모로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2019년)1,521억원 → (2020년)2,211억원)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혁신형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기술혁신형 창업자 1,700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유산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성공 패키지, TIPS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팀을 기존 1,000팀에서 1,085팀으로 확대고, 예비유니콘을 발굴·육성사업을 신설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 후 3~7년 기간인 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2019년)

840 → (2020년)1,275억원) 한편, 실패 이후에도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하며((2020년)286팀), 재창업 교육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2019년)1 → (2020년)5개소)한다.

◎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을 확대하고,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QR코드, 리더기도 보급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고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구축 지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54개소 → (2020년)54개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 ((2019년)19,500억원 → (2020년)23,000억원)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규모도 전년 계획 대비 5조원 확대하여 지원한다. ((2019년) 20.5조원 → (2020년)25.5조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도 지속 지원한다. 창업 전 예비 창업자 8,0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0년) 40억원) 또한 기술교육지원도 12,372명 규모로 지원한다. ((2019년)15,000명 → (2020년)12,372명) 이와함께 멘토링 지원 인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될 계획이다. ((2019년)5,000명 → (2020년)5,000명).

또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TV홈쇼핑·T-커머스 ((2019년)150개사 → (2020년)300개사), 온라인 기획전 지원 ((2019년)25회 → (2020년)100회), V-커머스 방송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19년)200개 → (2020년)1,000개)을 강화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2019년)50개사 → (2020년)400개사) 및 홍보·판매도 지원한다.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 ((2019년)200명 → (2020년)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 시설(2곳)도 구축한다.

[표 5-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87,641	237,154	26.4
무역및투자유치	6,705	10,182	51.8
창업및벤처	32,369	44,011	36.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65,331	84,448	29.3
에너지 및 자원개발	34,194	38,751	13.3
산업혁신지원	38,049	47,325	24.4
지식재산일반	2,848	3,223	13.2
산업금융지원	2,000	2,640	32.0
산업·중소기업일반	6,146	6,575	7.0

5-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산업혁신지원 부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기술 집중지원, 주요제조업 투자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2019년) 38,049억원 → (2020년) 47,325억원 (24.4% 증가)

지역 제조업의 경기둔화에 따라 지역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조업 경기둔화가 뚜렷한 지역(강원, 강릉, 울산 등)의 일감확보, 사업전환, 신산업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2년간 추진한다. ‘강원, 강릉’지역은 반도체 장비 관련 소재·부품산업을 지역주력산업기반으로 강화하고, ‘울산’지역은 전기차 천장부품, 조선해양부품 등 지역주력사업 전환을 통한 혁신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185억원, 신규)

국내 제조업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 혁신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산단 혁신지원센터', '산업단지편의시설 확충', '스마트산단 조성' 지원을 통해 기업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401억원 → 4,310억원). 또한 지방산단 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공장신증설·이전 및 U턴 기업에 대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1,473억원 → 2,127억원)

뿌리기업 집적화 촉진을 위해 공동활용시설인 공동편의시설 및 공동혁신활동 지원 단지를 증가시킨다. (5개단지 내외 → 6개단지 내외) 또한, 환경, 에너지다소비 등 뿌리산업 공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 (108억원 → 123억원)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조성사업과 연계하여 e-모빌리티 R&D 및 시험 등을 위한 장비구축비를 지원한다. (100억원, 신규) 조선업 관련 스마트생산기술, LNG화물창 기능인력양성 등을 위한 교육사업비 지원을 통해 조선산업의 생산기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88억원, 신규)

주력산업 및 신산업을 선도할 R&D전문연구인력 등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원 교과과정 개발·운영·현장실습 수행 등을 지원하고, 혁신성장 신산업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 한다. (901억원 → 1,015억원)

[표 5-2]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38,049	47,325	24.4
소재부품기술개발(R&D)	2,360	6,027	155.4
산업단지환경조성	3,401	4,310	26.7
지역투자촉진	1,481	2,137	44.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R&D)	632	1,457	130.5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108	123	14.1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901	1,015	12.7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	127	381	199.3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	302	순증
지역활력프로젝트	-	185	순증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	-	100	순증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	90	순증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	88	순증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분쟁 등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2019년) 6,705억원 → (2020년) 10,182억원 (51.8% 증가)

국가개발 프로젝트, 방위산업 수출, 수출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다변화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350억원 → 2,960억원),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마케팅 사업 정보제공 확대 및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업이 수출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진행하고 (564억원

→ 731억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및 사절단 지원도 확대하여 현지 마케팅을 통한 수출실적 창출을 유도한다.

일본 수출규제, WTO 분쟁 등과 같은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통상 정보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15억원), WTO 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 등을 대폭 확대한다.(49억원 → 163억원) 또한,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 애로 해결을 위한 비관세장벽지원실(4억원)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표 5-3]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6,705	10,159	51.5
무역보험기금출연	350	2,960	754.7
수출지원기반활용	564	731	59.6
수출경쟁력강화지원	356	407	14.3
통상분쟁대응	92	234	153.1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등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2019년) 34,194억원 → (2020년) 38,751억원 (13.3%)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보급(2,670억원 → 2,926억원)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 장기저리 융자

(2,570억원 → 2,820억원), 핵심기술개발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풍력사업 (25억원, 신규)을 진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저소득 가구에는 에너지원 사용비용을 보조하는데, 연탄쿠폰의 가격을 상향조정(40만원 → 47.2만원) 하였으며, 올해는 사회배려계층의 하계누진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금액을 지원(총 568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안전 취약계층의 고충해소를 위해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정기점검을 통해 전기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983억원 → 1,041억원)

[표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34,194	38,751	13.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670	2,926	9.6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570	2,820	9.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2,154	2,395	11.2
에너지바우처	937	1,675	78.7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83	1,041	5.9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	53	순증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	25	순증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영 교육, 자금, 판로, 재창업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19년) 65,331억원 → (2020년) 84,448억원 (29.3% 증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 한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기업을 2,800개 기업에서 4,125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2개소, 48억원) 또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및 4차 산업 혁명 관련 분야 투자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3,300 → 5,000억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한 우수 인력의 장기재직도 유도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2019년 7.3만명에서 2020년 11.3만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지속 지원하고(54→54곳),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0.35조원, 신용보증 지원을 '19년 계획 대비 5조원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5-5]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65,331	84,448	29.3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3,428	4,468	30.3
인력유입인프라조성	2,178	3,087	41.7
소상공인지원(융자)	19,500	23,000	17.9
시장경영혁신지원	2,710	3,281	21.1

◎ 창업 및 벤처 부문

창업기업의 혁신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M&A 및 회수 펀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 투자 시장의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 (2019년) 32,369억원 → (2020년) 44,011억원 (36.0% 증가)

3대 신산업(미래차, 바이오, 비메모리) 및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300팀을 선정하고, 기존 사업화지원(예비, 초기, 도약 등)과 연계하여 혁신형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창업 지원 사업인 창업성공패키지에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50팀), 사내벤처 육성 사업을 대폭 확대(100 → 200팀) 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고기술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1,011 → 1,114억원),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후 3~7년 구간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840 → 1,275억원)

내년 모태펀드 예산 8천억원('19년 2,400억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AI 등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표 5-6]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32,369	44,011	36.0
창업사업화지원	2,950	4,008	35.9
창업저변확대	488	529	8.4
창업성공패키지	922	1,041	12.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400	8,000	233.3

◎ 지식재산일반 부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건전한 IP기반의 혁신 성장 및 생태계 조성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2019년) 2,848억원 → (2020년) 3,223억원 (13.2% 증가)

창의성·기술혁신에 기반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 권리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 할 계획이다(687억원→730억원)

또한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고자 채무 불이행시 담보특허를 매입하고 활용(신규 37.5억원)할 계획이며, 지역 IP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컨설팅, 로드맵, 기술사업화 등)을 대폭 확대한다. (151→172억원) 아울러 우수 IP보유기업이 미래 가치에 기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평가지원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54→62억원)

초·중·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발명·창의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허화고 발명·특허교육(16억→18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표 5-7] 지식재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848	3,223	13.2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지원	687	730	6.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38	순증
지식재산 창출지원	151	172	14.1
지식재산 평가지원	62	72	11.0
특성화고 발명·특허교육	16	18	1.3

06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3.2조원으로 2019년 19.8조원 대비 17.6% 증가하였다. SOC 분야 전반에 걸쳐 완공 위주로 투자하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에 집중하고,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투자 확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고도화, 드론·자율차·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관련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생활속 안전확보와 스마트 유지관리 추진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인프라 스톡 확충을 통해 사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도로·철도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은 15만여개로 건축물을 제외한 교량·터널·항만·댐 등의 시설물은 5만여개로 관리대상 노후시설물 급증에 선제 대응하여 안전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혁신성장 지원

미래 교통수단인 자율차 및 드론의 인프라와 산업성장 기반을 구축, 스마트시티는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통합플랫폼 구축 보급, 마을 단위 스마트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하며,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창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 인프라 확대를 통한 교통문제 해소

국민소득 향상과 자동차 급증에 따른 도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간 빠른 이동을 위한 철도건설 투자를 강화하며, 버스·택시 의존도도가 줄어들면서 정시성 등을 고려한

제2부
3장 분야별 투자계획

도시·광역철도 수송비중 확대로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의 편리한 연계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벽지노선 지원, 저상버스 확대 보급,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등을 통한 교통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지역밀착형 생활 SOC와 스마트 유지관리 투자 확대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과거의 단순 개량과 유지보수를 넘어 첨단기술을 접목한 도로터널 원격제어시스템, 산사태방지 시스템, 철도무선통신망 확대 등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SOC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표 6-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부 문	2019년 (a)	2020년 (b)	2019년 대비	
			증감액(b-a)	증감율((b-a)/a)
합 계	197,531	232,311	34,780	17.6
도로	58,742	71,299	12,557	21.4
철도	55,163	69,474	14,311	25.9
해운·항만	17,172	18,974	1,802	10.5
항공·공항	1,561	2,691	1,130	72.4
물류등기타	23,908	29,406	5,497	23.0
수자원	17,311	12,909	△4,402	△25.4
지역및도시	20,205	24,454	4,249	21.0
산업단지	3,469	3,103	△365	△10.5

6-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편익 제고를 추진한다.
 ☞ (2019년) 57,843억원 → (2020년) 69,165억원 19.6% 증가)

고속도로는 연차별 투자소요, 집행률 및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성-구리, 새만금-전주 등 주요사업에 집중투자하고, 향후 수소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21년까지 적정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일반국도의 경우, 사업수 감소와 신설보다는 개량사업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준공소요 등 필수 소요는 반영하였으며, 스마트복합쉼터 신규 도입, 터널원격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기존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강화, 위험도로 개선, ITS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의무지출성 예산(MRG, 건설보조금)은 적정소요로 반영하고, 토지보상비는 민자先보상을 감안하여 일부소요와 금융비용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자체 도로건설 지원은 연차별 배분기준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를 반영하였다.

[표 6-2] 도로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고속도로	14,281	18,636	30.5%
국도	17,387	18,601	7.0%
민자도로	5,493	8,427	53.4%
광역도로	655	389	△40.6%
국가지원지방도	2,508	2,576	2.7%
도로관리	17,519	20,536	17.2%

◎ 철도 부문

수도권의 교통 혼잡해소 및 통근시간 단축,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19년) 55,163억원 → (2020년) 69,474억원 (25.9% 증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고막원),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사업의 착공 및 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평택~오송 2복선화), 취약개소 개선(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등)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철도는 '20년 개통 예정인 원주-제천 복선전철 등 7개 사업의 성공적 개통 및 도담~영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계속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및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며, 진접선 등 그외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광주도시철도 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본격 추진과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신규 사업 소요를 반영하고, 신림선 등 경량전철 사업의 지자체 보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노후시설물을 개량하고, 스크린도어, 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에스컬레이터, 역사증·개축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표 6-3] 철도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고속철도	400	1,086	171.5
일반철도	26,212	30,074	14.7
광역철도	4,852	6,274	29.3
철도안전및운영	21,539	28,215	31.0
도시철도건설	2,069	3,825	84.9
도시철도경영개선	91	-	순감

◎ 해운·항만 부문

항만 미세먼지 저감 집중 투자 및 환경규제 적기 대응을 지원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며, 또한,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지속 투자한다.

☞ (2019년) 17,172억원 → (2020년) 18,974억원 (10.5% 증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투자를 확대하여 주요 배출원(선박, 항만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예선 LNG 전환(24→42억원) 및 노후 화물선 LNG 전환을 신규 지원(1척 80억원)한다. 또한 LNG 청항선(2척) 준공 등 공공선박 친환경화를 단계적 추진한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주요 항만에 확대(16개소, 34→264억원, 누적 40개소) 설치하고, 항만 야드트랙터(YT)의 LNG 연료 전환(100대, 12→12억원) 지원 및 DPF 보급사업(315대, 13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및 선박 환경 규제 적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설비의 지원을 확대(선박 85→112억원, 설비 40→85억원) 하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신규 3억원)하여 안정적인 화물 확보도 지원한다.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12,956→14,643억원)한다. 특히 '20년은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344억원),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107억원)를 완공하고,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18억원), 새만금신항 접안시설(68억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21억원) 등을 신규 착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민의 단거리 여객선 운임(국가·지자체 20→50%)과 소형화물차 차량운임(20→50%) 지원을 확대(131→146억원)하고, 여객선에 교통약자 편의시설(26척, 1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표 6-4]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항만개발 및 관리	13,430	15,027	11.9
해운산업 선진화	2,679	2,617	△2.3
해양 및 해상교통	1,063	1,330	25.1

◎ 물류 등 기타 부문

교통사고 예방, 안전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건설 수주 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2019년) 23,908억원 → (2020년) 29,406억원 (23.0% 증가)

대형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안전도 강화 등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형 택시 전국 지원,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한편 생활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등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진입도로 준공 등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인프라시장개척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개발 협력사업(ODA)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다변화와 투자형 해외사업 진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해외건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실제 도로상 자율주행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차량·인프라와 협력을 위한 자율운행 기반기술을 마련하고 건설의 디지털·자동화 기술, 외국에 의존적인 철도차량 부품의 국산화 및 고성능 부품개발 등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표 6-5]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교통및물류정책	1,741	2,163	24.2
국토교통R&D·정보화	5,910	6,491	9.8
해양정책 등	3,763	3,839	2.0
해양수산R&D·정보화	1,352	1,941	43.6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780	423	△45.7

◎ 항공·공항 부문

지역 항공수요 대응을 위한 공항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드론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 등 관련 투자를 지속한다.

☞ (2019년) 1,561억원 → (2020년) 2,691억원 (72.4% 증가)

지역항공 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사업 설계비 등 필수소요를 반영하고, 울릉도 소형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등 도서지역 공항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드론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드론실기시험장을 추가 건립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항공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항공시스템 구축, 시험검사용 항공기 추가도입, 공항시설 개선 등 항공안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국립항공박물관 운영, 항공전문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에 적극 지원한다.

[표 6-6]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공항건설	156	1,394	791.9
드론산업 지원	407	462	13.4
항공안전	394	418	6.2
항공산업 지원	414	195	△52.9
공항운영	190	222	17.1

◎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기반을 구축하고, 친수시설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 기반 등을 제공한다.

☞ (2019년) 17,311억원 → (2020년) 12,909억원 (25.4% 감소)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하천정비,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홍수에 대비한 효율적 수문 제어를 위해 IoT를 활용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의 선행계획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연구를 위한 치수연구개발비를 반영하였다.

다만, 지방하천정비는 재정분권에 따라 해당 하천관리청인 지자체에서 예산을 자체 확보하여 추진한다.

[표 6-7]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하천관리및홍수예보	14,889	9,551	△35.9
댐건설및치수능력증대	1,165	1,97	28.5
용수공급및개발	810	1,211	49.4
수자원정책	447	650	45.3

◎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도심재생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및도시 : (2019년) 20,205억원 → (2020년) 24,454억원 (17.3% 증가)

☞ 산업단지 : (2019년) 3,469억원 → (2020년) 3,103억원 (10.5% 감소)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출자,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축진지역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스마시티 산업육성 지원, 국민 체감도 증진,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노후 주거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산기지의 자연생태 회복·보전 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국민참여 확대 및 공론화를 도모한다.

또한,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 될 수 있도록 총 66개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산단 조성 감소와 집행률 제고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노후공단의 재정비를 지원하고 부처연계형 노후산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지구 신규 선정을 위한 계획수립비를 반영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표 6-8]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 지역및도시	20,205	24,454	17.3
· 지역개발	5,000	5,332	6.7
· 도시정책	7,352	9,741	32.5
· 국토정보관리 등	1,311	1,676	27.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985	3,388	13.5
· 새만금개발	2,561	3,309	29.2
■ 산업단지	3,469	3,103	△10.5
· 산업단지진입도로	2,230	2,371	3.1
· 지역거점조성	423	-	△100.0
· 산업단지지원	746	732	△1.8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7-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1.5조원으로 2019년 20.0조원 대비 7.4% 증가하였다.

WTO 개도국 특혜 포기,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구조 혁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및 유통구조 선진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도입,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어업 구조 혁신을 지원한다. 둘째, 스마트농어업 확산, 농수산식품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경쟁력 있는 청년농 육성 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농어업 관측 고도화, 채소가격안정제 도입비중 확대, 유통방식 선진화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넷째, 농업 생산기반정비, 여촌뉴딜 300 등 농어촌지역의 영농·생활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 농어업 구조 혁신 추진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개편을 통해 기존 직불금의 쌀 농가 및 대농 편중을 완화하고, 수자원·토양·생태계 보호, 공동체 유지,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어업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등 스마트농어업의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임대형, 수직형 스마트팜 등을 통해 스마트팜의 보급 확산도 지원한다.

농수산물식품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역량을 높이고, 농식품분야의 창업 촉진, 자금지원 등을 확대한다. 수출통합조직의 지원품목을 늘리고, 스마트팜 ICT기자재의 국가표준화 보급 및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분야의 신규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청년농 육성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들의 농어촌·농식품분야 유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 예비 영농인 육성 투자를 늘린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고·농대 농어업 실습장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을 위해 초기정착지원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지속 확대하고, 청년농에 대한 비축농지임대, 컨설팅,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선진화

농수산물 수급·가격 등에 대한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한 실측조사 체계 및 스마트농업 정보플랫폼 구축 등으로 관측을 고도화한다. 채소가격안정제 적용 비중을 확대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적 수급관리기능도 강화한다.

지역단위의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기반을 조성한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해나간다.

◎ 농어촌지역의 활력 제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영농·생활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시설 개선 등 농업 생산기반 정비를 재해예방 중심으로 지속 투자해나간다. 어촌·어항의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개발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0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고도화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도 확대한다.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00,303	215,148	7.4
농업·농촌	149,143	160,705	7.8
수산·어촌	22,448	24,218	7.9
임업·산촌	21,743	22,831	5.0
식품업	6,970	7,394	6.1

7-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농업·농촌 부문

현행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한다. 스마트농업 혁신거점 조성, 청년농의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농업생산기반을 재해예방·안전 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농촌지역의 영농·생활여건도 지속 개선한다.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적용을 확대하여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인 농산물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한다.

☞ (2019년) 149,143억원 → (2020년) 160,705억원 (7.8% 증가)

현행 쌀 고정·변동, 밭농업, 친환경 등 6개의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한다(1.4조원 → 2.4조원). 품목별 지원 단가를 단일화하고 영농규모별 역진적 단가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직불금의 쌀 농가 및 대농 편중을 해결한다. 상호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수자원·토양·생태계 보호,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

원예, 축산 등 농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를 확대 조성(3개소 → 8개소)한다. 임대형(2개소), 수직형(8개소) 스마트팜의 보급 확산을 지원하고, ICT기자재의 국가표준화 보급,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신규 2개국)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경쟁력 있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500명 → 800명)한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도 확대(3,600명 → 4,800명)하고, 청년농에 대한 비축농지 임대, 컨설팅, 자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62개 → 67개)하고, 국가재보험금도 대폭 늘려 비상시를 대비한다.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50% → 70%)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사전검사(6,300호)를 실시하고, 광역방제기를 보급(20대)한다. 야생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양돈농가의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기간도 연장(최대 6개월 → 필요시 연장)한다.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영농·생활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고도화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확대(30개소 → 60개소)하고,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을 재해예방·안전 중심으로 정비한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고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한 실측조사 체계 및 스마트농업 정보플랫폼 구축 등으로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무, 배추, 고추,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 5종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적용 비중을 확대(전체 생산량의 10% → 15%)한다.

[표 7-2] 농업·농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 합 계 〉	149,143	160,705	7.8
농업직불제 개편	14,121	24,000	70.0
스마트팜 혁신밸리	686	817	19.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14	314	47.2
맞춤형농지지원	4,649	6,460	39.0
농업재해보험	3,260	4,794	47.0
가축전염병 대응	2,985	3,600	20.6
배수개선	2,568	3,088	20.3
농업관측	85	169	97.9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161	251	56.1

◎ 수산·어촌부문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어업인에 대한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수산자원 회복과 스마트양식 육성 등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체계 개선 및 가공·수출 인프라 확충 등 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2019년) 22,448억원 → (2020년) 24,218억원 (7.9% 증가)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실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190개소)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강화(접경지역 추가), 양식재해보험 확대 등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어촌정착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200명 → 210명)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어선감적을 확대(근해어선 19척 → 75척)하고, 바다숲,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일정기간 자율적 조업 중단 시 선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라 일본수역 외의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ICT·빅데이터 등 첨단양식 기술과 연관시설(유통·가공·사료 등)을 연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1개소 → 3개소)하고,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구축(1개소)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패류 생산해역 모니터링 강화, 안전센터 건립 등 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양식장에 액화산소 발생기 등 보급을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 위판장 실시간 거래시스템 구축(신규 3개소), 수산물 로컬푸드 입점(신규 6개소)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해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단지(신규 1개소)를 건립하고, 가공업체에 히트펌프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한다. 수출가공업체에서 어묵원료 등 원자재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용자 지원도 확대(1,181억원 → 1,324억원)한다.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혁신을 위해 산지거점 유통센터(1개소) 및 소비자 분산물류센터(2개소) 지속 확충하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4개소)도 지속 지원한다.

원양어업의 생산성 제고 및 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50억원 → 130억원) 지원한다.

[표 7-3] 수산 어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2,448	24,218	7.9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6,849	7,765	13.4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안전 강화	2,639	3,032	14.9
첨단양식 육성 및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3,538	3,557	0.5
어업인 삶의 질 향상	6,147	6,462	5.1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 활성화	279	416	49.4

◎ 식품업 부문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내 HMR 지원센터, 청년식품창업허브 등을 구축하여 농식품분야 벤처 및 청년일자리의 산실로 지속 육성한다. 농식품 수출시장을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별 수출통합·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청년키움식당, 공유주방 등을 지원하여 외식창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식품산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산농산물 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지원하고 기능성 원료은행을 구축하는 등 기능성식품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 (2019년) 6,970억원 → (2020년) 7,394억원 (6.1% 증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농식품분야 벤처 및 청년일자리의 산실로 지속 육성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본격화(90개 → 110개)하고, HMR(가정간편식) 지원센터, 청년식품창업허브를 신규 구축하는 등 공동장비·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시장을 넓히고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으로 미·중·일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품목별 수출통합·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제2의 파프리카를 발굴하고, K-Food Fair와 해외관측 사업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식품·외식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푸드페스타 개최 등 외식소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키움식당(5개소 → 7개소), 공유주방(신규 5개소)을 지원하여 외식창업을 활성화한다. 국내 식품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확대(100명 → 200명), 기업실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교육과정 개설(2개 대학) 등을 통해 식품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료소비 실태조사, 식품판로 지원 등으로 식품산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능성식품 등 미래형 식품을 개발·발굴한다. 기능성 농식품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보완·운영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기능성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산농산물 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지원하고 기능성 원료은행을 신규 구축하는 등 기능성식품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표 7-4]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6,970	7,394	6.1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14	392	83.5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76	81	6.9
수출인프라강화	431	445	3.3
푸드서비스 선진화	14	26	94.8
식품산업인프라강화	99	114	14.6
기능성식품산업육성	28	29	5.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3,386	3,529	4.2

◎ 임업 · 산촌 부문

지역별 특성과 기능을 고려 경제림 중심으로 산림자원을 육성·관리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낙후된 산촌을 매력적인 산촌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민적 수요를 고려 휴양림, 정원 등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숲과 나무의 고유 기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을 확대하고,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기반 등을 마련한다.

☞ (2019년) 21,240억원 → (2020년) 22,258억원 (4.8% 증가)

경제림 육성을 위해 경제수종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확대(22천ha → 25천ha)한다. 조림지 사후관리 등 산림자원 육성·관리에 필수적인 정책숲가꾸기 지원을 강화(91천ha → 185천ha)하고, 숲가꾸기패트를 운영은 대민 지원(주택, 전신주 등 위험목 제거) 효용성 등을 고려 지자체까지 확대(국가 135명 → 국가 135명, 지자체 540명) 추진한다.

목재 및 청정임산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업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을 확대(500억원 → 700억원)한다. 산림부산물 등을 활용한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위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2개소)을 신규 조성한다.

산촌 및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을 확대(35개소 → 45개소)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한다. 산림휴양수요 증가 등 국민적 요구를 고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3개소)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정원 운영지원을 확대(1개소 → 2개소)하고,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25개소), 스마트 가든볼 설치(336대) 및 정원센터 건립(1개소)을 신규 추진한다.

국가적 이슈인 미세먼지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도시 바람길숲 사업기간을 단축(4년 → 3년)하고, 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차단숲 조성을 확대(60ha → 93ha)한다.

강원도 대형산불 후속 조치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 교체(1대) 소요를 반영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1대) 및 비행안전정보수집장치(30대)를 신규 도입한다. 산불특수진화대 정규직 전환(160명), 산불예방진화대 고용 연장(5개월 → 6개월) 및 산불방지지원센터 설치(51개소) 등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국립 세종수목원은 잔여사업비 전액(212억원)을 반영하여 2020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권역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2018년 반영된 새만금수목원 3차년도 사업비 또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표 7-5]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1,743	22,831	5.0
조림	1,320	1,196	△9.4
숲가꾸기	1,841	1,977	7.4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500	700	40.0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402	1,513	376.5
산불방지대책	170	461	171.0
사방사업	1,523	1,402	△7.9

08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1.8% 증가한 9.0조원이다.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 상수도 관리, 폐기물 처리 전 과정 공공관리 강화 등 국민
생활안전·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였다.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35% 이상(16년 대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운전자, 사업장 등의
제도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화한다

◎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 물 공급 전과정 혁신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투자도 확대한다.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제품 제도이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불법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표 8-1]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73,972	90,129	21.8
물환경	39,463	40,913	3.7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13,808	27,096	96.2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6,708	8,172	21.8
자연환경 및 해양환경	9,254	9,301	5.1
환경 일반	4,739	4,64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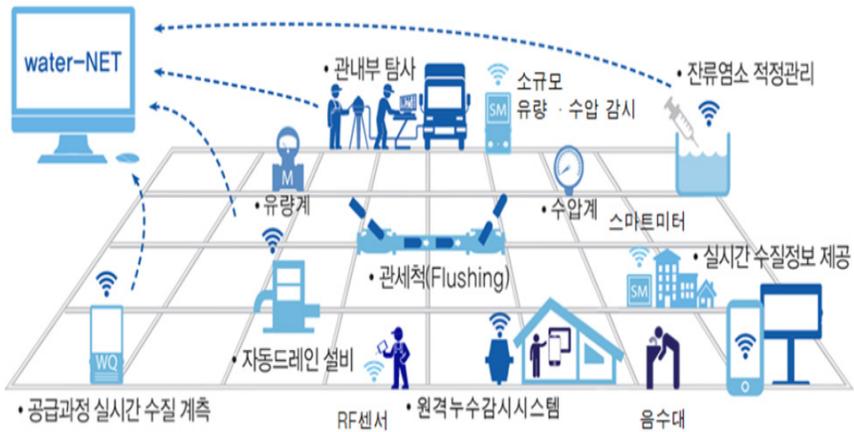
8-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물환경 부문

상하수도 보급률(2018년 기준 상수도 99.2%, 하수도 93.9%)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수질개선 기초시설 설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 물 복지 등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수돗물 적수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수돗물 불신의 주요 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도 확대 추진한다. 지방상수도에만 설치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아울러 도시침수와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상하수도 시설의 내진 보수·보강사업도 추진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유해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3,816	순증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	66	순증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	159	순증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	68	순증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326	537	64.8
산업폐수관리체계 선진화	39	79	102.6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저감 설비 지원을 확대('19년 182개소 → '20년 4,000개소)하고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3배 이상 확대('19년 1636억 → '20년 5,599억원)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의 LPG 차량 전환 지원도 대폭 확대('19년 2,272대 → '20년 6,000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아울러, 일반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구매 비용 지원을 확대(19년 3만대 → 35만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상향(5만대, 20만원 → 50만원)한다.

도시대기측정망 39개소를 신설하고(2019년 449개소 → 2020년 488개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2개소(강원권('19~'20), 충청내륙권('20~'21))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수소차와 충전소〉

대기질을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무공해차를 보급한다. (전기차 '19년 4.3만대 → '20년 7.3만대, 수소차 '19년 4천대 → '20년 10.2천대)

아울러,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견인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19년 1,200기 → '20년 1500기, 수소충전소 '19년 30개소 → '20년 40개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마련한 피해구제 특별계정(1,250억원)에 정부출연금을 19년 100억원에 이어 20년에도 60억원을 투입하는 등 피해구제 확대를 적극 실시한다.

화학물질·화학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 승인제도의 산업계 이행지원 투자를 확대한다.

'21년까지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업체별 年 1천톤 이상, 업체별 年 1톤 이상 CMR 물질)과 '22년까지 승인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살균제, 살충제 등)에 대하여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의 일제조사·검증을 확대('19 10억 → '20년 30억) 하고, 기존 유해성자료가 없는 물질 중 중소기업의 제조·수입물질은 정부에서 직접 유해성 정보를 확대 생산('19년 82억→'20년 310억)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물질 승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등록·승인을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전(全)과정 지원('19년 41억 → '20년 195억원)도 확대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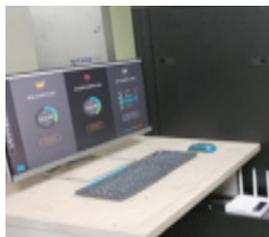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교체, 스마트 환기시설 설치 등에 615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처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창고·축소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



〈 공기질 측정기 〉



〈 제어 및 운영 시스템 〉



〈 미세먼지 저감장치 〉

[표 8-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대기개선 추진대책	2,574	9,686	276.3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16	215	85.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509	679	33.4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403	8,002	48.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421	3,495	146.0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200	615	207.8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394	671	70.4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328	545	65.9
화학제품안전관리	124	172	37.5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재활용 폐기물 공공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지자체 재활용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충(2019년 22개소 → 2020년 25개소)하고, 재활용 제품의 수량 및 가격의 급격한 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활용품 비축기지를 구축·운영하는 등 2020년에 약 291억원을 투자한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어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2020년 행정대집행 예산 338억원을 지원하며,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지역별로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총 137억원(2019년 22억원)을 투자한다.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진출 밀착지원, 미래환경산업 펀드 본격 운영을 통하여 환경산업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산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환경산업 수출확대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우수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미세먼지 혁신설비, 자원순환 혁신설비 보급확대 등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전문인력 및 통합환경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매체별(수질, 대기, 폐기물 등) 분산관리 체계를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매체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기반하에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표 8-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124	197	58.5
재활용품 비축사업	-	94	순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22	137	533.8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2	13	612.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49	254	415.8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28	254	825.2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130	200	53.8
환경산업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15	34	120.4

◎ 자연환경 부문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습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생태계 연속성 및 생태적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



〈 국립공원 체류시설 〉

국립공원 저지대 체류인프라 확대(205개소) 및 드론앰블런스 도입(32대) 등을 통해 국립공원을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SF 등 야생동물질병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예산을 확대(87억원 증액)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사업이 환경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3D)으로 예측·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표 8-5] 자연환경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습지보전관리	86	165	91.9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74	103	39.6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154	1,409	22.1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130	284	119.3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R&D)	-	20	순증

09 국방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0.2조원으로 2019년 46.7조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국방비 50조원을 돌파하였다.

최근 커져가는 쉰 방위적 안보위협 및 불확실한 對外 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무기체계 보강과 장병 복지 향상 등 국방개혁 2.0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차세대 잠수함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국내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R&D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06년 이후 최고 수준인 33%로 확대하였다

◎ 군 구조의 정예화 및 전력운영의 혁신

군 전력의 역량 발휘 보장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첨단무기 후속 군수 지원강화 및 과학화 교육훈련 확대 등에 투자하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국방운영을 위해 장병 기본 복지 개선, 장병안전 및 지역 상생 가치 실현 등에 집중 투자하고, 첨단기술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을 위해 국방인력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였다

◎ 잠재적 위협 대비 핵심 무기체계 투자 확대

현존 또는 잠재적 핵·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WMD 대응전력을 중심으로 2020년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33.3%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핵·WMD 대응 체계는 적의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표적타격, 적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적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여 적의 지휘·통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20년도 자주국방능력 강화를 위해 27개의 신규, 필수전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대표적인 지상전력으로 120mm자주박격포, 경기관총-II 등이 있으며, 해상전력으로는 구축함(KDDX), 검독수리-B Batch-II, 고속전투주정 등을 추가 확보하고, 공중전 지원을 위한 장거리레이더,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등을 신규로 투자한다. 더불어,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제품을 소요군에 신속히 도입하여 안보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KF-X), 군정찰위성사업 등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전년 대비 21.4%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9-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전력운영 부문

병 감축에 따른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군 육성 및 봉급·급식·피복 등 튼튼한 국방·안보태세의 기초가 되는 병 기본 복지를 대폭 개선한다.

☞ 전력운영비 : (2019년) 31.3조원 → (2020년) 33.5조원 (6.9% 증가)

1)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군 육성

병영자원 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국방운영 시스템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병력은 감축되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스마트 군으로 육성한다.

특히, 첨단장비운영에 적합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정원구조를 개선하고 병력 감소 자원을 간부·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여 전투력 강화하고, 비전투부대는 민간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군무원, 부사관 4,795명 증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화 실전 기동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군단·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하고 가상·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전장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모의훈련체계를 확대한다.(개인전투체계 장비(위리위플랫폼) 4천명 → 1.9만명 확대(361억원), 소대급 마일즈장비 9식 → 21식 확대(345억원))

2) 튼튼한 안보태세의 기초가 되는 병 복지 개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며(2020년 병장기준, 월 40.6만원 → 월 54.1만원), 숲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연 5만원 → 10만원) 등 전역 후 사회적응 지원 등 장병 자기개발 지원으로 미래 준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한다.

간부 복지 증진을 위해 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공을 위해 간부숙소를 조기 확보하여 초급간부 주거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19년 862억원 → '20년 1,242억원)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의료비 개인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장병의 진료 여건을 증진한다.

[표 9-1] 전력운영비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313,238	334,723	6.9
급여정책	136,459	145,906	6.9
군인·공무원 연금 기금 전출금	29,405	30,213	2.7
급식 및 피복	21,894	22,482	2.7
군수지원 및 협력	53,311	57,353	7.6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34,397	38,879	13.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1,161	11,843	6.1
국방행정지원	7,820	7,309	△6.5
군인사 및 교육훈련	6,122	7,015	14.6
국방정보화	5,027	5,640	12.2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3,711	4,125	11.2
예비전력관리	1,703	2,067	21.4
책임운영기관	2,226	1,891	△15.1

제2부

3장 분야별 투자계획

◎ 방위력개선 부문

전방위 안보위협 및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WMD 대응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기체계 국산화 및 핵심기술개발 등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방위력 개선 : (2019년) 15.4조원 → (2020년) 16.7조원 (8.5% 증가)

북한 및 주변국의 전방위 위협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F-35A, 군정찰 위성, 장보고-III 잠수함, 광개토-III 이지스함,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 핵·WMD 대응전력에 중점 투자(2019년 5.1조원 → 2020년 6.2조원)하고, 230mm급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군위성통신체계 등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핵심 군사능력도 강화해 나간다. (2019년 1.8조원 → 2020년 2.0조원)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변화하는 작전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K-2전차, 한국형 전투기(KF-X), 한국형 기동헬기, 울산급 호위함, 보병용중거리 유도무기 등 군구조개편 관련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위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원천·핵심 기술 확보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21.4%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방위력의 고도화·지능화를 촉진하는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국방벤처기업 지원 등 방산육성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방위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무기체계 투자 확대와 더불어, 무기체계 도입 시 철저한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지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9-2]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53,733	166,804	8.5
무기체계 양산 및 도입	120,983	126,826	4.8
국방 R&D 투자	32,285	39,191	21.4
방위산업 육성	465	787	69.2



〈 F-35A 〉



〈 광개토-Ⅲ 〉



〈 230mm급다련장 〉

10 외교·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5조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2020년은 주요 외교정책 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제고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및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둔다

◎ 외교전략·정책기획 역량 강화 및 영사조력법 시행 준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신남방 신북방정책 추진, 주변국 및 신흥국과의 협력 내실화를 비롯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미중갈등)의 체계적 예측·분석 및 대응책 모색으로 외교전략과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영사조력법 시행(2021.1.16. 예정) 준비를 위해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의 대국민 접근성과 편리성 제고 및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 지원 확대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활동 지원 확대, 한국주간 행사 등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추진, 친한(親韓) 외국인 네트워크 확충 등 문화, 지식, 정책 등 3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여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확대하여 개도국과의 동반협력기반 조성

반세기만에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UN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2016~2030)'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보건, 농업,

산업 등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ODA 융합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으며, 개발협력 분야 인적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및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

정부는 한반도 평화발전과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남북간 철도도로 교통망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등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 체험 및 공동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담론과 지지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가족상봉, 사회문화교류지속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1]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50,648	55,092	8.8
외교·통상 부문	37,026	40,505	9.4
통일 부문	13,621	14,587	7.1

10-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외교·통상 부문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 등 외교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지원을 위해 외교통상 부문은 4조505억원으로 편성한다.

☞ 외교통상부문 총지출: ('19년) 37,026 → ('20년) 40,505억원 (+9.4%)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등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 국가들과 전방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신남방외교강화' 예산을 추가 증액(1.5억)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과 특히 역내 고속성장 지역인 메콩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 지원을 확대(22→35억원)한다.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일본 내 우호적인 여론 조성 및 일본 국민의 친한(親韓) 인식 제고를 위해 일본 주재 공관에서의 아웃리치 및 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12→45억원)

해외에 방문·체류·거주 중인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데이터 통신(카카오톡 문자상담 및 상담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119→191억원)한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154→236억원)을 확대하여 K-Pop, 태권도 등 한류를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공공외교와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산하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지식공공외교, 외국의 여론주도층 대상 정책세미나 개최 등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전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공공외교 한국주간행사(Korea Week)〉



〈정책공공외교 컨퍼런스〉

우호친선 증진 및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교 기념 주요 외교계기에 국제사회에서 문화 정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외교행사를 추진 (30→40억원)한다.

또한, 한국학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의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 대학(원)생, 학자, 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교육과 연구 지원을 확대(150→161억원)한다.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및 국민 참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외교역량을 결집, 국민 중심·국익 중심의 외교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5→9억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국민외교 사업을 실시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분야는 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ODA 분절화(fragmentation) 해소 등을 위해 융합예산의 적극적인 기획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원국에 ODA를 집중 지원한다.

우선, ODA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부처가 협업·연계하는 ODA 융합프로그램(예: 기재부는 국립의대병원 건립 + 복지부는 병원 운영 및 관리 컨설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17개 부처 70개 프로그램, 2,733억원)하여, 부처 간 분절화를 해소하고, ODA 사업효과성을 제고한다.

한편, 개도국과의 동반 경제협력 및 무역다변화 기반조성을 위해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신규,16억원), 몽골 지역난방시스템 개선사업(신규,603억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신규,5억원),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및 운영사업(신규,7억원)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유·무상 ODA를 집중 확대한다.

개발협력분야 인적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도 추진한다. 청년·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국내 비정부부문(시민사회, 학계, NGO 등)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등 개발협력을 통한 ODA 생태계 육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① 청년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②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파견, ③ 장기 해외봉사단 확대 및 ④ KOICA 사업의 경력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여 개발협력분야 청년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 〉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

지속 증가하고 있는 영사 민원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재외공관 영사서비스(민원) 담당 영사를 13명 증원하고, 재외공관 사증심사 보조 행정직원을 16명 증원(112명 → 128명)함으로써 신속한 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인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재외동포 지원과 관련, 인권과 복지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동포들을 위한 인권지원 사업(5억원 → 17억원)을 확대 추진하며,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을 위한 모국연수 사업(1,500 → 2,000명) 등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표 10-2] 외교·통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외교통상 부문	37,026	40,505	9.4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35	82	133.0
공공외교 역량강화	154	236	53.3
재외국민 보호	119	191	61.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1,756	12,320	4.8

◎ 통일 부문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및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 등을 위해 통일부문 총지출은 1조 4,587억원으로 편성한다.

- ☞ 통일부문 총지출 : (2019년) 13,621억원 → (2020년) 14,587억원
- ☞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 (2019년) 11,063억원 → (2020년) 12,056억원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을 위하여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4,289 → 4,890억원)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와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한반도의 경제권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126 → 261억원)을 추진하여 접경지역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이용하고 국민이 평화를 체감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 수자원 및 생태환경 조사(신규 94억원),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10 → 12억원), 편문점 견학 확대(신규 17억원) 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평화경제 구현 등 평화통일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10 → 16억원)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반 구축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16 → 21억원)을 확대한다

최근 식량난이 심각한 북한에 대한 쌀지원을 확대(10 → 20만톤)하고, 이산가족 상봉 및

유전자 검사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20년 하계올림픽 공동진출(신규 17억원), 문화재 공동발굴 조사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확대(205→224억원)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표 10-3]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통일 부문	13,621	14,587	7.1
남북경협인프라 구축	4,289	4,890	14.0
DMZ 및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126	261	106.5
사회문화교류지원	205	224	8.9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20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0.8조원으로 2019년 20.1조원보다 3.5% 증가하였다. 2020년 예산은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하였다.

◎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대형·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여 풍수해, 가뭄 등 피해예방을 위해 재해발생 위험지역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산재감소, 자살예방)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인력과 헬기를 확충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전국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연안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상 수색 및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경 함정 및 대형헬기 등 장비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범죄예방 활동 및 치안역량 강화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12시스템 재구축 및 112 상황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주변의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여성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의경 단계적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경찰인력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해안경계부대 과학화 및 경찰관서 방호체계 보안을 위한 재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아동학대 전담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예산을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교정기관 신축·이전과 함께, 유희시설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확대 등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수용 및 교정시설 노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수형자 처우의 중점을 기존의 구금에서 출소 취업지원 강화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 확대, 교도작업장 확충 및 작업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01,317	208,371	3.5
법원 및 헌재	20,652	21,660	4.9
법무 및 검찰	40,615	40,737	0.3
경찰	113,558	120,206	5.9
해양경찰	13,845	15,238	10.1
재난관리	12,647	10,529	△16.7

1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어디서나 등기업무를 할 수 있는 미래등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근조정담당변호사를 대폭 증원하여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한다.

-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 (2019년) → (2020년) 100억원(순증)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 (2019년) → (2020년) 131억원(순증)
- 조정제도 지원 : (2019년) 99억원 → (2020년) 117억원

대법원은 노후화된 전자소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업무를 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분쟁해결기능 강화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근조정담당변호사를 대폭 증원(9명 → 24명)하는 등 분쟁당사자들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

헌법재판소는 증축동 공사 완료('20년 2월)에 따른 시설 재배치를 위해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무자력자 등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속 지원하여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20,652	21,660	4.9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	100	순증	전자소송시스템 고도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	131	순증	등기시스템 고도화
조정제도 지원	99	117	18	상근조정담당변호사 확대
현재 재판활동운영지원	7	6	△14	특수업무경비 절감
현재 본부운영지원	50	68	36	본관 리모델링, 노후 창호 개선

◎ 법무 및 검찰부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지원으로 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2019년) 196억원 → (2020년) 234억원
-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 (2019년) 74억원 → (2020년) 166억원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2019년) 56억원 → (2020년) 65억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보호시설(32개소→34개소), 해바라기센터(39개소→40개소)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68개소→71개소) 등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범죄피해자 전문 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를 확충(14개소→16개소)하는 한편, 마을변호사 및 법률상담터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조속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교정시설 노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정시설 신축과 함께 유희·노후시설 11개소의 리모델링(74억원→166억원)을 별도로 추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용자 건강보험부담금(142억원→167억원) 및 교정시설 공공요금 현실화(688억원→768억원) 등을 통해 수용자 처우도 개선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신장해 나간다.

또한, 수형자 처우의 중점을 기존의 구금에서 출소 취업지원 강화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 확대(6,000명→6,500명) 및 교도작업장 확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교도작업에 따른 작업장려금(216→229억원)을 인상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3]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40,615	40,737	0.3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225	226	0.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확충 등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96	234	19.1	스마일센터 신축(제주, 전남)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56	65	14.9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수당 확대 등
교정시설 장비운용및 현대화	659	704	6.8	과밀수용 해소 위한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057	2,202	7.0	건강보험 부담금 및 교정시설 공공요금 현실화
교도작업	535	549	2.6	작업장려금 인상

◎ 경찰 부문

생활주변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여성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112시스템 재구축 등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 인프라를 더욱 확충한다.

- ☞ 노후 112시스템 교체 및 통제관제 상황판 교체 등 : (2020년) 126억원(신규)
- ☞ 해안경계부대과학화 : (2019년) 139억원 → (2020년) 257억원(+84.9%)

경찰관 증원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3,991명 인력증원을 추진한다. 증원된 인력은 의경 대체 경찰관 충원과 민생치안 현장에 배치되어 치안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관 인력증원 외에도 해안경계부대 과학화 및 경찰관서 출입통제 시설 구축 등 의경감축으로 인한 치안 공백 예방을 지원한다.

여성범죄인프라 구축 확대 등 공동체·수요자 중심의 예방치안을 활성화하고, 112시스템 장비 교체 및 112상황요원 전문성 향상 등 긴급상황에 대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112시스템 및 상황관제 교체 등(126억원, 신규)]



또한,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국·내외적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한 첨단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지원과 불법도청 및 드론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한다.

경찰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및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현장경찰관 부상방지를 위한 신체보호·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표 11-4]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13,558	120,206	5.9	
의경대체지원	467	637	36.4	제주해안경계부대 과학화
경무인사지원	17	88	417.6	경찰관서 출입통제시설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57	195	24.2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범죄대응역량강화	148	280	89.2	112시스템 및 상황판 교체
경찰복지증진	335	474	41.5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경찰관 피복비	503	541	7.5	방검외근조끼·토시·장갑 등

◎ 해양경찰부문

함정 사용연수 증가로 노후 함정이 많은 상황을 반영하여 노후 함정 교체, 정비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양 인명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 지원한다.

- ☞ 함정건조 : (2019년) 1,215억원 → (2020년) 1,654억원
- ☞ VTS 구축운영 : (2019년) 211억원 → (2020년) 303억원
- ☞ 수색구조역량강화 : (2019년) 51억원 → (2020년) 86억원

해경 함정들의 사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함정 교체 및 정비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 안전검사비(+1억원)도 신규로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서해와 남해에 배치 중인 함정의 정비를 위한 서부정비창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통행량이 많은 연안지역의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서귀포 연안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영흥수도와 포항구항 등 레이다 사각지역에 레이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노후 레이다 교체 등도 적극 지원한다.

해상 차량추락 사고 및 선박전복 등 해양사고시 초동조치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 잠수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전국 70개 해경 파출소 및 중·소형 함정 172척에 764명의 연안초동 잠수요원을 양성·배치할 계획이다.

해경 파출소 구조대원이 즉각 출동할수 있도록 20년에도 신형 연안구조정 12척을 추가로 도입하고 연안구조정 전용 정박시설도 2019년 52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행이 가능하고, 일반헬기에 비해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대형헬기 1대도 제주권에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초동잠수요원 훈련 모습〉



〈대형헬기(탑승인원 21명)〉

[표 11-5] 해양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3,845	15,238	10.1	
함정건조	1,215	1,654	36.1	함정 10척 및 고속단정 18척 교체
함정계획정비	283	340	20.1	함정수 증가반영
서부정비창	28	82	192.9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반영
VTS구축운영	211	303	43.6	제주·서귀포 연안 VTS 신규설치
수색구조역량강화	51	86	68.6	파출소 70개, 중소형 함정 172척에 대해 초동잠수요원 764명 양성·배치
항공기 도입	218	315	44.5	제주권 대형헬기 1대 신규도입

◎ 재난관리부문

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을 지속 정비하고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 (2019년) 4,512억원 → (2020년) 5,060억원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을 2배 확대(25 → 50%)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한다.

☞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 (2019년) 9억원 → (2020년) 64억원

권역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헬기·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 대형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소방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수도권대,영남대) : ('19) 15 → ('20년) 161억원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 : ('19) 30 → ('20년) 127억원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 (신규 23억원)

최근 이상 기후로 여름철 평균 강수량과 국지성 호우빈도가 증가 추세로서 방재시설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재해도 빈발하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 침수, 붕괴 등 재해위험지역을 중점 정비하고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후적 피해 복구 소요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548억원)

특히, 재해예방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사업 단위'에서 '마을 단위종합정비'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상가, 공장, 재고자산 등에 대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19년 37개 시군구에서 '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년부터 보험료 국고 지원을 2배 인상(25% → 50%)한다.

대형·복합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4개 중앙119특수구조대와 7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장비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 중형 소방헬기 2대(+138억) 및 최근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헬기 도입(+144억)을 즉시 추진하고, 울산 화학센터에 초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단시간에 진압할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83억)하여 권역별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자주 겪게 되는 화상, 트라우마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신규 23억)

[표 11-6] 재난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사 업	2019년 (a)	2020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2,647	10,529	△16.7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4,512	5,060	12.2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9	64	611.1	풍수해보험료 국비지원 2배 확대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수도권대, 영남대)	15	161	978.9	독도 사고헬기 대체보강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 장비지원	30	127	325.9	대용량포 방사시스템1년차 사업비 83억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	23	신규	1년차 기본설계비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20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9.0조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 지원, 과거사 정리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52.2조원) 및 지방채 인수를 지속 지원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정비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병행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총 3.0조원 발행 대상)하며, 마을기업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도 투자를 확대한다.

◎ 정부혁신·사회혁신을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미세먼지, 학교 안전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공모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이버 안전을 지속 강화한다.

◎ 과거사 정리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 구현

2.28, 5.18 등 민주화 운동 10주기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기념시설을 건립 보강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전문적 치유를 위한 치유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을 지속한다.

◎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국회 인턴 재직기간 연장, 의정활동지원비 증액, 전자도서관 DB구축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회의 정책 역량 및 정보경쟁력을 강화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운영, 노후화된 선거장비 교체 등을 지원한다.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수출·투자 지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초위험국가사업에 대한 수출금융 출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위한 정책금융 출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표 12-1]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765,597	790,129	3.2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 제외시)	532,631 (8,013)	537,039 (14,970)	0.8 (86.8)
재정·금융	183,262	195,829	6.9
입법 및 선거관리	10,289	14,184	37.9
정부지원관리	8,425	8,702	3.3
국정운영	5,861	6,125	4.5
일반행정	25,128	28,249	12.4

1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2019년) 532,631억원 → (2020년) 537,039억원 (0.8% 증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세(52.2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지방채 인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2019년 0.1조원 → 2020년 0.7조원)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새로운 세원 발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총 3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에 대해 발행비용 4%를 신규 지원(2020년 721억원)함으로써 지역내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및 지역경기 진작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마을기업 육성 판로개척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9년 210개 → 2020년 405개)

[표 12-2]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532,631	537,039	0.8
지방교부세	524,618	522,068	△0.5
지방채 인수	1,000	7,000	60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721	순증

◎ 정부자원관리 부문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을 통해 정부혁신 및 사회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 (2019년) 8,425억원 → (2020년) 8,702억원(3.3%증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및 사회혁신도 강화한다.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공모형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20년 16억원). 또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19년 4개소 → '20년 5개소)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민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디지털 정부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개개인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을 안내받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위해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19년 2.1만개 → '20년 4.9만개) 아울러, 이미지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 노출을 탐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이버안전을 강화한다.

[표 12-3]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8,425	8,702	3.3
전자정부지원	869	1,076	23.8
국민공모형 사회문제 해결	-	16	순증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구축	-	53	순증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335	363	8.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73	90	22.8

◎ 일반행정 부문

과거사 정리·기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국가를 구현하고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등을 지원한다.

☞ 일반행정부문: (2019년) 25,128억원 → (2020년) 28,249억원(12.4%증가)

2020년도 일반행정부문 총지출은 28,249억원으로 2019년도보다 3,12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2.28, 3.15, 5.18 등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사업 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대일할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봉환 및 조사 지역도 기존의 사할린 태평양 지역 외에 일본 지역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광주, 제주)를 운영하여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인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청사 등의 유지 관리, 내진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4]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25,128	28,249	12.4
정부청사 시설 관리	1,803	1,896	5.1
과거사 관련 지원	397	512	29.0
인구주택총조사	320	961	200.0
농림어업총조사	16	305	1,806.0

◎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추진한다.

☞ (2019년) 10,289억원 → (2020년) 14,184억원 (37.9% 증가)

법안소위 복수화 및 정례화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확충(2019년 402억원 → 2020년 417억원)하고, 제21대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정활동 인프라를 개선하며(2020년 26억원),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사업을 확대(2019년 66억원 → 2020년 141억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전자도서관 구현을 통해 국회의 정책역량과 정보경쟁력을 강화한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투개표 사무관리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유권자 투표편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실시를 위해 재외선거 특성에 맞는 위법행위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외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실현한다.

[표 12-5]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0,289	14,184	37.9
입법활동지원	402	417	3.7
국회의원선거관리	17	2,267	13,269.4
재외선거관리	47	84	80.4

◎ 재정·금융 부문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업 수출·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부문에 19조 5,829억원을 편성하였다.

☞ (2019년) 183,262억원 → (2020년) 195,829억원(6.9%증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2019년 696억원 → 2020년 1,215억원)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불법 대부추심업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한다. (2020년 12억원, 약 4,200명)

초고위험국가 사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1,600억원을 출자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산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4,50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2020년 93억원)하고,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인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비용을 지원(2019년 40개사, 79억원 → 2020년 100개사, 199억원)한다. 아울러 동산담보 활성화하여 창업 벤처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억원을 출자한다.

[표 12-6] 재정·금융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a)
합 계	183,262	195,829	6.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696	1,215	74.5
정책금융기관 출자(산은, 수은)	5,000	6,105	22.1
핀테크 지원 사업	79	199	151.7
동산담보회수지원	-	400	순증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0

3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20년도 예산

제2장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제 1 장

2020년도 예산

01. 2020년도 예산총칙
02. 일반회계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04. 계속비
05. 명시이월비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01 2020년도 예산 총칙



■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56,568,643,739,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995,945,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816,982,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32,466,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7,177,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36,333,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391,305,000,000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2,511,000,000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577,000,000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679,000,000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40,638,000,000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26,557,00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2,291,000,000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2,960,000,000원
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520,448,000,000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031,608,000,000원
⑰ 양곡관리특별회계	2,106,505,000,000원
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82,680,000,000원
⑲ 조달특별회계	406,294,000,000원
⑳ 우편사업특별회계	4,637,333,000,000원
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64,437,000,000원

- 제2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2020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제5조 2020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 제6조 202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8조 2020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 제9조 2020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31,6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 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7,261,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4,000,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16,079,000,000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73,240,000,000원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07,313,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07,828,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761,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41,696,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607,261,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2,165,000,000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0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49,04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구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본예산 FY 2019 Main Budget		2019년도 추경예산 FY 2019 Supplementary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내국세 (Internal Taxes)	255,630,400	77.0	255,630,400	76.4
2. 관세 (Customs Duties)	9,055,700	2.7	9,055,700	2.7
3.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4,776,600	4.5	14,776,600	4.4
4. 교육세 (Educational Tax)	4,864,800	1.5	4,864,800	1.5
5.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2,849,400	0.9	2,849,400	0.9
6.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44,600,115	13.4	47,482,935	14.2
· 국채발행 (Borrowing from Bonds)	33,814,940	10.2	36,333,577	10.9
· 기타수입 (Others)	10,785,175	3.3	11,149,358	3.3
합계 (Total)	331,777,015	100.0	334,659,835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51,088,520	70.4	△4,541,880	△1.8	△4,541,880	△1.8
8,791,160	2.5	△264,540	△2.9	△264,540	△2.9
15,727,270	4.4	950,670	6.4	950,670	6.4
5,189,430	1.5	324,630	6.7	324,630	6.7
3,320,970	0.9	471,570	16.5	471,570	16.5
72,451,294	20.3	27,851,179	62.4	24,968,359	52.6
60,288,402	16.9	26,473,462	78.3	23,954,825	65.9
12,162,892	3.4	1,377,717	12.8	1,013,534	9.1
356,568,644	100.0	24,791,629	7.5	21,908,809	6.5

구 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본예산 FY 2019 Main Budget
1. 국세 (Tax Total)	287,176,9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255,630,400
나. 관세 (Customs Duties)	9,055,7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4,776,6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4,864,8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2,849,4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44,600,115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2,986,581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670,558
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860,832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342,466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68,595
바.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2,694
사.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27,768
아. 전년도이월금 (Carry over from previous year)	0
자.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34,640,621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Floatation)	(33,814,940)
합계 (Total)	331,777,01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9년도 추경예산 FY 2019 Supplementary Budget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본예산 대비 증 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287,176,900	284,117,350	△3,059,550	△1.1	△3,059,550	△1.1
255,630,400	251,088,520	△4,541,880	△1.8	△4,541,880	△1.8
9,055,700	8,791,160	△264,540	△2.9	△264,540	△2.9
14,776,600	15,727,270	950,670	6.4	950,670	6.4
4,864,800	5,189,430	324,630	6.7	324,630	6.7
2,849,400	3,320,970	471,570	16.5	471,570	16.5
47,482,935	72,451,294	27,851,179	62.4	24,968,359	52.6
3,287,881	3,989,838	1,003,257	33.6	701,957	21.3
5,670,558	6,375,534	704,976	12.4	704,976	12.4
860,832	889,123	28,291	3.3	28,291	3.3
342,466	378,337	35,871	10.5	35,871	10.5
68,595	98,272	29,677	43.3	29,677	43.3
2,694	3,121	427	15.9	427	15.9
27,768	0	△27,768	△100.0	△27,768	△100.0
62,883	0	0	0	△62,883	△100.0
37,159,258	60,717,068	26,076,447	75.3	23,557,810	63.4
(36,333,577)	(60,288,402)	(26,473,462)	(78.3)	(23,954,825)	(65.9)
334,659,835	356,568,644	24,791,629	7.5	21,908,809	6.5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구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가. 내국세(Internal Taxes)	255,630,400
(1) 소득세(Income Tax)	80,367,800
(가) 신고분(Not Withheld Income Tax)	31,958,000
(나) 원천분(Withheld Income Tax)	48,409,800
(2) 법인세(Corporation Tax)	79,250,100
(3) 상속세(Inheritance Tax)	7,227,900
(가) 상속세(Inheritance Tax)	2,708,500
(나) 증여세(Gift Tax)	4,519,400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68,751,900
(5) 개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10,299,500
(6) 증권거래세(Security Transaction Tax)	4,533,900
(7) 인지세(Stamp Tax)	943,900
(8) 기타내국세(Other Internal Tax)	4,255,400
나. 관세(Customs Duties)	9,055,7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4,776,600
라. 교육세(Educational Tax)	4,864,800
마.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2,849,400
합계(Total)	287,176,9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51,088,520	△4,541,880	△1.8
88,417,840	8,050,040	10.0
34,170,710	2,212,710	6.9
54,247,130	5,837,330	12.1
64,419,010	△14,831,090	△18.7
8,307,340	1,079,440	14.9
2,917,015	208,515	7.7
5,390,325	870,925	19.3
68,870,980	119,080	0.2
10,227,880	△71,620	△0.7
4,384,770	△149,130	△3.3
1,052,330	108,430	11.5
5,408,370	1,152,970	27.1
8,791,160	△264,540	△2.9
15,727,270	950,670	6.4
5,189,430	324,630	6.7
3,320,970	471,570	16.5
284,117,350	△3,059,550	△1.1

다. 소관별 세입예산(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4,000	0	0	94,000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	123,000	0	0	123,000
(03) 국회 (National Assembly)	2,601,000	0	0	2,601,000
(04) 대법원 (Supreme Court)	600,795,000	0	0	600,795,000
(05)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26,000	0	0	26,000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838,000	0	0	838,000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5,000	0	0	5,000
(0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475,000	0	0	475,000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2,439,000	0	0	22,439,000
(11) 기획재정부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90,547,711,900	33,814,940,000	0	324,362,651,900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255,630,400,000	0	0	255,630,400,000
② 관세 (Customs Duties)	9,055,700,000	0	0	9,055,700,000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4,776,600,000	0	0	14,776,600,000
④ 교육세 (Education Tax)	4,864,800,000	0	0	4,864,800,000
⑤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2,849,400,000	0	0	2,849,400,0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3,370,811,900	33,814,940,000	0	37,185,751,900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106,000	0	0	201,106,000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58,523,000	0	0	358,523,000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66,734,000	0	0	266,734,000
(15)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2,811,000	0	0	2,811,000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614,363,000	0	0	1,614,363,000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24,949,000	0	0	224,949,000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55,524,000	0	0	55,524,000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56,687,000	0	0	56,687,000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0,000	0	0	20,130,000
(2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159,986,000	0	0	159,986,000
(22)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472,273,000	0	0	472,273,000

(단위 : 천원)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43,000	0	0	243,000	149,000	0	0	149,000
75,370	0	0	75,370	△47,630	0	0	△47,630
3,406,000	0	0	3,406,000	805,000	0	0	805,000
610,088,000	0	0	610,088,000	9,293,000	0	0	9,293,000
183,000	0	0	183,000	157,000	0	0	157,000
10,465,000	0	0	10,465,000	9,627,000	0	0	9,627,000
6,000	0	0	6,000	1,000	0	0	1,000
475,000	0	0	475,000	0	0	0	0
12,439,000	0	0	12,439,000	△10,000,000	0	0	△10,000,000
288,149,892,369	60,288,402,000	0	348,438,294,369	△2,397,819,531	26,473,462,000	0	24,075,642,469
251,088,520,000	0	0	251,088,520,000	△4,541,880,000	0	0	△4,541,880,000
8,791,160,000	0	0	8,791,160,000	△264,540,000	0	0	△264,540,000
15,727,270,000	0	0	15,727,270,000	950,670,000	0	0	950,670,000
5,189,430,000	0	0	5,189,430,000	324,630,000	0	0	324,630,000
3,320,970,000	0	0	3,320,970,000	471,570,000	0	0	471,570,000
4,032,542,369	60,288,402,000	0	64,320,944,369	661,730,469	26,473,462,000	0	27,135,192,469
191,202,000	0	0	191,202,000	△9,904,000	0	0	△9,904,000
326,541,000	0	0	326,541,000	△31,982,000	0	0	△31,982,000
283,734,000	0	0	283,734,000	17,000,000	0	0	17,000,000
2,724,000	0	0	2,724,000	△87,000	0	0	△87,000
1,623,473,000	0	0	1,623,473,000	9,110,000	0	0	9,110,000
245,584,000	0	0	245,584,000	20,635,000	0	0	20,635,000
58,524,000	0	0	58,524,000	3,000,000	0	0	3,000,000
58,669,000	0	0	58,669,000	1,982,000	0	0	1,982,000
20,507,000	0	0	20,507,000	377,000	0	0	377,000
217,299,000	0	0	217,299,000	57,313,000	0	0	57,313,000
500,218,000	0	0	500,218,000	27,945,000	0	0	27,945,000

소 관 Agency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3)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800,000	0	0	800,000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85,961,000	0	0	85,961,000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8,094,000	0	0	8,094,000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62,954,000	0	0	162,954,000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67,419,000	0	0	67,419,000
(28)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4,765,000	0	0	64,765,000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7,948,000	0	0	7,948,000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59,280,000	0	0	59,280,000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4,692,000	0	0	24,692,000
(33)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7,000	0	0	17,000
(3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2,267,000	0	0	32,267,000
(35)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424,754,000	0	0	424,754,000
(36)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8,751,000	0	0	38,751,000
(37)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141,000	0	0	1,141,000
(38)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418,000	0	0	1,418,000
(39) 국세청 (National Tax Adm.)	924,936,000	0	0	924,936,000
(40) 관세청 (Customs Service)	132,033,000	0	0	132,033,000
(42) 통계청 (Statistics Korea)	3,256,000	0	0	3,256,000
(43)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206,000	0	0	206,000
(44)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59,407,000	0	0	259,407,000
(45)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882,507,000	0	0	882,507,000
(46)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2,537,000	0	0	2,537,000
(47)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41,859,000	0	0	41,859,000
(48)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9,451,000	0	0	9,451,000
(49)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89,400,000	0	0	89,400,000
(51)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22,036,000	0	0	22,036,000
(53)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Agency)	1,094,000	0	0	1,094,000
(54)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4,898,000	0	0	4,898,000
합계(Total)	297,962,074,900	33,814,940,000	0	331,777,014,900

(단위 : 천원)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816,000	0	0	816,000	16,000	0	0	16,000
85,961,000	0	0	85,961,000	0	0	0	0
10,327,000	0	0	10,327,000	2,233,000	0	0	2,233,000
167,244,000	0	0	167,244,000	4,290,000	0	0	4,290,000
51,306,000	0	0	51,306,000	△16,113,000	0	0	△16,113,000
101,239,000	0	0	101,239,000	36,474,000	0	0	36,474,000
8,277,000	0	0	8,277,000	329,000	0	0	329,000
48,846,000	0	0	48,846,000	△10,434,000	0	0	△10,434,000
32,437,000	0	0	32,437,000	7,745,000	0	0	7,745,000
12,000	0	0	12,000	△5,000	0	0	△5,000
42,288,000	0	0	42,288,000	10,021,000	0	0	10,021,000
425,320,000	0	0	425,320,000	566,000	0	0	566,000
354,191,000	0	0	354,191,000	315,440,000	0	0	315,440,000
471,000	0	0	471,000	△670,000	0	0	△670,000
1,512,000	0	0	1,512,000	94,000	0	0	94,000
871,632,000	0	0	871,632,000	△53,304,000	0	0	△53,304,000
143,823,000	0	0	143,823,000	11,790,000	0	0	11,790,000
5,126,000	0	0	5,126,000	1,870,000	0	0	1,870,000
216,000	0	0	216,000	10,000	0	0	10,000
571,606,000	0	0	571,606,000	312,199,000	0	0	312,199,000
869,665,000	0	0	869,665,000	△12,842,000	0	0	△12,842,000
3,499,000	0	0	3,499,000	962,000	0	0	962,000
52,952,000	0	0	52,952,000	11,093,000	0	0	11,093,000
9,495,000	0	0	9,495,000	44,000	0	0	44,000
77,466,000	0	0	77,466,000	△11,934,000	0	0	△11,934,000
22,122,000	0	0	22,122,000	86,000	0	0	86,000
1,709,000	0	0	1,709,000	615,000	0	0	615,000
4,936,000	0	0	4,936,000	38,000	0	0	38,000
296,280,241,739	60,288,402,000	0	356,568,643,739	△1,681,833,161	26,473,462,000	0	24,791,628,839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 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2,986,581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66,099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697,294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23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Others)	2,223,165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670,558
56. 벌금, 몰수금및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081,641
57. 변상금및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203,280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876,844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1,508,793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Sales of Goods & Services)	860,832
62. 병원수입(Hospital Income)	12,753
64. 입장료수입(Admission Fee)	4,271
65. 면허료및수수료(License & Commission Fee)	761,843
66. 입학금및수업료(School Entrance & Tuition Fee)	8,855
67. 항공항만및용수수입(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6,673
68. 실습수입(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4,349
69. 잡수입(Other)	62,088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989,838	1,003,257	33.6
73,696	7,597	11.5
822,239	124,945	17.9
1,615	1,592	6,921.7
3,092,288	869,123	39.1
6,375,534	704,976	12.4
3,132,047	50,406	1.6
465,619	262,339	129.1
781,464	△95,380	△10.9
1,996,404	487,611	32.3
889,123	28,291	3.3
11,082	△1,671	△13.1
4,569	298	7.0
796,445	34,602	4.5
2,516	△6,339	△71.6
6,577	△96	△1.4
4,356	7	0.2
63,578	1,490	2.4

구 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342,466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5,468
65. 면허료및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301,303
66. 입학금및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0
69. 잡수입 (Other)	25,695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68,595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7,947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60,509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139
20.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2,694
75. 용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s)	306
77. 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2,388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27,768
84. 유가증권매각대 (Sales of State-holding Stocks)	27,768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34,640,621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536,681
92. 예탁원금회수 (Collection of deposit)	289,000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33,814,940
합계 (Total)	44,600,11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78,337	35,871	10.5
15,468	0	0.0
329,870	28,567	9.5
314	314	순증
32,685	6,990	27.2
98,272	29,677	43.3
11,243	3,296	41.5
52,454	△8,055	△13.3
34,575	34,436	24,774.1
3,121	427	15.9
733	427	139.5
2,388	0	0.0
0	△27,768	△100.0
0	△27,768	△100.0
60,717,068	26,076,447	75.3
428,666	△108,015	△20.1
0	△289,000	△100.0
60,288,402	26,473,462	78.3
72,451,294	27,851,179	62.4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본예산 FY 2019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72,300,800	21.8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8,828,024	5.7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2,707,062	0.8
4. 국방 (National Defense)	46,925,414	14.1
5. 교육 (Education)	70,601,436	21.3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3,269,781	1.0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356,639	1.0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55,903,497	16.8
9. 보건 (Health)	8,806,301	2.7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8,947,907	2.7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7,799,433	2.4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7,247,134	5.2
13. 통신 (Communication)	360,274	0.1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5,262,936	1.6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6,460,377	1.9
16. 예비비 (Reserve Funds)	3,000,000	0.9
합 계 (Total)	331,777,015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9년도 추경예산 FY 2019 Supplementary Budget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72,410,073	21.6	73,914,508	20.7	1,613,708	2.2	1,504,435	2.1
18,916,215	5.7	19,744,805	5.5	916,781	4.9	828,590	4.4
2,707,062	0.8	3,018,244	0.8	311,182	11.5	311,182	11.5
46,925,414	14.0	50,392,735	14.1	3,467,321	7.4	3,467,321	7.4
70,695,101	21.1	72,284,435	20.3	1,682,999	2.4	1,589,334	2.2
3,271,281	1.0	3,727,550	1.0	457,769	14.0	456,269	13.9
4,121,179	1.2	4,960,628	1.4	1,603,989	47.8	839,449	20.4
56,410,699	16.9	62,280,324	17.5	6,376,827	11.4	5,869,625	10.4
8,808,169	2.6	10,246,461	2.9	1,440,160	16.4	1,438,292	16.3
9,022,717	2.7	10,401,087	2.9	1,453,180	16.2	1,378,370	15.3
8,611,700	2.6	11,329,486	3.2	3,530,053	45.3	2,717,786	31.6
17,492,400	5.2	17,918,442	5.0	671,308	3.9	426,042	2.4
365,574	0.1	430,227	0.1	69,953	19.4	64,653	17.7
5,397,434	1.6	5,573,915	1.6	310,979	5.9	176,481	3.3
6,504,817	1.9	6,945,797	1.9	485,420	7.5	440,980	6.8
3,000,000	0.9	3,400,000	1.0	400,000	13.3	400,000	13.3
334,659,835	100.0	356,568,644	100.0	24,791,629	7.5	21,908,809	6.5

나. 소관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3,669
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	88,639
3. 국회 (National Assembly)	640,904
4. 대법원 (Supreme Court)	1,622,520
5.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47,876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343,57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31,580
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132,418
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544,560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Office)	572,565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15,979,065
• 예비비 (Contingency)	3,000,000
• 일반경비 (General Adm.)	12,979,065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70,448,55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6,631,112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355,607
15.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319,875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3,796,381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31,323,761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55,020,885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443,013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6,284,175
2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3,303,375
22.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44,865,455
23.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3,866,326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6,965,760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462,722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9,482,19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99,023	5,354	5.7
91,616	2,977	3.4
678,736	37,832	5.9
1,706,409	83,889	5.2
52,713	4,837	10.1
730,121	386,549	112.5
32,476	896	2.8
135,643	3,225	2.4
689,530	144,970	26.6
598,538	25,973	4.5
17,421,225	1,442,160	9.0
3,400,000	400,000	13.3
14,021,225	1,042,160	8.0
72,097,627	1,649,074	2.3
7,170,723	539,611	8.1
2,617,199	261,592	11.1
368,569	48,694	15.2
3,807,882	11,501	0.3
33,472,258	2,148,497	6.9
55,001,086	△19,799	△0.0
2,736,013	293,000	12.0
7,500,662	1,216,487	19.4
5,403,473	2,100,098	63.6
51,231,555	6,366,100	14.2
5,582,123	1,715,797	44.4
7,118,404	152,644	2.2
516,366	53,644	11.6
20,800,547	1,318,352	6.8

구 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847,146
28.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82,643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5,346,322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2,967,912
31. 법제처 (Ministry of Legislation)	36,179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04,133
33.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36,683
3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63,022
35.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131,295
36.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992,125
37.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87,498
38.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07,131
39. 국세청 (National Tax Adm.)	1,744,917
40. 관세청 (Customs Service)	551,334
42. 통계청 (Statistics Korea)	382,482
43.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228,329
44.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5,373,324
45.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10,939,083
46.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219,720
47.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757,503
48.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801,324
49.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512,070
51.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388,191
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Multi 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59,904
53.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Agency)	256,181
54.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1,373,217
6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Humidifier Disinfectants & 4.16 Sewol Ferry Disasters)	20,785
합 계 (Total)	331,777,01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111,131	263,985	9.3
5,547,684	1,365,041	32.6
5,507,793	161,471	3.0
3,254,809	286,897	9.7
40,320	4,141	11.4
552,564	48,431	9.6
37,827	1,144	3.1
62,788	△234	△0.4
137,256	5,961	4.5
2,773,195	△218,930	△7.3
90,088	2,590	3.0
111,122	3,991	3.7
1,837,356	92,439	5.3
581,194	29,860	5.4
483,281	100,799	26.4
240,035	11,706	5.1
16,680,442	1,307,118	8.5
11,580,579	641,496	5.9
201,134	△18,586	△8.5
940,947	183,444	24.2
885,736	84,412	10.5
1,691,550	179,480	11.9
390,920	2,729	0.7
328,868	68,964	26.5
330,940	74,759	29.2
1,490,427	117,210	8.5
18,141	△2,644	△12.7
356,568,644	24,791,629	7.5

다. 기능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기 능 Func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72,300,800	21.8
1) 입법및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984,476	0.3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574,918	0.2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52,682,099	15.9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14,924,913	4.5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839,188	0.3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2,295,207	0.7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8,828,024	5.7
1) 법원 및 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1,670,396	0.5
2) 법무 및 검찰 (Justice & Prosecution)	3,796,381	1.1
3) 경찰 (Police)	10,998,486	3.3
4) 해경 (Maritime Police)	1,359,762	0.4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1,002,999	0.3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2,707,062	0.8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351,455	0.1
2) 외교·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2,355,607	0.7
4. 국방 (National Defense)	46,925,414	14.1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18,775,842	5.7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12,547,919	3.8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15,373,324	4.6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228,329	0.1
5. 교육 (Education)	70,601,436	21.3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59,383,165	17.9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10,630,553	3.2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456,560	0.1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31,158	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73,914,508	20.7	1,613,708	2.2
1,408,857	0.4	424,382	43.1
600,966	0.2	26,048	4.5
52,511,814	14.7	△170,285	△0.3
15,931,367	4.5	1,006,454	6.7
870,249	0.2	31,061	3.7
2,591,255	0.7	296,048	12.9
19,744,805	5.5	916,781	4.9
1,759,122	0.5	88,726	5.3
3,807,882	1.1	11,501	0.3
11,641,584	3.3	643,098	5.8
1,484,945	0.4	125,184	9.2
1,051,272	0.3	48,273	4.8
3,018,244	0.8	311,182	11.5
401,045	0.1	49,590	14.1
2,617,199	0.7	261,592	11.1
50,392,735	14.1	3,467,321	7.4
19,860,001	5.6	1,084,159	5.8
13,612,257	3.8	1,064,338	8.5
16,680,442	4.7	1,307,118	8.5
240,035	0.1	11,706	5.1
72,284,435	20.3	1,682,999	2.4
60,324,475	16.9	941,310	1.6
11,278,944	3.2	648,391	6.1
544,516	0.2	87,956	19.3
136,500	0.0	5,342	4.1

기능 Func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269,781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2,201,175	0.7
2) 관광 (Tourism)	7,052	0.0
3) 체육 (Sports)	3,012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757,503	0.2
5) 문화 및 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301,039	0.1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356,639	1.0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90,554	0.1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3,166,085	1.0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55,903,497	16.8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12,704,641	3.8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3,061,488	0.9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2,784,920	0.8
4)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5,346,322	1.6
5) 주택 (Housing)	1,777,481	0.5
6)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989,578	0.3
7) 아동·보육 (Children and Child Care Centers)	8,088,907	2.4
8) 노인 (Senior)	13,721,678	4.1
9) 여성·가족·청소년 (Women, Family, and Youth)	462,722	0.1
10) 고용 (Employment)	6,338,774	1.9
11) 노동 (Labor)	84,270	0.0
12) 고용노동일반 (Employment and Labor (General))	542,716	0.2
9. 보건 (Health)	8,806,301	2.7
1) 보건의료 (Healthcare)	1,184,515	0.4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7,117,653	2.1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504,133	0.2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8,947,907	2.7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7,085,499	2.1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512,070	0.5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350,338	0.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727,550	1.0	457,769	14.0
2,493,515	0.7	292,340	13.3
8,811	0.0	1,759	24.9
3,211	0.0	199	6.6
940,947	0.3	183,444	24.2
281,066	0.1	△19,973	△6.6
4,960,628	1.4	1,603,989	47.8
177,140	0.0	△13,414	△7.0
4,783,488	1.3	1,617,403	51.1
62,280,324	17.5	6,376,827	11.4
13,965,939	3.9	1,261,298	9.9
3,580,949	1.0	519,461	17.0
3,070,631	0.9	285,711	10.3
5,507,793	1.5	161,471	3.0
2,572,616	0.7	795,135	44.7
1,079,809	0.3	90,231	9.1
8,467,464	2.4	378,557	4.7
16,400,353	4.6	2,678,675	19.5
516,366	0.1	53,644	11.6
6,493,927	1.8	155,153	2.4
99,694	0.0	15,424	18.3
524,783	0.1	△17,933	△3.3
10,246,461	2.9	1,440,160	16.4
1,378,366	0.4	193,851	16.4
8,315,531	2.3	1,197,878	16.8
552,564	0.2	48,431	9.6
10,401,087	2.9	1,453,180	16.2
8,386,398	2.4	1,300,899	18.4
1,691,550	0.5	179,480	11.9
323,139	0.1	△27,199	△7.8

기능 Func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7,799,433	2.4
1) 산업금융지원 (Support for Industry Finance)	200,000	0.1
2) 무역및투자유치 (Trade & Investment Inducement)	650,735	0.2
3) 산업·중소기업일반 (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1,827,604	0.6
4) 산업혁신지원 (Support for Industrial Innovation)	2,787,524	0.8
5) 창업및벤처 (Start-up and Venture)	526,156	0.2
6)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1,807,414	0.5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7,247,134	5.2
1) 도로 (National Road)	8,815,919	2.7
2) 철도 (Railroad)	5,286,361	1.6
3)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437,209	0.4
4) 항공·공항 (Aviation & Airport)	19,118	0.0
5) 물류등기타 (Distribution & Others)	1,688,527	0.5
13. 통신 (Communication)	360,274	0.1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226,165	0.1
2)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34,109	0.0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5,262,936	1.6
1) 수자원 (Water Resources)	1,161,460	0.4
2) 지역및도시 (Region & City)	4,026,867	1.2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74,609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6,460,377	1.9
1)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3,284,236	1.0
2)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533,920	0.2
3) 과학기술인력및문화 (Science and Technology - Human Resources and Culture)	98,987	0.0
4) 과학기술연구개발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Development)	2,543,234	0.8
16. 예비비 (Reserve Funds)	3,000,000	0.9
1) 예비비 (Reserve Funds)	3,000,000	0.9
합 계 (Total)	331,777,015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1,329,486	3.2	3,530,053	45.3
264,000	0.1	64,000	32.0
992,217	0.3	341,482	52.5
2,348,811	0.7	521,207	28.5
4,536,736	1.3	1,749,212	62.8
668,033	0.2	141,877	27.0
2,519,689	0.7	712,275	39.4
17,918,442	5.0	671,308	3.9
7,430,829	2.1	△1,385,090	△15.7
6,808,587	1.9	1,522,226	28.8
1,684,863	0.5	247,654	17.2
24,736	0.0	5,618	29.4
1,969,427	0.6	280,900	16.6
430,227	0.1	69,953	19.4
235,821	0.1	9,656	4.3
194,406	0.1	60,297	45.0
5,573,915	1.6	310,979	5.9
1,290,906	0.4	129,446	11.1
4,209,749	1.2	182,882	4.5
73,260	0.0	△1,349	△1.8
6,945,797	1.9	485,420	7.5
3,373,471	0.9	89,235	2.7
567,911	0.2	33,991	6.4
116,641	0.0	17,654	17.8
2,887,774	0.8	344,540	13.5
3,400,000	1.0	400,000	13.3
3,400,000	1.0	400,000	13.3
356,568,644	100.0	24,791,629	7.5

라. 성질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s)

구 분 Classification	2019년도 예산 FY 2019 Budget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6,083,095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6,083,095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0,199,425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5,803,775
220 여비 (Travel Expenses)	600,993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285,460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172,519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972,763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1,819,354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544,560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198,427,626
310 보전금 (Compensation)	14,558,120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10,825,411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147,044,841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334,902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ing)	10,070,776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14,593,576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21,436,389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204,087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5,804,163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3,705,648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110,876
460 출자금 (Investment)	1,539,926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71,688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8,586,288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8,586,288
600 전출금등 (Transfers)	44,041,404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44,041,404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3,002,788
71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3,002,788
합계 (Total)	331,777,01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8,250,416	2,167,321	6.0
38,250,416	2,167,321	6.0
22,023,154	1,823,729	9.0
16,842,757	1,038,982	6.6
615,244	14,251	2.4
253,115	△32,345	△11.3
178,726	6,207	3.6
1,003,089	30,326	3.1
2,440,693	621,339	34.2
689,530	144,970	26.6
209,536,690	11,109,064	5.6
16,018,594	1,460,473	10.0
12,057,246	1,231,835	11.4
152,385,772	5,340,931	3.6
1,581,196	246,294	18.5
11,525,559	1,454,783	14.4
15,968,323	1,374,747	9.4
22,778,825	1,342,436	6.3
204,616	529	0.3
6,441,567	637,404	11.0
14,406,781	701,132	5.1
43,651	△67,226	△60.6
1,618,429	78,503	5.1
63,782	△7,906	△11.0
9,498,563	912,275	10.6
9,498,563	912,275	10.6
51,078,691	7,037,287	16.0
51,078,691	7,037,287	16.0
3,402,305	399,517	13.3
3,402,305	399,517	13.3
356,568,644	24,791,629	7.5

마. 2020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110-01) Wages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상용임금(110-03) Wages for Fixed-Term Contract Employees	일용임금(110-04) Wage for Daily Employees	연가보상비(110-05)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3,553,609	3,135,565	67,963	205,994	105,304	38,783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 Safety)	13,677,846	12,986,583	231,816	308,277	4,495	146,675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607,093	407,332	2,701	192,039	3,191	1,829
4. 국방 (National Defense)	14,717,096	14,297,620	19,731	218,527	3,726	177,491
5. 교육 (Education)	2,078,354	1,905,561	1,576	162,921	782	7,513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490,902	278,963	14,792	189,863	4,151	3,133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154	0	0	154	0	0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925,123	680,398	114,817	113,132	8,623	8,153
9. 보건 (Health)	210,916	136,579	2,966	69,371	345	1,656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891,238	629,840	64,223	145,955	43,789	7,431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236,958	212,044	12,363	10,276	73	2,201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520,190	442,431	57,557	14,673	345	5,184
13. 통신 (Communication)	102,653	92,917	6,146	2,375	45	1,170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26,669	20,081	61	6,275	4	248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211,615	181,110	6,704	21,551	108	2,142
16. 예비비 (Reserve Funds)	0	0	0	0	0	0
합 계 (Total)	38,250,416	35,407,024	603,417	1,661,384	174,982	403,609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2,976,639	54,115,762	879,445	9,483,732	2,903,422	1,900	73,914,508
3,274,472	1,487,724	1,175,751	0	128,707	305	19,744,805
552,650	1,631,340	69,768	7,393	150,000	0	3,018,244
11,867,757	4,301,167	16,476,882	0	3,029,834	0	50,392,735
407,403	64,036,827	921,618	692	4,839,541	0	72,284,435
521,894	2,008,463	540,075	0	166,202	13	3,727,550
18,493	95,339	63,154	0	4,783,488	0	4,960,628
573,728	54,350,077	217,559	0	6,213,757	81	62,280,324
287,833	9,391,718	82,409	0	273,585	0	10,246,461
592,077	1,164,838	357,806	0	7,395,122	6	10,401,087
157,311	6,535,925	299,377	0	4,099,914	1	11,329,486
305,117	3,138,077	281,393	6,746	13,666,920	0	17,918,442
68,357	232,289	16,166	0	10,761	0	430,227
207,661	679,339	1,303,046	0	3,357,200	0	5,573,915
211,761	6,367,805	94,378	0	60,238	0	6,945,797
0	0	0	0	0	3,400,000	3,400,000
22,023,154	209,536,690	22,778,825	9,498,563	51,078,691	3,402,305	356,568,644

바. 2020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553,609	13,677,846	607,093	14,717,096	2,078,354	490,902
110 보수 (Wages)	3,135,565	12,986,583	407,332	14,297,620	1,905,561	278,963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67,963	231,816	2,701	19,731	1,576	14,792
110 상용임금 (Wages for Fixed-term employees)	205,994	308,277	192,039	218,527	162,921	189,863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105,304	4,495	3,191	3,726	782	4,151
110 연가보상비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38,783	146,675	1,829	177,491	7,513	3,133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976,639	3,274,472	552,650	11,867,757	407,403	521,894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667,531	2,170,487	460,824	10,011,065	360,042	459,769
220 여비 (Travel Expenses)	189,896	106,776	53,028	155,703	6,828	15,254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25,541	102,395	2,746	119,405	0	0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49,474	34,021	20,075	51,952	1,358	3,082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26,134	779,496	2,134	44,212	21,865	2,595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228,534	81,296	13,843	1,485,419	17,310	41,195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689,530	0	0	0	0	0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54,115,762	1,487,724	1,631,340	4,301,167	64,036,827	2,008,463
310 보전금 (Compensation)	166,294	209,592	50,238	477,429	74,273	15,504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355,426	427,154	129,573	496,933	361,848	1,175,760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52,434,925	603,666	14,158	0	56,055,247	662,332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환 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154	925,123	210,916	891,238	236,958	520,190	102,653	26,669	211,615	0	38,250,416
0	680,398	136,579	629,840	212,044	442,431	92,917	20,081	181,110	0	35,407,024
0	114,817	2,966	64,223	12,363	57,557	6,146	61	6,704	0	603,417
154	113,132	69,371	145,955	10,276	14,673	2,375	6,275	21,551	0	1,661,384
0	8,623	345	43,789	73	345	45	4	108	0	174,982
0	8,153	1,656	7,431	2,201	5,184	1,170	248	2,142	0	403,609
18,493	573,728	287,833	592,077	157,311	305,117	68,357	207,661	211,761	0	22,023,154
5,510	429,738	164,432	507,003	111,492	166,961	57,552	96,786	173,566	0	16,842,757
257	18,064	10,486	22,639	13,927	12,401	3,298	1,689	4,999	0	615,244
0	0	0	0	0	0	2,534	0	494	0	253,115
21	5,951	859	2,706	3,580	2,615	713	516	1,803	0	178,726
421	13,015	1,213	3,755	2,283	2,892	913	266	1,894	0	1,003,089
12,284	106,960	110,843	55,974	26,030	120,248	3,347	108,405	29,006	0	2,440,693
0	0	0	0	0	0	0	0	0	0	689,530
95,339	54,350,077	9,391,718	1,164,838	6,535,925	3,138,077	232,289	679,339	6,367,805	0	209,536,690
520	7,579,072	7,426,687	17,580	1,046	171	26	5	157	0	16,018,594
50,686	4,497,867	1,158,971	387,534	1,908,552	674,053	19,949	378,278	34,662	0	12,057,246
12,429	41,497,049	326,532	385,015	20,049	85,363	0	279,405	9,602	0	152,385,772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203,383	7,720	521,968	547,010	89,291	5,289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ing)	448,735	135,693	915,403	0	5,275,015	20,000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507,000	103,898	0	2,779,795	2,181,153	129,578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879,445	1,175,751	69,768	16,476,882	921,618	540,075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0	698	0	44,276	5,624	24,509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169,425	368,789	34,067	3,637,338	757,555	232,377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222,782	796,318	35,691	12,793,738	143,409	150,052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5,294	9,946	10	1,530	30	1,077
460 출자금 (Investment)	478,822	0	0	0	15,000	113,000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3,122	0	0	0	0	19,060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9,483,732	0	7,393	0	692	0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9,483,732	0	7,393	0	692	0
600 전출금등 (Transfers)	2,903,422	128,707	150,000	3,029,834	4,839,541	166,202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2,903,422	128,707	150,000	3,029,834	4,839,541	166,202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1,900	305	0	0	0	13
71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1,900	305	0	0	0	13
합계 (Total)	73,914,508	19,744,805	3,018,244	50,392,735	72,284,435	3,727,55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신 Communication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계 Total
1,401	41,845	17,569	119,211	2,938	6,646	3,976	2,650	10,299	0	1,581,196
30,303	732,401	61,688	35,931	1,940,875	1,716,119	99,306	16,400	97,690	0	11,525,559
0	1,842	400,271	219,567	2,662,466	655,724	109,032	2,601	6,215,395	0	15,968,323
63,154	217,559	82,409	357,806	299,377	281,393	16,166	1,303,046	94,378	0	22,778,825
0	10,927	0	57,129	0	0	0	61,383	70	0	204,616
61,972	82,097	40,844	203,869	29,397	84,434	5,268	659,109	75,025	0	6,441,567
1,182	69,865	40,524	84,539	5,521	29,826	10,747	3,647	18,940	0	14,406,781
0	17,669	1,042	1,969	459	4,132	151	0	343	0	43,651
0	37,000	0	10,300	264,000	163,000	0	537,307	0	0	1,618,429
0	0	0	0	0	0	0	41,600	0	0	63,782
0	0	0	0	0	6,746	0	0	0	0	9,498,563
0	0	0	0	0	6,746	0	0	0	0	9,498,563
4,783,488	6,213,757	273,585	7,395,122	4,099,914	13,666,920	10,761	3,357,200	60,238	0	51,078,691
4,783,488	6,213,757	273,585	7,395,122	4,099,914	13,666,920	10,761	3,357,200	60,238	0	51,078,691
0	81	0	6	1	0	0	0	0	3,400,000	3,402,305
0	81	0	6	1	0	0	0	0	3,400,000	3,402,305
4,960,628	62,280,324	10,246,461	10,401,087	11,329,486	17,918,442	430,227	5,573,915	6,945,797	3,400,000	356,568,644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회계별 Account	2019년도 본예산 FY 2019 Main Budget
(15) 농어촌구조개선 (Agri.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11,902,965
(17)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15,789,848
(18) 등기 (Registration S/A)	314,674
(20) 교도작업 (Prison Operation S/A)	126,817
(24) 에너지및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Management S/A)	6,020,559
(25) 환경개선 (Environment Reconstruction S/A)	4,787,065
(2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S/A)	0
(29)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988,744
(34) 주한미군기지이전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stitution Relocation S/A)	493,318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S/A)	299,737
(36) 국방·군사시설이전 (Defense Military Installations Relocation S/A)	792,141
(37)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S/A)	264,632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80,476
(39) 국가균형발전 (Regional Development S/A)	10,748,531
(40) 유아교육지원(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S/A)	3,815,338
(51)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2,074,834
(52) 책임운영기관 (Agency)	1,085,563
(56) 조달 (Government Supply S/A)	394,210
(57) 우편사업 (Postal Programs S/A)	4,919,754
(58) 우체국예금 (Postal Savings S/A)	3,092,877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67,992,083
순계 (회계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60,350,360
순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64,422,181
순계 (일반지출)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49,812,28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9년도 추경예산 FY 2019 Supplementary Budget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2,155,011	11,995,945	92,980	0.8	△159,066	△1.3
15,786,955	15,816,982	27,134	0.2	30,027	0.2
314,674	332,466	17,792	5.7	17,792	5.7
126,817	127,177	360	0.3	360	0.3
6,041,350	5,536,333	△484,226	△8.0	△505,017	△8.4
5,807,508	6,391,305	1,604,240	33.5	583,797	10.1
0	2,072,511	2,072,511	순증	2,072,511	순증
988,744	996,577	7,833	0.8	7,833	0.8
493,318	699,679	206,361	41.8	206,361	41.8
299,737	340,638	40,901	13.6	40,901	13.6
792,141	926,557	134,416	17.0	134,416	17.0
264,632	342,291	77,659	29.3	77,659	29.3
80,476	112,960	32,484	40.4	32,484	40.4
10,909,396	9,520,448	△1,228,083	△11.4	△1,388,948	△12.7
3,815,338	4,031,608	216,270	5.7	216,270	5.7
2,074,834	2,106,505	31,671	1.5	31,671	1.5
1,085,563	1,082,680	△2,883	△0.3	△2,883	△0.3
396,610	406,294	12,084	3.1	9,684	2.4
4,919,754	4,637,333	△282,421	△5.7	△282,421	△5.7
3,092,877	3,064,437	△28,440	△0.9	△28,440	△0.9
69,445,735	70,540,726	2,548,643	3.7	1,094,991	1.6
61,621,845	65,025,123	4,674,763	7.7	3,403,278	5.5
65,783,133	68,459,693	4,037,512	6.3	2,676,560	4.1
51,654,955	55,079,989	5,267,704	10.6	3,425,034	6.6

0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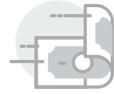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계속비연부액			
			2011	2012	2013	2014
	2019 예산	2,642,775,000	-	-	37,369,000	229,956,000
	2020 예산	2,673,879,000	-	-	37,369,000	229,956,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1. 지역간선국도8차건설					
	2019 예산	1,555,001,000	-	-	37,369,000	229,956,000
	2020 예산	1,553,713,000	-	-	37,369,000	229,956,000
	2. 익산-대야복선전철					
	2019 예산	383,967,000	-	-	-	-
	2020 예산	400,028,000	-	-	-	-
	3.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2019 예산	500,807,000	-	-	-	-
	2020 예산	506,237,000	-	-	-	-
	4. 울산신항인입철도					
2019 예산	203,000,000	-	-	-	-	
2020 예산	213,901,000	-	-	-	-	

(단위 :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76,943,000	549,011,000	571,852,000	281,721,000	148,233,000	148,353,000	99,337,000	-
576,943,000	549,011,000	571,852,000	289,551,000	148,233,000	100,841,000	117,295,000	52,828,000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13,521,000	78,733,000	49,016,000	-	-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21,351,000	78,733,000	21,940,000	17,958,000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30,000,000	43,733,500	43,733,500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30,000,000	36,000,000	43,733,500	23,794,500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25,000,000	55,603,500	55,603,500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25,000,000	32,000,000	55,603,500	29,033,500
36,000,000	40,600,000	66,000,000	45,900,000	14,500,000	-	-	-
36,000,000	40,600,000	66,000,000	45,900,000	14,500,000	10,901,000	-	-

0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단위 :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9예산	2020예산	증 감
		-	-	-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단위 : 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9예산	2020예산	증 감
		-	-	-

제 2 장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01. 기금요약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03. 기금수입
04. 기금지출



0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복권기금 (Lottery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 농업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합계	총 67개 기금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 : 조원(In Trillion KRW)

구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19년도 FY 2019	2020년도 FY 2020	증감률(%) Rate
운용규모 (Total)		633.2	724.8	14.5
수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165.0	172.9	4.8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151.7	184.8	21.8
	■ 차입금 (Borrowings)	122.3	151.9	24.2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194.2	215.2	10.8
지출	■ 사업비 (Project Cost)	129.3	148.9	15.2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67.8	76.7	13.1
	- 사업성 (Project Fund)	53.3	63.0	18.2
	- 금융성·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8.2	9.2	13.6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2.5	2.6	3.5
	■ 정부내부지출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271.2	334.8	23.5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230.2	238.4	3.6

03 기금수입 (Fund Revenues)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총계 (Total)	1,728,569	1,848,234	1,519,230	2,151,595	7,247,628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35,246	5,802	-	40,465	181,513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6,858	878,364	1,302,480	3,341	2,191,043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59,512	37,087	-	33,159	229,758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304	104,008	-	-	104,313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80	2,274	-	271	2,625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3,147	304	-	1,734	15,185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0,427	8,899	-	3,122	42,448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679,374	102	-	649,713	1,329,189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7,720	3,627	-	4,725	26,073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0,766	91	-	5,239	16,095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694	419	-	822	1,936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522	-	-	482	1,004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335	-	-	3,149	8,48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6,979	27,826	-	500	35,305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222	1,155	-	1,175	3,552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1,277	-	-	189	1,465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Fund)	10,428	2,245	-	15,013	27,68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471	-	-	168	2,639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280	16,946	-	801	19,02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3,576	2,694	-	5,037	11,30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2,088	-	-	2,720	24,80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339	339	-	2	68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178	1,193	-	2,617	4,98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40	26,274	-	-	26,314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5,622	4,038	-	12,982	32,642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212	11,722	-	191	14,125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10,852	2,960	-	23,611	37,423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661	2,933	-	1,845	5,439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89	1,282	-	139	1,51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8,445	15,293	-	33,459	57,196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7,353	3,572	-	1,160	12,08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39	924	-	72	1,035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970	1,945	-	2,767	6,682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복권기금 (Lottery Fund)	49,468	4,790	-	3,119	57,3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 Pension Fund)	53,387	8,959	-	61,967	124,31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837	-	-	320	1,157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1,802	2,212	-	1,591	5,60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531	80	-	5,959	6,57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899	642	-	662	2,20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89,736	4,181	-	69,677	163,594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141	310	-	156	60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19,441	13,646	-	-	33,087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6,291	7	-	2,303	8,6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79	767	-	524	1,370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0,950	2,700	-	52,778	76,427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13,352	-	248	13,603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202	4,062	-	227	4,491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54	-	-	59	31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902	-	-	145	1,047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590	974	-	1,131	2,695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34,403	-	3,000	3,100	40,503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15,138	463,082	17,850	608,274	1,104,343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2,979	-	-	1,668	4,647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742	2,035	-	171	2,948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5,200	2,028	-	1,625	8,85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520	-	-	1,816	2,33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3,896	1,567	-	536	5,99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7,432	592	-	4,488	12,511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24,039	19,133	-	6,524	49,696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7,230	2,510	-	1,637	11,37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13,346	50	-	52,364	65,760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159,369	120,689	150,000	414,133	844,19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37,532	12,728	45,900	180	96,340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2	80	-	23	104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19	1,244	-	280	1,642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8,097	1,500	-	1,638	11,235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908	-	-	1,602	6,510

04 기금지출

(Fund Expenditures)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영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총계(Total)	1,489,245	25,867	3,348,265	2,384,251	7,247,628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53,965	1,022	-	26,526	181,513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7,067	1	2,179,057	4,919	2,191,043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95,193	834	617	33,114	229,758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131	1	103,880	301	104,313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616	7	1,666	336	2,625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1,681	6	663	2,835	15,185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3,699	1	5,340	3,408	42,448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268,812	5,298	-	1,055,078	1,329,189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4,487	291	6,200	5,094	26,073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0,783	28	3,000	2,285	16,095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534	145	600	657	1,936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652	5	-	347	1,004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6,421	-	620	1,443	8,48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34,657	5	-	644	35,305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296	158	583	1,516	3,552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1,179	29	-	257	1,465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Fund)	11,350	2,009	500	13,827	27,68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468	45	-	126	2,639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2,030	26	6,475	496	19,02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3,796	576	-	6,935	11,30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1,093	539	-	3,176	24,80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667	-	-	13	68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193	6	-	3,789	4,98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26,190	113	12	-	26,314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4,659	833	9,500	7,649	32,642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2,118	202	1,805	-	14,125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6,837	1,210	-	29,376	37,423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2,678	215	50	2,496	5,439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1,438	1	34	37	1,51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2,264	14	20,000	34,919	57,196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9,762	44	900	1,378	12,08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1,012	1	1	22	1,035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428	11	1,708	3,535	6,682
복권기금 (Lottery Fund)	34,968	8	19,321	3,079	57,3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 Pension Fund)	49,093	595	522	74,101	124,31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635	1	-	522	1,157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537	90	1,233	1,745	5,60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63	114	-	6,293	6,57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390	12	1,471	330	2,20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65,188	3,873	4,000	90,533	163,594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197	19	150	241	60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31,000	463	1,624	-	33,087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284	14	500	2,802	8,6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826	1	-	543	1,370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3,877	3,544	-	49,006	76,427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13,369	234	13,603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4,062	-	119	310	4,491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26	2	-	85	31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788	20	-	239	1,047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899	116	-	1,680	2,695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482	37	24,992	14,993	40,503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8	414,295	690,040	1,104,343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2,881	14	-	1,752	4,647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2,362	3	482	101	2,948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4,734	135	2,000	1,985	8,85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525	1	-	1,810	2,33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5,504	45	-	451	5,99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5,252	723	1,500	5,036	12,511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20,354	80	25,000	4,262	49,696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9,031	245	104	1,997	11,37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3,218	683	8,000	53,858	65,760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271,710	6	446,565	125,910	844,19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55,346	1,221	39,773	-	96,340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87	6	-	12	104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359	-	35	248	1,642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9,260	17	-	1,957	11,235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854	96	-	1,560	6,510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이차웅	예산관리과 과장	종합 편집
원선재	예산관리과 사무관	"
이현지	예산관리과 사무관	"
김진수	예산관리과 사무관	"
김민주	예산관리과 주무관	"
나한솔	예산관리과 에디터	"
김명중	예산총괄과 과장	제3부 중 2020년도 예산, 예산통계
신명석	예산총괄과 서기관	"
임대한	예산총괄과 사무관	"
최연규	예산총괄과 사무관	"
이성민	예산총괄과 사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홍단기	예산총괄과 주무관	"
박준호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중 제1장 2020년도 나라살림 종합, 2020년도 자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김영임	예산정책과 서기관	"
이기웅	예산정책과 사무관	"
정민철	예산정책과 사무관	"
박진훈	예산정책과 사무관	"
문근기	예산정책과 주무관	"
윤동형	예산정책과 주무관	"
오기남	예산기준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공공 일자리)
이원경	예산기준과 사무관	"
정병완	예산기준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신준호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3부 중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통계
이만구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윤인형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김철현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박창환	고용환경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일자리, 환경 분야
최원석	고용환경예산과 서기관	"
기순봉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김금비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김정아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박성준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박병선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김재영	고용환경예산과 주무관	"
정유정	고용환경예산과 주무관	"
이주현	교육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교육 분야
박민정	교육예산과 사무관	"
박성현	교육예산과 사무관	"
유근정	교육예산과 사무관	"
김종석	교육예산과 사무관	"
김동욱	교육예산과 주무관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양경모	교육예산과 주무관	"
강대현	문화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문화·체육·관광분야
김 일	문화예산과 사무관	"
김병철	문화예산과 사무관	"
이재훈	문화예산과 사무관	"
최지원	문화예산과 주무관	"
김성규	문화예산과 주무관	"
박봉용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제2부 중 SOC분야
최동일	국토교통예산과 서기관	"
김남호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김영진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SOC분야
곽인수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홍종민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박형민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김태곤	산업정보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최상구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
구정대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
김호준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
박주선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
서혜경	산업정보예산과 주무관	"
박광희	산업정보예산과 주무관	"
이성원	정보통신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주영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김남희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김기동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최관수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박준규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최항	정보통신예산과 주무관	"
정창길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류재현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이선호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원봉희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허성용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정호석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이재환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최경남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장보영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제2부 중 R&D분야
김영민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이지훈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김한필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R&D분야
이성택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박철호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백창현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현소형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남경철	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보건·복지분야
박상우	복지예산과 사무관	"
정운홍	복지예산과 사무관	"
김기문	복지예산과 사무관	"
이성한	복지예산과 사무관	"
공현철	복지예산과 주무관	"
정민기	복지예산과 주무관	"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주휘택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성기웅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임주현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김연수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최재원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김경연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육현수	지역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오두현	지역예산과 사무관	"
문희영	지역예산과 사무관	"
김혜은	지역예산과 사무관	"
조강훈	지역예산과 사무관	"
김새날	지역예산과 주무관	"
오은실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
박해정	법사예산과 사무관	"
황준우	법사예산과 사무관	"
임성빈	법사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이돈구	법사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
송준식	법사예산과 사무관	"
전효진	법사예산과 주무관	"
장윤정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외교·통일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배경화	행정예산과 사무관	"
성석언	행정예산과 사무관	"
조윤철	행정예산과 사무관	"
전형용	행정예산과 사무관	"
권동한	행정예산과 주무관	"
김희태	행정예산과 주무관	"
장승대	안전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정록환	안전예산과 사무관	"
허영락	안전예산과 사무관	"
조희진	안전예산과 사무관	"
신진욱	안전예산과 주무관	"
김위정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국방분야
이승도	국방예산과 사무관	"
유동훈	국방예산과 사무관	"
안광선	국방예산과 사무관	"
김철홍	국방예산과 주무관	"
남동오	방위사업예산과 과장	"
이기훈	방위사업예산과 서기관	"
조병규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강민기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조경동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김유미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배경은	방위사업예산과 주무관	"
박현창	지방재정팀 사무관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권혁순	지방재정팀 사무관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 발 행 처 기획재정부
- 발 행 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 발 행 일 2020년 2월
- 연 락 처 Tel. 044-215-7191
Fax. 044-215-8041

